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440-01

농민복합농산
노동력을 말한다.

농·촌·지·역·공·동·체·활·성·화·우·수·사·례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14471

1. 경기도가평_초롱이등지마을 (상생과 협동)

제목: 마을 간 통합 법인을 구상한 초롱이등지마을

마을 간 통합으로 이룬 진정한 공동체

“마을주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마을 간 통합 법인 구성)을 이끌어 내고”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리 일원(목안1리, 목안2리)
- 인구: 139호(농가 114호, 비농가 25호), 인구 264명
- 면적: 10.48km²(농경지 1.048km², 임야 8.59km², 기타 0.41km²)
- 관련 사업: 2008년 슬로푸드체험마을사업을 시작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기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초롱이등지마을은 가평군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대중교통 버스도 하루에 3회정도 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산촌시골마을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간의 교류활동이 단절되고 마을공동체문화가 소멸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축산부 주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초롱이등지마을의 최종목표는 ‘목안리 마을공동체 복원’이다. 예전의 목안리 주민들은 논과 밭이라는 공동된 삶의 터전에서 서로 공유하고 살아가는 강한 일체감이 있었고, 마을의 일은 곧 자신의 일이었다. 그러나, 목안리도 급격한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가지 못했다. 농업 경제의 어려움, 인구의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마을 간의 공동체문화가 약해지고 공동체적인 교류가 없는 마을이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목안2리 강병옥 이장은 마을 간에 파스했던 정취를 되살리고 활력있는 목안리를 만들고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본 사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안1리와 2리가 단합하여 긴 시간동안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보다 마을 서로 간의 공동체복원, 예전처럼 마을 간의 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초롱이등지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목안1리와 목안2리를 합쳐 ‘초롱이등지마을 통합 법인’으로 이뤄냈으며, 그 이후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첫 번째 키워드제목 작성 ‘통합 법인의 구성 및 운영’

(본문 10줄)

첫 번째로 초롱이동지마을은 ‘통합 법인’ 구성을 통해 일원화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또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슬로푸드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목안1리에서만 국한된 사업으로 목안리 공동체복원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목안리 상생프로젝트’의 모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지 및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에 큰 문제점으로 마을 간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목안1리와 목안2리는 단순한 교류 활동은 있었을지 몰라도 공동체복원을 위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갈등이 하나둘씩 줄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초롱이동지마을 통합 법인’이 탄생하고 끊임없는 주민들의 노력 끝에 정착되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협동과 소통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 계기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상생의 전환점으로 느끼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마을사업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마을공동체복원을 이뤄낼 수 있었다.

2. 두 번째 키워드 제목작성 ‘자체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의 노력’

(본문 13줄)

두 번째로 초롱이동지마을은 ‘자체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의 노력’을 통해 마을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초롱이동지마을은 중앙정부 사업에도 열심이었지만, 이 외에도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의 상생발전과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첫 번째, 산간지역에 자리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2007년에 처음으로 두릅나무를 식재해 두릅축제를 개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처음에는 마을사람들 간에 공동사업의 시작에 큰 의미를 두고 시작하였지만, 2010년 이후로 외부인들에게도 알려져 마을과 마을 간의 화합을 위한 자리만이 아닌 외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마을대표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두 번째, 2013년에는 개복송아 나무 1,000주를 자체적으로 식재하여 앞으로 마을공동문화행사의 중요한 자원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세 번째, 기존의 목안1리와 목안2리의 부녀회가 통합된 통합 부녀회에서는 마을에서 재배되는 콩을 활용해 손두부를 만들어 한 달에 2회씩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손두부 판매 등의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초롱이동지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공동체 운영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창출이라는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결론 3줄)

위와 같은 ‘상생과 협동’의 노력으로 초롱이동지마을은 혼자 사는 마을이 아닌 다같이 사는 공동체의 마을로 변모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꾸준한 마을의 발전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주민들의 화합과 협동이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마을로 정착되었다.

다. 초롱이동지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초롱이동지마을의 공동체 활동은 기존의 공동체들이 통·폐합된 ‘통합 법인’에 의미가 있다. 기존의 법인, 운영위원회, 목안1리 부녀회, 목안2리 부녀회 등의 공동체 들이 ‘초롱이동지마을 통합 법인’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공동체로 재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3줄)

초롱이등지마을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며 이를 활용하였다. 2007년에 두릅나무를 식재하여 마을공동체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졌고, 2013년에는 개복송아나무 1,000주를 식재하여 경관적인 효과와 체험, 상품 등의 연계효과까지 볼 수 있었다. 이는 봄, 여름에 치중되었던 마을자원의 분포에 있어 상당한 장점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개복송아나무를 활용해서 개복송아따기 체험, 효소만들기 체험 및 과실주 및 액기스 등의 상품 판매로 기존의 두릅과 함께 부가적인 소득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초롱이등지마을은 마을경제활동을 위해 인근기관과 MOU 체결 및 마을협력사업 등의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성모병원과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였다. 기존에는 지방도로를 통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수 있었으나, 둘레길 조성을 통해 마을주민들 간의 소통이 훨씬 용이해 졌으며 더 나아가 등산객이나 외부인에게 휴양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활용해 산책로와의 연계, 마을투어 등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서울시 서부교육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특산물과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창출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초롱이등지마을은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 결과와 성과(10줄)

초롱이등지마을은 ‘통합 법인’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노력으로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마을 간 통합으로 초롱이등지마을은 일원화된 활동 및 운영이 쉬워져 마을 간의 공동체 활동 및 교류가 활발해졌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눔으로써 초롱이등지마을의 최종목표였던 ‘마을공동체복원’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기인하여 마을은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행사처럼 경로잔치, 야유회 등의 유흥의 공동체활동이 아닌 앞으로의 마을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공동체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두릅과 개복송아 나무 식재를 통한 축제 개최, 부녀회 손두부 체험 판매 행사 등 진취적인 활동에까지 영역을 넓힘으로써 부가소득창출, 마을홍보효과 등의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효과로 농협, 서울시 서부교육청 등의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둘레길 조성, 체험학교 운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상생과 협동’을 위한 개별 공동체에서 ‘통합 법인’ 공동체로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화합과 공동체별 결속력이 부족했던 과거가 있기에 새로운 사업들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었다. 하나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많지 않았던 마을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기존의 각각의 공동체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통·폐합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기 되었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존의 힘들었던 사업과정을 돌아보며 ‘살기 좋은 초롱이등지마을’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마을 간 통합 법인 구성)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통해 지금의 초롱이등지마을이 되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7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각 마을끼리 사업비를 나누어 추진하고, 사업이 끝난 뒤로 각자 마을끼리 운영되고 있었다. 마을별로 이익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비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발생하고 있다. 결국에 본 사업의 취지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마을만들기’와는 거리가 먼 애먼 사업이 되버린 것이다.

이처럼 각 마을 공동체 간의 통합운영조직을 이끌어내고 운영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롱이등지마을은 단순히 눈 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안1리와 목안2리가 상생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초롱이등지마을은 2008년에 경기도 슬로푸드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목안1리만 운영되어져 오고 있었다. 같은 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면서 목안1리와 목안2리와의 공동체 활동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10년도에 ‘초롱이등지마을’로서의 통합마을로써 변모하게 된다. 그에 따라 통합운영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그 이후에 지역공동체 행사 등에 목안1리와 목안2리 개별마을로써의 활동이 아닌 ‘초롱이등지마을’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6. 관련 예산 (6줄)

초롱이등지마을은 2008년에 처음으로 목안권역이라는 명칭 하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40억원 정도이며,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마을의 중심시설인 산골센터, 마을쉼터 조성, 운동장 조성, 체험관 정비 등의 기초생활기반시설, 하천정비, 담장정비 등의 경관개선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에 약 35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운영조직구성,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등의 공동체운영 기반 사업비로 약 5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초롱이등지마을

대표자 이름 : 강병옥 위원장

연락처 : H·P)010-4573-8830, TEL)031-584-9959

홈페이지 : www.chorongi.kr

이메일 : kbo585@naver.com

2. 경기양평_(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상생과협동)

제목: 양평군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연대, 양평농촌나드리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
- 인구 : 104,731명(양평군전체인구)
- 면적 : 877.8km²(양평군면적)
- 관련 사업 :

양평군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네트워크조직으로서 회원마을의 공동체활성화와 역량강화, 도시민(체험객)과 회원마을을 연결하는 허브(hub)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양평에 체험마을이 조성된 것은 2002년. 체험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사전 준비가 충실했던 마을은 체험객들의 발길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체험시설부터 짓기 시작한 마을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모든 마을이 함께 성공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2005년 당시 16개의 체험마을 운영자들이 모여 「물맑은양평농촌관광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이것이 2006년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이하 「(사)양평농촌나드리」)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21개의 마을을 참여하고 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사)양평농촌나드리의 목표는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양평군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 손님을 다른 마을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각 마을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고, 드디어 2005년에는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의 군단위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후 농촌체험관광사업과 관련한 민간 거버넌스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개별마을 단위로는 추진할 수 없는 홍보사업과 교육사업, 체험지도사육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과의 협상을 통해 체험마을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사)양평농촌나드리」의 최종목표는 농촌체험사업을 통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양평 농산물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현하는 것이며 체험객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양평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사)양평농촌나드리」는 민간주도의 네트워크조직이다. 일부 시·군지역의 형식적인 농촌관광협의회조직과는 달리 개별 체험마을로는 추진할 수 없는 공동홍보마케팅과 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hub)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1. 지역리더의 헌신과 네트워크의 힘(본문 8줄)

첫 번째 요인은 체험관광마을을 운영하는 지역리더의 헌신과 네트워크의 힘이다. 「(사)양평농촌나드리」가 창립되기 전에 양평군에는 이미 여러 마을에서 다름대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마다 인적·물적자원도 상이했고, 준비상황이나 추진역량도 달랐으며 각 사업의 활성화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때문에 개별 마을단위로서는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추진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치기로 결의하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앞선 마을의

발목을 잡거나 각 마을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발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공감하게 되었다. 각 마을은 자신의 전통, 역사, 자연을 배경으로 각기 개성있는 관광체험테마를 만들고, 이를 하나로 네트워크하여 공동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각 마을의 네트워크조직인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는 개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험마을 주민들이 「(사)양평농촌나드리」를 통해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2.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화(人和)와 지속적 혁신(본문 8줄)

두 번째 요인은 「양평농촌나드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人和)과 지속적인 혁신노력이다. 사실, 그동안 양평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으로서 또 군사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생산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6중7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이러한 규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동질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사)양평농촌나드리」의 설립과 성공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만들어진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는 체험마을의 실질적인 이익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우선, 도시민이 회원마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www.ypnadri.com)를 만들고,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예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체험마을과 동시에 체험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개별마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비용정산, 민원처리 등 다양한 활동을 대행함으로써 회원마을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홈페이지 (m.ypnadri.com)까지 운영하고 있다.

3.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실무역량의 강화(본문 8줄)

세 번째 요인은 행정과의 협력시스템구축과 상근인력을 중심으로 한 실무역량의 강화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농촌지역의 특성 상 민간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지원)과 이를 둘러싼 민간역량의 적절한 결합이 중요하다. 건강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양평농촌나드리」는 양평군 관내의 체험마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체험관광마을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조직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양평군(행정)에서도 이를 양평군 농촌체험관광발전을 위한 민간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사)양평농촌나드리」의 실무역량강화 노력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양평농촌나드리」에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행정과 협의는 물론이고 각 회원마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 3줄)

「(사)양평농촌나드리」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체험마을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체험마을 내에서의 농산물판매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성공적인 마을사례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개별마을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공동마케팅과 교육, 홍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사)양평농촌나드리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사)양평농촌나드리」는 체험관광마을 스스로 조직한 전국 최초의 시군단위 농촌체험관광마을네트워크조직로서 공동마케팅,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회원 마을간 협력증진, 민관거버넌스 구축, 도시민과 양평농촌체험마을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양평 농촌체험마을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첫째, 도시민(체험객)과 양평농촌체험마을 간의 중계(Hub)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도시민이 양평농촌체험마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공동 홍보·마케팅이다. 2013년 말 현재, 양평군 내에는 24개의 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각 마을이 자신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많은 홍보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는 계절별 주제를 정하고, 체험마을을 알리는 공동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체험마을 지도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행이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체험마을 지도자와 주민의식의 변화 없이 체험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실무역량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체험마을의 한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 농촌체험마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예: 폐교활용 관련서류준비, 마을사업계획수립, 휴양마을지정, 체험지도사, 비용정산 등등)는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행정과의 협력강화이다. 민관거버넌스의 민간주체로서 위상정립은 네트워크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마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2. 결과와 성과(13줄)

첫째, 양평군 농촌관광 네트워크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양평군의 농촌관광테마를 설정하고, 농촌관광을 위한 허브(hub)구축과 연계관광자원개발, 각 마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농촌관광연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둘째, 마을별 체험관광테마와 프로그램개발이다. 연합조직(「(사)양평농촌나드리」)의 관광테마를 바탕으로 각 마을별 자연, 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관광테마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한 테마관광루트개발 및 홍보를 전개하였다. 셋째, 마을주민의 체험마을 운영능력배양 및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마을별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자생력 함양교육과 지도자 양성교육, 해외선진지견학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혁신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넷째, 양평 체험관광마을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07년 9,384명이던 방문객은 2013년 47,098명으로 늘어났고, 총수입도 1억5천4백만원에서 10억 9천1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체험마을의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양평농촌체험사업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공동홍보와 체험객 모집활동 역시 체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마을주민 스스로의 노력없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체험마을 주민의 인식변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사)양평농촌나드리」에서는 마을방문교육, 지도자 집합교육, 국내외선진지견학 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공동체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너무 앞세우는 주민, 당장 눈앞의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사)양평농촌나드리」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첫째, 지역리더의 자각과 추진주체의 역량강화이다. 이른바 내발적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에 추진한 ‘포럼활동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포럼사업’이 민(民)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체험마을의 리더들이 결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조직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처음 16개 마을에서 21개 마을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인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방문객 수의 증가와 수취소득의 증가가 「(사)양평농촌나드리」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셋째, 행정과의 건강한 협력관계 구축이다. 「(사)양평농촌나드리」가 양평농촌관광발전을 위한 민간거버넌스의 한축으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행정에서 집행하던 체험마을지원사업비를 「(사)양평농촌나드리」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양평농촌나드리」에 대한 회원마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사)양평농촌나드리」의 교육·홍보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전체적으로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이지만,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내 마을의 체험객을 뺏기는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체험마을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불식되었고, 2010년을 경계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증가함으로써 「(사)양평농촌나드리」에 대한 체험마을의 신뢰와 믿음도 깊어졌고, 행정과의 관계도 과거의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관계로 발전되었다.

6. 관련 예산 (5줄)

현재 (사)양평농촌나드리는 양평군으로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사무국 운영경비는 1억원의 지원금(인건비 5천만원 + 홍보비·교육사업비·홈페이지유지보수비·도농교류사업비 1억원)과 협력사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양평군과 긴밀한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체험마을 관련 사업비를 대집행하기도 하며,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대표자 이름 : 권윤주

홈페이지 : www.ypnadri.com

3. 강원영월_김삿갓권역(상생과 협동)

제목: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뚝뚝 뚝친 김삿갓마을

“함께 교육을 받고 희망을 공유하던 5명의 이장들이 각 마을주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참여를 설득하면서 함께 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

- 주소: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 예밀1·2리, 주문 1·2리, 와석 1리 일원
- 인구: 846명
- 면적: 46,850,000㎡
- 관련 사업:

김삿갓 마을은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와석리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12년 김삿갓면이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포도를 대표 농산물로 하는 전형적인 강원도의 농촌마을이었던 영월 김삿갓 마을은 권역 내에 위치한 방랑시인 김삿갓묘역과 주거지가 관광명소로 알려지며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생활은 고령화, 농산물 개방 등으로 오히려 어려워져 갔다. 마을지도자 양성교육 및 다양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각 마을 리더들은 김삿갓을 주요 테마로 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소득기반의 다양화, 주민복지 향상 및 의식개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김삿갓 마을을 꿈꾸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과거 광산지역으로 한때 1개 마을 주민이 14,000명에 이를 만큼 번성하던 김삿갓면 일대는 1990년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폐광된 이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2008년 기준 권역 6개 마을 전체인구가 699명에 불과할 정도로 쇠락해 가고 있었다. 고향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든 노인들과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이었고 이들의 꿈은 다시 예전처럼 정이 넘치고 활기찬 마을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2007년 당시 농림부가 주관한 농촌마을 가꾸기 과정에 참여해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된 각 마을 이장 5명은 김삿갓 자원을 매개체로 한 농촌휴양, 체험 활성화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김삿갓 과거시험처럼 마을별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김삿갓 와인, 포도즙과 같은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활용한 가공상품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며 여러 마을이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거쳐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김삿갓마을은 마을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와 의식개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을 통해 양성된 20명의 리더가 함께 이끌어가는 경영위원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조직 집단지성

화의 우수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삿갓 과거시험 등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든 체험프로그램이 도시소비자 의견수렴단계를 거쳐 상품화 되는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대표상품의 발굴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었다.

1. 마을리더의 집단지성화 (본문 8줄)

‘독수리 5형제’, 처음 권역사업을 시작하고자 의기투합했던 5명의 이장을 마을에서는 이렇게 부르곤 했다. 소위 잘나가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스타급 리더가 마을을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김삿갓마을에는 특별한 스타가 없다. 주민들이 함께 끌어나가는 경영위원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함께 교육을 받고 희망을 공유하던 5명의 이장들이 각 마을주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참여를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일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고 구성원간의 갈등상황도 발생하였으나 공통의 목표를 위한 사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다양한 교육과 견학, 실무중심의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일어나며 현재의 경영위원회 체계가 자리잡게 되었다.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함께 토론하는 의사결정체계와 이를 통해 결정된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리더그룹의 집단지성이 김삿갓 마을의 큰 강점이 아닐까 한다

2. 한껏 옹크린 개구리 (본문 8줄)

권역사업은 2009년부터 5년간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은 자칭 7년차 권역이라 이야기 한다. 예비계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며 끌어왔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또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김삿갓마을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고자 노력해 기본계획 우수권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마을의 특산물인 탐푸르트 포도를 활용한 와인상품 개발을 위해 3년간 전문컨설팅을 진행해 2014년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체험운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쳐 마을별 체험담당자를 육성하였다. 대표체험상품 개발을 위해 체험담당자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 기획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4회에 걸쳐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등 자체운영을 위한 실무역량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약 3,000만원에 달하는 필요물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개구리가 보다 멀리 뛰기 위해 한껏 몸을 옹크리듯 김삿갓 마을도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3.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관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한 동반자적 관계형성 (본문 8줄)

김삿갓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월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삿갓면으로의 개명이었다. 김삿갓면은 원래 영월군 동남쪽에 있다 하여 하동면으로 불려왔으나 지난 2009년 주민들의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영월군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친후 즉각적인 타당성 검토 및 주민투표를 통해 김삿갓면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경이후 김삿갓면은 개명에 대한 이슈화로 다양한 매체와 유명 예능프로그램 등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김삿갓마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포도공원, 와석 쉼터 등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슬로시티사업 선정에 이어 김삿갓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마을과의 연계가능한 사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결론 3줄)

김삿갓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초창기 지도자들의 노력과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전반에 걸쳐 이들의 의견과 참여가 우선되는 운영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 김삿갓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김삿갓마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경영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김삿갓을 테마로 각 마을의 특성을 가미한 체험프로그램 코스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탐푸르트 포도를 활용한 와인을 생산하는 예밀와이너리와 포도즙 가공법인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김삿갓마을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체계화된 운영조직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수 리더 중심의 추진 위원회에서 권역영농조합법인을 거쳐 현재의 김삿갓 경영위원회는 법인에 준하는 조직 형태로 운영 전반을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마련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실제 김삿갓 마을은 회의진행의 우수사례로 알려져 견학요청이 쇄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탐푸르트 포도를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예밀와이너리를 조성하여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주민전문가를 양성해 2014년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의 비위생적인 포도즙 생산형태를 보완한 현대식 포도즙 가공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체험사업운영을 위해 마을별 체험운영 전담인력을 양성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김삿갓과거시험’, ‘동화마을 해피트래킹’ 등 각 마을의 특성을 활용한 특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2013년 약 4,000여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다. 체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물품들을 마을에서 직접 준비해 공동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보조인력 수요를 고려해 권역공동 보조인력을 선정하여 체험담당자 요청 시 지원하는 등 상호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2. 결과와 성과(13줄)

가장 큰 성과라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마을사업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둘씩 참여하던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참여와 교류의 즐거움을 배우며 7년이 지난 지금 25명의 경영위원회 위원들과 마을체험전담인력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초기 699명에서 2013년 현재 846명으로 147명의 인구가 늘어나며 점차 찾아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다소 느리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더불어 가꿔나가는 것이 모습이 가져온 성과가 아닐까 한다.

주민주도의 운영성과는 2013년 본격적인 체험사업을 시작한 김삿갓마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삿갓마을에 소속되어있는 6개마을은 각각의 마을특징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옛 탄광마을이던 모운동은 광부의길 트래킹을 운영하고 예밀리는 와인만들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특히 김삿갓 묘역과 주거지 등이 있는 와석리는 김삿갓마을의 대표프로그램인 김삿갓과거시험을 운영중인데 이 프로그램은 김삿갓이 과거를 보기위해 떠나는 여정을 모티브로 ‘잃어버린 노잣돈 찾기’와 ‘과거시험’ 등이 포함된 패키지형으로 체험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든 마을의 프로그램은 체험객의 선택에 따라 코스화가 가능하며 2013년 한해동안 약 4,0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김삿갓마을이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분인 반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김삿갓마을은 김삿갓유적지와 김삿갓계곡과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진 반면 주민들의 참여의지는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사업초기 5명의 이장들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보다 모두를 위한 사업을 꾸려가길 바래왔고 한명 한명 함께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립과 갈등의 시간들로 인해 조직이 흔들리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1년 경영위원회의 발족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육과 견학, 체험운영실습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소 부족한 개인역량을 보완하고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개선 과정을 거쳐 현재의 끈끈하고 단단한 주민조직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김삿갓마을을 꾸려가는 리더들의 집단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11년 대체사업 추진사례일 것이다. 2010년 말부터 계속된 구제역 여파로 당시 계획되어 있던 친환경한우축사의 불투명한 시장성과 축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효과를 고민하게 되었다. 권역경영위원회와 행정,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논의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현실적 대안마련을 통한 사업변경을 결정하게 되었고 주민 희망사업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경영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에 따라 포도즙가공시설과 주민 복지를 위한 노인건강쉼터 등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1단계 사업평가를 앞두고 사업변경을 추진할 경우 평가결과의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 김삿갓마을의 사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7년 5명의 마을이장이 참여한 부래미마을의 농촌마을 가꾸기 과정에서 오늘의 김삿갓마을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이듬해 기본계획수립 우수권역에 선정되면서 김삿갓마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직개편과 주요사업의 변경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단기적 성과는 얻을 수 없었지만 조금씩 내실을 기해나갔고 2011년 경영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현재의 조직구성과 소속 마을간 연계협력체계를 갖춰 마을을 꾸며가고 있다

6. 관련 예산 (5줄)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5년간 63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영월군 자체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받아 포도공원과 와석쉼터를 조성하였고,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을 통해 와석리에 5,000만원의 사업지원으로 김삿갓빵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2년 김삿갓면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슬로시티관광상품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라. 연락처

조직명 : 김삿갓권역경영위원회

대표자 이름 : 박순용

홈페이지 : www.kimsatgat.co.kr

4. 충북괴산_갈은권역 (상생과협동)

제목: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삼은 비학봉 마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은 앞으로 농업·농촌에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읍원리, 외서리, 갈론리 일원
- 인구 및 가구: 675명/330가구
- 면적: 3,287ha(농경지 362ha, 임야 2,657ha, 기타 268ha)
- 관련 사업:

2006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괴산군의 연계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비학봉 마을에서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비학봉 마을은 다른 농촌마을과 비슷하게 고령화 문제와 낮은 소득으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골마을에 불과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으며, 또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경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2006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생활환경정비, 공동소득기반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비학봉 마을은 1957년 괴산댐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오랑 마을과 산막이 마을을 연결시켜 주었던 옛길의 흔적을 더듬어 덧그림을 그리듯 산막이 옛길 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최근 산막이 옛길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으면서 2013년 기준 140만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주차비, 선박이용비, 숙박 및 식비 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에 대해 비학봉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비학봉 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훌륭한 리더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마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비학봉 마을 주민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마을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삼다

첫 번째 요인은 마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비학봉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 본 사업이 선정되면서 처음 목표였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추진위원들은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수권역으로 선정되면서 3억원의 상사업비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모여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던 중 사업초기 목표했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게 되었고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사업초기 목표로 했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다.

2.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하다.

두 번째 요인은 산막이 옛길이라는 지역의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비학봉 마을은 괴산댐 건설로 수몰된 산막이 옛길을 복원, 연리지부터 노루샘, 연화담, 망세루, 호랑이굴, 매바위 등 옛길 곳곳에 이야기를 복원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함은 물론 괴산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특화함으로써 도보 여행 트렌드를 살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무리한 소득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의 발전전략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 덕분에 산막이 옛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9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13년 142만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여 비학봉 마을 수익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비학봉 마을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3. 마을사업을 통해 자신감이라는 또 다른 자원을 발굴하다.

세 번째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괴산댐이 만들어짐으로써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길로만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통해 산막이 옛길을 복원,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길로써의 의미와 더불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줌으로써 그 동안 힘들게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애항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주인공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지역주민들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원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전파하고 싶다고 한다.

(결론 3줄)

비학봉 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이 속한 마을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과 장학금을 통해 농촌마을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다. 비학봉 마을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비학봉 마을은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경관개선과 각종 체험장 조성, 산막이 옛길 및 선착장 정비 등의 하드웨어 부분과 리더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비학봉 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산막이 옛길을 정비하여 괴산댐의 건설로 사오랑 마을과 산막이 마을을 연결시켜 주었던 옛길의 흔적을 더듬어 덧그림을 그리듯 산막이 옛길을 복원하는 것이다. 산막이 옛길을 복원하면서 숲을 활용한 자연생태관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009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14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농체험을 통한 도농교류를 위한 영농체험장과 지역특산물인 울깡이를 활용한 울깡이 체험장 조성,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한 울원저수지 수변개선 사업, 갈론구곡과 연계한 산촌체험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갈론 폐교 리모델링 사업, 권역 중심시설인 도농교류 센터 건립, 산막이 옛길 탐방객을 위한 소매점 운영, 현재 비학봉 마을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막이 옛길 유람선 운영을 위한 선착장 정비 등의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리더교육, 전문가초청교육, 친환경영농교육, 숲해설가 양성교육, 농촌지역개발인력육성, 선진지견학, 조정면허취득, 홍보마케팅, 인터넷 검색광고, 마을 소식지, 도농교류 이벤트,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2. 결과와 성과(13줄)

비학봉 마을의 대표적인 상품은 산막이 옛길이다. 2006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산막이 옛길 정비다. 1957년 괴산댐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오랑 마을과 산막이 마을을 연결시켜 주었던 옛길의 얽힌 스토리와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복원된 산막이 옛길은 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관광객이 먼저 알고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임시 개방했던 2009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10년 22만명, 2011년 88만명, 2012년 135만명, 2013년 14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목표를 160만명으로 잡았다. 이처럼 비학봉 마을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 내 숙박시설, 식당, 시장 등 그 동안 침체되어 왔던 지역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 100억~150억원 정도라고 한다.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비학봉 마을의 소득도 증가하였다. 비학봉 마을의 주 소득원은 산막이 옛길 유람선 비용과 방문객 주차비, 갈론산촌체험관 및 권역활성화센터의 사용료(숙박, 식사, 세미나실 등)이다. 2010년 12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1,189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 1인, 매표소 2명, 주차관리 2명, 선박 4명, 청소 3명, 경리 1명 등 마을 내 13명의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13명은 모두 정규직이며, 성수기인 봄과 가을에는 일용직을 포함해 40여명 정도의 일손이 더 필요할 정도로 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와 같이 비학봉 마을은 권역사업을 통해 비학봉 마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학봉 마을이 디딤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단위가 아닌 권역단위사업으로 생활권 및 영농권이 동일한 3~5개 마을을 묶어서 40~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및 영농권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4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한 비학봉 마을이라고 갈등이 없었겠는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라고 하신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비학봉 마을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비학봉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비학봉 마을은 산막이 옛길이라는 사업아이템을 통해 비학봉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코너에 비학봉 마을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비학봉 마을에서는 산막이 옛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식당 등 비학봉 마을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괴산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학봉 마을은 상생과 협동의 정신을 토대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농업·농촌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농업·농촌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본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괴산 비학봉 마을은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막이 옛길을 복원, 관광명소로 각광받으면서 14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사업 초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까지 다소 소홀했던 분야를 챙기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비학봉 마을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6. 관련 예산 (5줄)

2006년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괴산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비학봉 마을은 영농 및 올갱이체험장, 마을경관개선, 산막이 옛길정비, 갈론산촌체험관, 권역활성화센터, 소매점건립, 선착장 정비, 황포돛배 등 하드웨어 부분에 약 5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교육 및 견학,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약 6억원, 기타 12억 정도 사용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비학봉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고종은

홈페이지 : www.bbvill.com

5. 충남홍성_지역센터 마을활력소(상생과 협동)

제목: 마을과 지역일을 돕고 거드는 홍동 마을활력소

‘그저 주민과 마을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을활력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37-6(홍장남로 668)
- 인구: 3,943명(홍동면, 2012년 기준)
- 면적: 3,626.06ha(홍동면, 2012년 기준)
- 관련 사업: 마을기업(2010년 11월 안전행정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마을과 지역 일을 돕고 거드는 일’. 이것이 바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의 주요 역할이다.

지역발전은 단순 소득증대 사업, 기업 유치,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일궈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이 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는 주민과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기 위해 탄생한 것이 마을활력소이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오리농법(유기농), 대안교육,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단어 외에도 최근 홍동면을 대표하는 단어는 바로 ‘협동조합’이다. 인구 약 4,000명 정도의 면단위이지만 서른 개가 넘는 각종 협동조합이 있다. 이러한 조합과 단체, 조직간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적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활력소는 연대와 협력과 나눔으로 농촌공동체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역사회 협동조합과 조직들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자립하고 협동하는 마을만들기가 마을활력소의 목표이다.

마을활력소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그저 주민과 마을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을활력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나. 왜 이 사례가 우수한가?

일반적인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공무원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방자치단체주도의 전문가 운영형, 외부기관 위탁형, 순수 시민단체 운영형으로 나뉘지는데 마을활력소는 순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더디고 느리더라도 지역의 어려움을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하며, 지역이 요구하는 활동과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해가고 있다.

1. 우리마을 바로 알기, 마실이 학교로 소통하다.

‘마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대표적인 자원이 무엇인가요? 홍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마실이학교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마을 바로 알기 교육이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역사와 특징, 지역의 단체들과 자원에 대해 배우고 ‘지역과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그리고 흥동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하여 귀농귀촌 정착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을을 길으로만 알게 알기보다는 좀 더 깊게 이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실이 학교이다.

2. 돕고 거들어 새로운 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마을활력소는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터이다. 신규 조직과 작은 단체의 회계, 문서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사무·회의 공간 및 사무기기·물품 등을 지원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는 농민 3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프랑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흥동 또한 조합결성과 사업참여에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할머니 협동조합’이다. 이 할머니 협동조합 역시 마을활력소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마을발표회’와 ‘흥동거리축제’ 등을 공동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문자발송이나 이메일, 마실통신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3. 우리 손으로 희망의 싹을 만들어 가다.

마을활력소의 로고는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이다. 원은 마을, 테두리, 공동체, 화합, 순환을 의미하고, 4가지 색은 자연, 태양, 물, 땅을 의미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마을과 기관, 사람들이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농업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협동조합을 조직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마을에 하나뿐인 맥주집이 문을 닫자 마을 공동체를 묶어주었던 술집을 되살려보자는 의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동네마실방 뜰’이 새롭게 태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민들의 쉼터이던 이곳이 지금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는 창상공작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협동조합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역 내에서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을활력소 로고 또한 외부 브랜드회사에 맡기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공모한 작품 중 우수작품을 활용한 것이다.

(결론 3줄)

마을활력소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과 역할을 주민 스스로 조직화했고, 각 단체와 조직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수평 또는 하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창한 사업보다는 사무기기에서부터 사무공간 지원과 같은 실현가능한 사업에서부터 조직과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금의 활기찬 흥동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데에는 마을활력소의 공이 크다.

다. 마을활력소 활동 소개

마을활력소는 정보교류, 지역안내, 주민활동, 조직발굴, 공간·물품 대여, 조합과 조합, 지역과 지역간의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교류 지원은 지역, 단체, 주민간 정보 교류 지원 이외에도 월 2회 마실통신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안내 지원의 대표적인 활동은 마실이 학교이다.

그리고 열차표 예매에서부터 복사, 문서작성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조직발굴과 공간·물품 지원은 지역사업 및 협동조합을 발굴 지원하고 이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경영컨설팅, 사무공간·회의공간 제공, 사무기기 대여 등 조합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굴된 조합이나 기존의 조직들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 주요 활동(10줄 서술)

2013년 마을활력소의 대표 활동으로는 거리축제 지원과 우리마을발표회를 들 수 있다. 우리마을발표회는 흥동면의 지역 협동조합, 마을지원기관, 지역소모임, 교육단체 등 33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음해 계획을 발표하는 지역행사이다. 기존에는 협동조합, 학교 등 주제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다가 2013년부터는 밤밭도서관과 마을활력소가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각 단체들이 모여 한 해 성과를 나누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논의하며 함께 지역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잇”이라는 지역화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이자 없는 돈으로 지역 내에서 재화, 재능, 자금이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순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가맹점은 많지 않지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흥동면의 귀농귀촌 정착률은 높다. 귀농귀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귀농귀촌 후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이다. 물론 흥동면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만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실이학교를 운영하고, 기관·조직과 귀농귀촌인들의 연계를 위해 많이 힘써왔다. 거리축제는 원래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축제였는데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는 면 축제로 바뀌었고 축제 때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마을활력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다.

또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을기금을 적립해 신규 조직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립한 조직은 다시 마을기금을 적립해 다른 신규 조직이 자립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마을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선진지견학을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마을활력소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다. 아직은 사업초창기 단계이고 성과를 측정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흥성이 일찍부터 협동정신이 뿌리내린 곳이어서 가능했다는 겸손의 자세도 잊지 않았다.

3.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8줄)과 극복과정

현재 마을활력소 인력은 공동대표 2인과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시군에서 운영·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들은 일정한 급여가 아닌 활동비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마을활력소 재정자립 또한 어렵다. 일부 단체나 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으나 그 비용이 많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마을활력소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조합과 기관의 실무자 모임을 추진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많은 조합과 단체들의 일정조율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는 마을발표회로 대체하고 있다.(그 성과는 1. 주요활동에 이미 기술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을활력소가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중간과정 중에 인력 교체도 있어 아직까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지역발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획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일궈나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과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을 새롭게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 역량을 갖춘 조직이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조직이나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마을활력소 연혁과 사업추진 시기(5줄)

지금의 마을활력소 센터(사무실)는 지역과 함께하려는 문당권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상금으로 2012년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2010년부터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과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1년 임시사무실을 개소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실이 학교는 2011년부터 연간 2회씩 진행해 현재 6기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13년 거리축제와 마을발표회는 각각 11월, 12월에 개최되었다.

6. 관련 예산 (5줄)

2010년 마을기업(안전행정부)

2011년 마을기업(안전행정부)

2011년 전국 우수마을기업 선정(안정행정부), 2,000만원 인센티브

2012년 마을활력소 건물 준공(농림축산식품부),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인센티브

라. 연락처

조직명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대표자 이름 : 홍순명·주형로 공동대표

홈페이지 : <http://hongseongcb.net>

6. 전남완주_비비정마을(상생과협동)

제목: 음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비비정마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곳 그들의 인생이 재료가 되는 곳”

- 주소: 전라남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68(비비정길 26)
- 인구: 45가구 80명
- 면적: 누락 계재
- 관련 사업: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비비정마을은 마을 안에 있는 비비정(飛飛亭)이라는 정자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비비정에서 내려다 보는 풍광은 완산8경에 꼽히고 있다. 하지만 마을은 자체가 언덕이어서 큰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경강 주변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내다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공장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가까운 공장이나 농장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고, 여느 마을도 그렇듯 주민들은 고령화 되어 80% 이상이 70대로 노인들이 가까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비비정마을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과 자원, 돈과 가치가 순환하고, 그 순환 과정에서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고, 일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로 사단법인 비비정이 만들어졌다. 모든 마을주민들이 정회원인 사단법인 비비정은 사업 책임자이자 실무진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다. 비비정 레스토랑은 사단법인 비비정에서 운영되는 핵심사업으로 마중물이 되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체사업들이 켜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떠나야하는 마을이 아닌 머무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멀지 않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라고 있다.

나. 왜 비비정 사업이 지역공동체 상생과 협동 우수사례로 소개된다고 생각하나?

수수한 반찬들과 소박한 찌개가 한데 모여 만들어 내는 시골밥상의 조화는 모두의 기억 속에 하나쯤 간직하고 있다. 이 시골밥상을 차려내는 비비정레스토랑의 운영과정 또한 조화롭다. 마을주민이 재배하는 채소가 주재료가 되고, 한 마을 어머니들의 손맛으로 만들어지며, 세 대를 아우르는 공존이 함께하는 레스토랑 현장이 한데 버무려져 평범하지만 화려한 시골밥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1. 할머니 셰프와 마을 떡거리, 이것이 마을자원이다.

비비정 레스토랑은 마을 주민 80% 이상을 차지하는 70대 어머니들이 가장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는 요리에서 출발한 지역맞춤사업이다. 농사와 요리가 본업인 지역주민들에게 할머니 셰프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도 중요하고 위치나 건물, 조명 등도 중요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는데, 비비정 레스토랑에서는 '로컬푸드를 사용한 마을경제활성화 및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전식으로 호박을 갈아 만든 호박죽과 셀러드, 녹두전이 나온다. 이후 14~16가지의 찬과 함께 탕이 나오고, 후식으로 매실차가 나오는 기본식단에 사용되는 모든 먹거리는 마을에서 생산되어 마을 어머니들인 할머니 셰프에 의해 그날그날 준비된다.

2. 음식문화창업팀, 40년 부엌살림에도 배움을 더하다.

부엌에서 산 세월이 몇 년이고 자기 손으로 몇 번의 밥상을 차렸을지 셀 수조차 없는 이들이 “더 배울게 없다”라고 말해도 전혀 들림이 없지만 가정용 음식과 식당용 음식이 다르고, 시대를 따라 흐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면 알고 있는 것조차 다시 배움으로 깊이를 익혀야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레스토랑을 준비해야하는데, 당연히 우리들이 먼저 음식을 배우고, 할 줄 알고, 연구해야죠. 그냥 그러려니 넘겼던 것들을 확실히 되짚어 알고, 레스토랑의 메뉴도 정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배우고 덮어 놓으면 잊어버려서 언제 실력 발휘 한 번 제대로 해야지요.”

레시피 개발, 데코레이션, 서비스, 경영을 공부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정식 맛집을 찾으며 연구하였고, 마을로 돌아와 마을 고유자원으로 차별화된 상차림 메뉴를 개발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에 참여하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축제마다 참여하는 사람들 즉 타겟을 분석하고 음식메뉴를 결정하며, 수량과 가격책정. 그리고 역할분담과 발행한 수익의 배분까지 운영방법과 경영노하우를 현장에서 습득하는 준비과정을 거친 것이다.

3. 도시 브랜드 기획자를 프로포즈하다.

2009년 부터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총괄PM을 맡았었고, 현재는 비비정마을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소영식 사무국장은 비비정마을사업 가장 중심에서 살아왔다. 사무국장은 비비정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될 즈음 레스토랑 대표로부터 넌지시 “지금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마을로부터 스카웃 제의인 것이다. 좋은 음식이 준비되고, 선보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마련되고, 함께 음식을 만들 어머니들이 조직되었다고 사업이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했던 총괄PM이 책임이었고 마을사업에서 어려움에 당면하는 마케팅 영역에서 역할하고 있다. 길지 않은 인연으로 맺어졌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이를 타지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늘 주민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그는 마을주민은 물론 귀촌자들에게도 기둥같은 존재이다.

(결론)

손이 모이면 박수소리도 커진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서툴 수밖에 없는 시작하는 상황에도 맞잡고 박수소리에 손을 보태어온 마을 어머니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비비정레스토랑이다. 마음을 모은 어머니들을 빛날 수 있게 하는 음식을 자원으로, 지속적인 배움의 갈망이 보태어져 그윽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 비비정마을 활동 소개

비비정마을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하는 일, 음식을 주제로 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 비비정이 설립되었다. 비비정레스토랑은 수익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살림을 키워나가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처음에는 마실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가호호 어머니들이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와 시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가장 잘 하는 음식에 대해 자랑하고 서로의 칭찬으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사업을 위한 자원조사가 되었다. 음식이라는 아이템이 정해지고부터 부지런히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였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정식 맛집을 탐방하고 필요한 이론교육도 미루지 않았다. 2010년부터는 지역축제에 음식부스 운영으로 참여하여 실전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횟수가 그 해 12번에 달하였고, 2012년부터는 비비정레스토랑이 입주할 건물 건립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 빈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일정한 공간과 상시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비비정레스토랑이 문을 연 것이다. 하루 200명이 방문하고, 8명의 상근 인력과 아르바이트 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비비정 레스토랑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번만큼 나눠가지며,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만들어 마을살림을 부유하게 하는 원칙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농사짓던 할머니들이 레스토랑 주방에서 손님들의 입맛을 책임지는 셰프로서 빛나는 삶을 다시 얻게 되었다. 할머니들 뿐만이 아니다. 70대 할머니 셰프가 만든 음식을 40대 주부들이 상차림, 20대 청년들이 서비스를 한다. 세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수익사업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 8명과 파트타임 근무로 5명이 일하고 있고, 일한만큼 노동력에 비례하여 120만원에서 최고 260만원 까지 인건비가 주어진다. 경제적 이익은 8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의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받기 때문에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레스토랑의 수익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된다. 첫 달에 50만원을 내 놓았던 마을 기금을 이제는 매월 100만원 씩 적립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비비정 마을기금은 마을 살림에 쓰이는 것이 여느 마을과 같지만 사람 살림에 적극적으로 투자된다. 마을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가 발생시키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현재 마을에는 4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고, 6명의 귀촌자가 마을에 터를 잡았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마을은 몇 년 안 되는 단기간에 형성된 곳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며,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외부 자원의 접촉에는 좋아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공동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단체들과 주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거리를 좁힘으로서 화합과 협력을 통한 성장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영식 사무장은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을 주민 한명 한명에게 고른 기회를 주려 노력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을 세우고 이사회 구성, 현재 사업체적인 모든 부분의 권리를 주민공동체에 두고 있다고 한다.

4. 공동체 사업 노하우 중 꼭 들려주고 싶은 점

공동체사업은 이야기하는 것만큼 진행과정이 녹록하지 않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이라는 공간속에서 충분히 열심히 최고의 삶을 살아온 주인공들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이 주인공 개개인이 가장 자신있게 잘하는 일을 통하여 다시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의 있는 것을 재발견하여 발전시킨 것이 비비정레스토랑 성공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음식에 주민들의 삶에 이야기를 담음으로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발걸음을 잇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중요한 성과가 단방성에 그치지 않고 축진제가 되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동체사업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임을 이야기 하고 싶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비비정레스토랑사업은 2009년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2009년은 마을위원회와 행정, 전문컨설턴트 구성의 추진단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기간이었으므로 2010부터 레스토랑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레스토랑이 오픈한 2012년 12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100석 규모 레스토랑에서 하루 200명의 입맛을 책임지는 할머니 셰프로 활동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확보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2년까지 4년간 28억 원이 지원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농가레스토랑 비비정

대표자 이름 : 정도순

홈페이지 : <http://www.bibijeongin.com>

7. 경남합천_개터마을 (상생과협동)

제목: 공동사업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일구어가는 개터마을

경남합천 가야 개터마을,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

“무소득, 건강, 외로움에 시달리는 농촌 초고령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87

• 인 구 : 60명, 30가구

• 면 적 : 800km²

• 관련 사업: (2줄)

농촌 노인과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두레농장 시범조성은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건강한 삶 도모, 마을공동체 회복 등 소외되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4줄)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그렇듯 두레농장에 참여하기 전 개터마을의 노인들도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소일거리가 없어 경로당에 모여 화투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두레농장에 참여하면서 마을 내 소일거리가 생겨났고 작은 금액이지만 농가소득 창출로 마을 곳곳에서 지속적인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합천군에서 2012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 두레농장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마을 노인 복지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내 자리매김하고 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8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은 점점 낙후되고 고령화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과 귀농인이 상생·협력하는 두레농장 조성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신규 일자리 제공과 마을공동체 회복 등 생산적 복지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레농장은 예로부터 이어온 두레나 품앗이 형태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귀농인과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초 각 마을별로 마을대표, 노인회장, 귀농인을 중심의 두레농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2011년 말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을 신청해 희망그린 두레마을 조성 사업을 유지했다. 이로서 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추진위원회를 제외한 마을주민은 바쁜 농사일로 마을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3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낙후된 농촌에 주민 스스로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회생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소득 유지 및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토착민과 귀농인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 강화 및 침체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증진한 점이다.

1. 복지와 일자리, 소득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본문 9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의 첫 번째 우수요인은 농촌마을 주민, 노인, 귀농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을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과소화 마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리적 환경 저하와 지역소득여건 악화 등의 복합적인 지역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듯 합천군 내 농촌마을도 지역사회의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1년 3월 합천군 내 마을대표, 노인회장, 귀농인을 중심

으로 한 두레농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3개 마을이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다. 두레농장 추진위원회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을공동사업 운영 선진사례 등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고 그 이후 지역주민들은 희망그린 두레농장 사업이 우리마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두레농장 사업은 마을주민과 농촌노인, 귀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마을 내 소득 및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일에서 희망을 찾다. (본문 8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의 두 번째 우수요인은 농촌노인 경험과 능력이 맞는 연중 운영 가능한 일거리를 발굴한 점이다. 가야면 개터마을의 두레농장은 마을전체 30가구 60여명 중 30가구 40여명이 두레농장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령농가이다. 이 마을 농업경영인 한순수씨는 2012년까지 마을 이장을 맡았었고 2013년부터 개터두레 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아 의욕을 불 태고 있다. 귀농인 3가구 중 1가구가 두레농장 전담 관리자로 실무를 맡아 활발한 유통·유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퇴비내기, 경운, 비닐멀칭 등의 농작업은 비교적 젊은 층이 담당하고, 감자심기, 녹두순 수거, 사과 말랭이 말리기, 숙주나물 소포장 등의 작업은 마을 어르신들이 실력을 발휘한다. 특히 숙주나물 생산용 우량녹두를 가리는 작업엔 80대 노인들도 마을회관에 앉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연중 운영 가능한 양계장을 건립하여 약1,500수의 닭이 입식되어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찾는 일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다. (본문 8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의 세 번째 우수요인은 품질 좋은 생산물의 공급과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한 점이다. 개터마을 두레농장은 기존 마을 농사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수익은 불안정했다. 업체가 일반적으로 주도하는 시장가격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것은 어려웠다. 유통과 판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곧 부딪혔다. 평생 농사를 짓던 농부에게 가공을 넘어 유통과 마케팅은 그야말로 난관 중의 난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초기 개터마을 두레농장은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했다. 이에 두레마을 개터농장의 한순수 대표는 농업관련 세미나, 교육, 선진 사례지 답사 등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유통·판매에 조금씩 노하우가 쌓일 무렵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읽고 바로 생산으로 연결했다. 또한 수익의 일부는 마을공동기금 형식으로 조성하여 마을행사와 마을발전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결론 3줄)

희망그린 두레농장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농촌노인과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으로 마을 구성원 간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마을공동생산, 공동식생활 등이 실현됨으로서 지역 내 농가소득 및 건강 증진 등의 마을발전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다. 희망그린 두레농장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합천군은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을 위한 시범마을로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개터마을 외 2개 마을을 지정하고 각 마을별 두레농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공동작업장, 양계장 등) 설치 및 소득 작물에 대한 작목 경영 지원 등을 2012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2년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개터마을은 두레농장 운영관리 측면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10줄 서술)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개터마을은 행정·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작물 재배면적 등을 마을 실정에 맞게 사업량을 보완·수정하였다. 행정의 두레농장 조성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마을주민, 노인, 귀농인 등 30가구 40여명이 참여하는 「개터두레농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추진위원회는 두레농장 전담관리자로 마을 내 귀농인을 채용하고 첫 사업으로 마을 소득작물 재배와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작업장 1개소(101m²)와 녹두재배지(8ha)」 등

의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녹두재배지에서 생산된 녹두나물은 간녹두, 녹두가루, 빈대떡가루 등으로 가공된다. 또한 무항생제 유정란 생산을 위해 「양계장 2동(301㎡, 2,000수)」 조성했다. 처음에는 양계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유정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을인근 양계농장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내 농산물은 예전에 시장 노점에서 판매했었는데 두레농장 조성이후 전량 영농조합에서 구매하여 마을 내 소작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두레농장 사업에 의해 조성 운영되는 녹두재배지와 양계장의 생산물과 마을에서 구매한 농산물은 마을 공동작업장에 집하되고 소포장되어 숙주·녹두가공품, 사과말랭이, 무항생제 유정란 등의 상품으로 지역 생협으로 판매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13줄)

2013년 3월 담당행정, 두레농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사업 평가회”가 열렸으며 현장방문과 토론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회에서 두레농장은 3고(무소득, 건강, 외로움)에 시달리는 농촌 초고령 노인의 소득·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적인 소득기반시설 조성과 귀농인, 농촌생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령의 노인이 힘을 모아 농촌의 활력을 도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렇듯 개터마을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농업에는 전문가인 마을 어르신들은 귀농인들에게 농사기술을 전수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인들은 두레농장의 생산품이 유통, 홍보 활동 등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두레농장을 통해 노인들에게 생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새롭게 정착한 귀농인은 마을조력자로 활동하며 농업과 지역을 배울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귀농·귀촌 활성화와도 연계하여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두레농장 조성을 통한 마을 공동 생산 및 공동 식생활은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 유대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100% 생협에 유통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농조합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와 학교 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개터마을 두레농장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색깔있는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백화점식 사업 보다는 중추적인 사업품목 발굴과 상품화로 선택과 집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8줄)

사업초기 개터마을 주민들은 두레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사업 설명과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설득할 수 있었고 마을전체 30가구 60여명 중 40여명이 두레농장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보조금에 의해 소득기반시설(공동작업장, 공동농장, 양계장 등)이 마을 곳곳에 조성되었지만, 시설운영비가 없어서 34명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34구좌 640만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두레농장 시설(공동가공장, 양계장, 공동농장) 조성 이후 운영비가 없어 34인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출자(34구좌 640만원) 하여 “개터두레 농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경험부족으로 공동 생산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영농조합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단골고객 유통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물 가공·유통·상품화 기술 확보와 농장규모 확대를 위해 선진지 견학과 및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가야 개터마을의 두레농장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 활력 저하 현상에 대응하여 마을주민과 농촌노인, 귀농인이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침체 및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 주체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농촌노인의 오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귀농·귀촌인의 활동력을 융합하여 농장경영에 효율성을 더하고 농촌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형 일거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농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같은 일련의 농업생산/판매 과정을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련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두레

농장이 자생적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품의 판매 수익의 일부는 마을공동기금 형식으로 조성하여 마을행사와 마을발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두레농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이렇듯 개터마을 희망그린 두레농장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귀농·귀촌인구 지역 내 비 적응 문제들을 두 계층간의 융합과 소통을 통해 공동작업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5줄)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합천군 농촌지역의 생산적인 복지시책이다. 농촌 어른들은 평생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 일손을 놓는 순간 급격히 쇠락해진다. 또한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농촌의 부모를 보살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일자리, 건강을 보장하는 두레농장 조성사업이 기획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개터마을 외 2개 마을을 지정하고 두레농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소득 작물에 대한 작목 경영 지원 등을 2012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2년간 추진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6. 관련 예산 (5줄)

2011년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합천군 희망그린 두레농장 조성사업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을 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중 가야 개터농장의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동작업장 1개소, 양계장 2개소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소득작물로 녹두나물 재배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종자종묘 구입, 퇴비 구입, 포장재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이기에 유일무이하게 두레농장사업은 자부담이 없다.

라. 연락처

조직명 : 개터두레 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한순수

홈페이지 : <http://gaeteo.tistory.com/>

8. 경북상주_봉강공동체 (상생과협동)

제목: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여성농민들 '상주봉강공동체'

"16명의 회원들 끼리 마음 맞추는 일, 소비자와 소통하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여성농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활동입니다. 그것의 중심에 농업이 있습니다."

- 주소: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1033
- 인구: 조직 생산자 17명
- 면적: 7.50km
- 관련 사업: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언니네텃밭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생산지로서 같은 해 7월부터 봉강공동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러미사업, 목요 여성농민장터, 소비자 체험, 토종씨앗 지키기, 생태농업 확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봉강공동체는 농민과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한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은 투쟁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농업생산방식의 변화 - 지속가능한 농업 - 유통구조의 변화를 화두로 언니네 텃밭 사업을 하게 되었다.

또한 봉강공동체는 이미 20여년 간의 여성농민회 활동 경험과 유기농업기반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언니네 텃밭사업의 생산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서론을 조금 줄여주세요)

농업도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지어야 생산비라도 건질지 늘 긴장 속에서 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100년 후에도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이, 농민이 남아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속에서 농민이 자신의 가족이 먹기 위해 늘 식탁에 올리는 식재료를 도시 소비자와 나누는 일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 텃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는 가족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여성농민의 정성으로 재배되는 것이다. '그런 먹을거리를 도시 소비자와 나눈다면 도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가 보내져서 좋고 생산자에게는 자신들이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제공되어서 좋고, 나아가 이런 먹을거리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꾸러미사업의 출발이고 목표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봉강공동체는 꾸러미사업으로 알려졌다. 최근 많은 마을들에서 꾸러미사업을 하고자 준비 혹은 시작하고 있지만 그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꾸러미사업을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강공동체는 달랐다. 봉강공동체의 성공요인은 사람과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1. 김정열 + 지역의 힘

(본문 8줄)

김정열씨는 공식적으로 봉강공동체의 총무이다. 동시에 언니네 텃밭사업에서는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김정열씨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꾸러미사업이 갖는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고 지켜야 하는 가치들을 공동체회원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이 갖는 힘에 있다.

김정열씨는 꿈 많은 처녀시절에 상주에 귀농했다. 농민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귀농이라는 꿈을 이뤘고 지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에서 살고 있다. 그가 귀농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여성농민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봉강리에서 90년대 여성농민회를 조직하고, 20년 이상 활발히 활동했다. 99년에는 카톨릭농민회 분회도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주에서도 가장먼저 유기농업을 시작한 것이 봉강리였다. 이러한 봉강리라는 지역이 갖는 힘이 언니네 텃밭사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봉강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많은 지역에서 꾸러미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금전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봉강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확연히 다르다. 첫째, 식량주권운동이다. 꾸러미를 통한 도시소비자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다. 아직도 농업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생산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꾸러미사업은 여성농업인이기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체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공동체 복원이다. 꾸러미사업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농가에서 꾸러미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가소득 증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다. 아름다운 세상은 여성농업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 여성농민회 활동, 지역 먹거리 활동,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러미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결론 3줄)

봉강공동체는 최근 농업분야에 화두가 되고 있는 6차산업화 사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봉강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봉강공동체는 그 형식이란 “그릇”에 “관계”를 내용으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지역에서 꿈꾸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다. 봉강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봉강공동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언니네 텃밭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였지만 20여 년 전부터 봉강리에는 여성농민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지속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봉강공동체는 관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한다. 그 시작이 꾸러미사업이다. 꾸러미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의 제철농산물로 관계맺기를 통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다. 상주 봉강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하게 되어 좋고, 생산자는 자

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알아주고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에 좋다.

이런 관계에 더해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해 도시민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진짜 믿을 수 있는지를 생산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보내지는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과 교류하면서 먹을거리에서 시작한 교류가 농촌의 삶에 대한 교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꾸러미사업에서 빠져있는 상주 지역주민과의 관계맺기를 위해 목요농민장터 운영하고 있고,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위한 생태농업 확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봉강공동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게 된 성과로는 첫째, 생산자들에게 농업의 주체세력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둘째, 내가 생산한 농산물로써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 셋째, 꾸러미를 받는 소비자들이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넷째,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땅을 살리기 위해 생태적인 농업을 배우고 실천한다. 다섯째,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니 마을이 활기차다. 여섯째, 꾸러미와 직거래장터 등에 농산물을 판매하니 경제적으로 소득이 향상 되었다. 일곱째, 언니네 텃밭 활동을 하기 전에는 주로 남편이 하지는 대로 하던 농사였는데 이제는 무슨 작목을 어디에 심을지, 농사짓는 방법은 어떻게 할지 여성농민 생산자들이 결정한다. 여덟째, 매주 꾸러미회의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아홉째, 기부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먹을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배운다. 열째, 농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는 법을 배운다.

이상과 같은 열 가지의 성과는 상주여성농민회가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이 꾸러미사업을 통해 만개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성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세상과 다가서려는 노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봉강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봉강공동체는 지금 완결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씨앗을 틔웠을 뿐이다. 앞으로 또 다른 씨앗들이 꽃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노력을 다하려 하는 것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꾸러미사업을 진행하면서 초창기에는 소비자가 적어 노력에 비해 소득이 높지 않아 힘들었다. 힘들 때 마다 봉강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되뇌이고, 생산자끼리의 모이는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14명의 회원이 매주 1회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 모였지만 실제로 나가는 꾸러미는 30여 꾸러미였기 때문에 소비자에 비해 생산자가 많았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보면 생산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봉강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들의 정성을 최대 한 기울여 사업을 했고, 2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한편, 소비자가 많아지면 생산자들이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금도 소비량에 맞춰 생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지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품목을 선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꾸러미 물품에 간단한 가공품들을 개발하여 넣었으나 식품위생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 자식들이 먹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식품위생법이라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첫째, 웃으면서 일한다는 점이다. 봉강공동체가 꾸러미를 보내는 날 작업장에 가보면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보낼 물건을 들고 작업장으로 모인다. 작업장에 들어서면서 웃는 얼굴로 시작해서 작업이 다 끝나고 하루 일과를 정

리하는 순간까지 웃으면서 진행된다.

둘째, 농가소득증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봉강공동체의 시작이 농가소득 증대였다면 돈이 되지 않던 초창기 2년의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봉강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념과 노력으로 지금의 성공기가 있는 것이다.

셋째, 욕심이 없다. 봉강공동체의 소비자는 2013년 8월 기준 280여 소비자가가 있고, 매주 나가는 꾸러미가 약 210개 정도 된다. 이제 제법 참여하는 생산자의 소득도 높아졌다. 하지만 꾸러미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정도의 규모가 자신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넷째, 지속적인 노력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참여가 늘었으면 좋겠다. 생산자가 주는 그대로의 꾸러미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농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부꾸러미를 늘리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홍보하는 일, 여성농업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봉강공동체의 꾸러미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꾸러미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과의 교류활동을 시작했고, 지역농업에 관심을 가지며 2012년 상주시 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는 목요 농민장터에 봉강공동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최초의 시점은 2013년 8월 이다.

6. 관련 예산 (5줄)

처음 꾸러미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 없었다. 우리가 먹기 위해 심던 것을 꾸러미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2달 전부터 생산량을 조금 늘려 시작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2012년 3월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지금의 작업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4년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꾸러미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봉강공동체

대표자 이름 : 황재순

홈페이지 : <http://www.sistersgarden.org/> (언니네 텃밭 홈페이지)

9. 전남영광_여민동락 (상생과협동)

제목: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거들고 주선하는 여민동락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는 여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고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놓아서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한 것”

- 주소 : 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713-7
- 인구 : 1,976명(남 948명, 여 1,028명)
- 면적 : 44.76km²(경지면적 12.2km²)
- 관련 사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학창시절 자립과 자치, 상생과 협동의 지역사회를 꿈꾸었던 세 부부가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소박하게 자신들의 꿈을 실천해 보고자 전남 영광군 묘량면으로 귀농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맹자에서 유래한 ‘여민동락’의 정식으로 형식적·사업적 관계를 넘어 일터공동체 더 나아가 생활공동체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꿈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인 농촌복지단체이다. 기존의 관행적 복지체계를 뛰어넘어 주민주도의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거동불편 어르신에게는 돌봄의 복지를,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휴경지를 개간하거나, 가공 공장, 마을 유통센터 등의 건립으로 자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마을기업들을 만들어 자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나눔과 협동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복지와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농촌주민들의 진정한 복지와 인권, 농촌공동체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여민동락은 관행과 편리만을 따르는 메마른 복지가 아닌 복지와 교육, 경제와 문화의 4대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를 접근하여 노인복지와 농촌복지, 나아가 농촌공동체를 강화하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꾸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여민동락공동체는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이 무엇인지,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동체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실천이라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도시 젊은이들의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여, 현재 11명의 젊은 활동가가 여민동락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농촌과 도시, 노인과 청년의 상생과 협력의 모델 제시

여민동락공동체는 함께 어울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30대 젊은 세 부부의 보듬에서

출발했다. 이들 세 부부는 도시로만 향하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도시사람, 특히 도시 청년들에게도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2012년 1월 현재-공동체 가족 16명). 그러한 그들의 노력으로 여민동락공동체를 기반으로 요량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이 늘어 2012년 1월 현재 16명으로 공동체 식구가 늘었다. 이들은 도시생활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농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농 직거래, 꾸러미, 할매손 모시송편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과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내발적 발전, 지역자원과 주민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그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정착 초기 활동의 핵심이었다.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노인복지였다. 여민동락공동체는 한 푼의 국고지원 없이 전체 직원들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 마련한 순수 자비 출연금과 지인들의 후원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립적 농촌복지모델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8시면 지역 20여명의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역 젊은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지센터에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 체조, 그림 그리기 등의 취미 활동과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점심과 간식, 저녁을 제공하고, 저녁에 다시 각자의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3. 민관거버넌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순수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의 과제를 민과 관이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민관의 협력 및 마을주민들의 협동과 우애로 이루어지는 ‘품앗이학교’를 운영하여,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마을복지센터로, 임원진들에게는 마을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치조직으로, 마을의 살림을 책임지고 경제구조를 탄탄히 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품앗이 학교는 지역공동체 복지모델의 중심에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리더와 행정은 일방적으로 앞서거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다. 여민동락공동체 활동 소개

여민동락공동체는 1년여에 걸친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지역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활동을 추진하였다.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점차 지역경제, 교육, 문화 등 지역문제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 중요한 활동

여민동락공동체의 주요활동은 크게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네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면단위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방문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복지사업으로 품앗이학교, 주말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으로는 지역에 들어가는 휴경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협동농장을 조성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매칭한 할매손 송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읍내까지 나가야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면 소재지에 동락

점빵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도농직거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오히려 학생 수를 3배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초청강좌와 작은 책방 운영 등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시민을 초청한 김장축제, 협동과 나눔, 배려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나눔축제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준비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민동락공동체를 기반으로 많은 도시 지역 청년들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10여명의 청년들이 여민동락공동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주민 구성원별 요구와 필요를 사업과 연계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또는 고령자에게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돌봄서비스, 공동급식 등을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할매손 모시송편과 공동텃밭 동락원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장년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고, 도시의 청장년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교위기에 몰리 요량중앙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인근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희망의 학교로 탈바꿈하였다.

행정주도의 보조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고, 행정은 공동체에 필요한 기능과 자원을 지원하는 상호 보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려고 여민동락공동체는 노력했다. 행정에 기대어 수동적인 주민이 아니라 행정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농촌공동체 활성화의 관건은 사람이기에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는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민동락공동체 역시 마을리더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으며, 동시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지역 젊은 정주민구를 유입시켜 지역의 인적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여민동락공동체는 복지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마을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사업이 일부 마을에 편중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되었다. 공동체는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 제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연소재지가 아닌 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할매손 모시송편’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사업이 지역 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배려하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여민동락은 애초부터 “연대와 협동”, “자치와 자립”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경쟁과 효율’같은 시장지향적인 가치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고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놓아서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 여민동락공동체이다.

농촌마을을 갈수록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노인문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녹록

치 않아 보인다. 지역복지, 지역 활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독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과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여민동락공동체의 끊임없는 토론의 결과이었다. 지역의 여러 자원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거들고 주선하는 일, 그것이 지역 활동의 근간이라고 여민동락은 믿고 실천하고 있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애초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사업을 토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령화율 40%에 육박하는 농촌마을, 지속되는 인구감소 등 더 이상 공동화되는 농촌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에 맞게 주민들이 어울려 함께 즐거운 일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온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여민동락공동체는 2007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세부부의 귀농에서 시작된다. 1년여에 걸친 지역조사와 주민수요 파악의 시간을 거쳐 2008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2009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5년여 만에 여민동락공동체는 농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 각지의 주목을 받고 있다.

6. 관련 예산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의 자원을 기초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5천만원(자부담 25%)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후 2012년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자부담과 역량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자 이름 : 강위원

홈페이지 : <http://ymdr.net>

10. 전남완도_느린섬여행학교

제목: 교육을 통해 성장한 공동체의 사회적기업: 느린섬 여행학교

“마을 단위 공동체, 학습동아리, 직능단체와 함께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다보니 부수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영향이 주변의 공동체까지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다양한 공동체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주민주도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전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 인구 : 1,234세대 / 2,332명(남1,105, 여1,227)
- 면적 : 42.7km²
- 관련 사업 :

청산도는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었고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3년까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과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4년 창조지역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는 아름다운 풍경, 섬 특유의 전통문화,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섬이다. 청산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고유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주민들은 생태해설가, 슬로푸드 요리사, 조계공예가로 성장했다. 주민들은 서로의 재능을 모아 청산도를 알리기에 나섰고 이를 위한 거점과 주민중심의 공동체 조직이 필요했다. 따라서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느린섬 여행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느림의 미학을 전파하는 섬으로 유명하다.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느리지만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심지로서 느린섬 여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대외적으로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며, 대내적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한 수익의 재분배,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느린섬 여행학교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지역의 다른 공동체와 상생하고 주민들과 협동하여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청산도를 만들고자 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느린섬 여행학교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 사업의 주체가 될 주민들 개인이 가진 재능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사업 역량을 다지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성장을 위해 유희자원을 활용한 가치 재창조사업을 진행하며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점이다.

1. 배우는 즐거움으로 성장한 주민공동체

슬로시티 청산도는 느리게 살기를 통한 주민 행복운동을 추구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기타를 잡을지도 몰랐던 주민들이 축하공연 무대에 서는 밴드가 되었고, 소소한 취미생활이었던 조계공예가 기념품과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청산도의 고유음식은 어머님들의 손을 거쳐 슬로푸드로 복원되었고, 주민들이 이야기꾼이 되어 내 고향 청산도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규모 동아리를 형성하였고 함께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관광 사업을 진행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는 완도군으로부터 ‘느린섬 여행학교’를 위탁운영 받아 주민주도의 공동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섬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는 주민공동체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지역공동체의 균형성장을 위한 유희자원 재활용

‘느린섬 여행학교’는 2009년 폐교된 청산중동분교를 리모델링하여 개교하였다.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닌 유희시설자원을 재활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청항 쪽으로 치우친 방문객들의 걸음을 섬 중심부까지 끌어들이 또다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방문객의 동선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조성되어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슬로시티 청산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재창조하였다. 섬 전체에 고르게 조성되어 있는 청산도 슬로길을 활용한 이벤트, 슬로푸드 체험관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그 결과 ‘느린섬 여행학교’는 청산도 관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전체의 균형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3. 작은 기관들의 연대와 행정의 협력

‘느린섬 여행학교’는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 7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 이전에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아 슬로푸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음시설만으로는 고용 인력에 대한 고정임금 지급과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불가능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완도군과 청산면의 행정관계자와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뭉쳤다. 그리고 수익모델의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해결책으로 선택했다. 완도군에서는 순수 군비 조성을 통해 세미나실, 편의시설을 확충 등의 적극 지원을 하였고, 영농조합법인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느린섬 여행학교’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으며 지금은 온전히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산도는 풍경 자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주민들의 일상이 방문객에게 웃음과 행복이 되는 섬이다. 주민교육

<2014 농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발간>

을 통해 청산도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겼고 함께 모여 소통과 상생의 길을 여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주도하여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활성화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다.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 느린섬 여행학교 활동 소개

2011년 1월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고 7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4월부터 느린섬 여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침체되어있던 느림카페와 조개공예 판매장을 활성화시켜 지역 내 상생과 협동을 통한 소득 재분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청산도의 문화와 자원을 발굴, 청산도의 가치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 중요한 활동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은 완도군으로부터 느린섬 여행학교를 위탁운영 받아 2012년 4월부터 숙박과 슬로푸드를 제공하는 복합체험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여행의 목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종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숙박·식음시설의 연계를 통한 여행상품 제공으로 6차산업화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정된 일자리창출은 물론 청산도 마을 희망의 김치나눔, 지역주민 초청 문화예술제, 지역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의 관광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의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재분배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회의와 별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느린섬 여행학교의 추진사업 및 방향 등에 대해 법인회의의 의결사항을 도출하는 내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상생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현재 느린섬 여행학교의 수익은 공적으로 활용 된다. 완도군과 위탁운영 체결 시 청산도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공적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의 증가에 따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2년 8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근무인원이 증가했다.

느린섬 여행학교에는 슬로푸드를 식사로 판매하거나 체험으로 운영하는 식음시설이 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는 계절채소, 장류의 자체 생산, 인접마을의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조미료와 같은 공산품도 지역 내 소매점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슬로시티 청산도를 제대로 경험하고자 느린섬 여행학교를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느림여행의 인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주민들은 평범한 농어민이었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느린섬 여행학교의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오해와 마찰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느린섬 여행학교는 주민과 방문객이 교류하는 공간이며 청산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서비스 교육과 친절교육을 시행하였다. 주민들도 점차 내고장 청산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객을 환대하게 되면서 원활한 서비스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기업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계층 고용50%를 지켜 느린섬 여행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생산성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직무의 경우 시간에 따라 숙달되는 반면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적인 업무처리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느린섬 여행학교는 지역 사회에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목표로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사례를 조사하고 사업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적서비스 제

<2014 농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발간>

공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살리고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기초적인 마을 단위 공동체, 학습동아리, 직능단체와 함께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다보니 부수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영향이 주변의 공동체까지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느린섬 여행학교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한 지역 자원이 발굴이 선행되고 이를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사업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하드웨어 조성이 먼저 시행되었지만 청산도의 경우 특수한 여건에 의해 민관이 협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에 맞춘 하드웨어사업 변경을 제안하였고 주민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업 변경이 실현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공동체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주민주도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전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2010년 청산도를 가고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슬로푸드, 조개공예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고 기초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2010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팸투어 진행을 체험 진행 역량을 쌓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양성가 교육을 통해 2011년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성과들은 2012년 4월 개교한 느린섬 여행학교의 콘텐츠 자산이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은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공헌

6. 관련 예산

2010년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사회적기업 양성과정(2천3백만원)을 통해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고, 순수 군비를 조성하여 느린섬 여행학교 시설(27억)을 조성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슬로푸드 및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교육(약 6천만원)을 진행했고 그 성과로 슬로우걷기 축제와 가을의 향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2년 7월부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느린섬 여행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개발비(3천만원)는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했다. 2014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예산(총 3억5천만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슬로시티 청산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유성중

연락처 : 061-554-6961

홈페이지 : 느린섬 여행학교 <http://www.slowfoodtrip.com>

11. 전남장성_한마음공동체(상생과 협동)

제목: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연대한 한마음공동체

“생산현장을 소비자에게 거짓 없이 보여주고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하서대로 344-18
- 규모 : 조합원 38명 외 일반회원(생산농가 및 소비자)으로 구성
- 면적: 전국
- 관련 사업 : 1994년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된 후 정부로부터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통해 생산 시설 및 유통기반시설을 확보하고 1996년 지자체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 유기농쌀모듬터(직판장)를 개설한데 이어 최근 2011년까지 교육장 및 농산물유통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 받았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1980년대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에서 백운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세거부운동,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시위를 하던 기독교농민회는 정치적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해 준다면 소비자는 분명 우리 농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 확신은 점차 발전되어 1990년 3월 생산자 협동조합 한마음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한마음 공동체의 운영 기조는 정의, 생명, 민족공동체에 근거한 생산, 유통, 소비를 위한 국민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공동체는 농촌과 도시 간 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상호 협력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마음공동체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정신적 무장으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150여 회원농가들뿐만 아니라 직매장 직원들에게도 무분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 자연의 파괴, 지하수 오염 등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최근 한마음공동체 회원들은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유기재배를 통해 생명을 되살리고자 예술자연농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농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왜 이 공동체 사례가 우수한가? (3줄)

한마음공동체는 농민 스스로 농촌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적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유기농업을 표방하면서도 고정된 사고의식이 아닌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문제해결이 농촌 주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도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정부 정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변화를 시도(8줄)

한마음공동체의 시작이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만큼 정부의 시각은 부드럽지 못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생산자인 농민의 자발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인 1984년에 남면 백운교회 남상도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 큰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하며, 죽어있는 것은 머무른다는 신념으로 주민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변화가 지금에 있어 한마음공동체를 존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유기농을 넘어서 더 나은 농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무모하다고 할 정도의 변화에 혼혈을 쏟고 있다. 한마음 공동체는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데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농가회원을 비롯한 지역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해오다가 점차 미래의 우리 농산물 소비자의 주체인 청소년과 현재 청년 소비자들을 위한 농업·농촌에 가치인식 변화에 애쓰고 있다.

2. 생산자 조합에서 시작하여 소비자와 결합된 공동체로 확대(8줄)

한마음공동체는 생산자중심이면서 소비자운동을 병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사람의 출자액은 전체 출자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사람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출자를 해서 이득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마음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지금의 한마음공동체가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상도 목사는 현재는 평범한 조합원으로 농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수의 자산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공동자산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한마음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마음공동체는 도시 소비자와 함께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3. 농촌의 문화 복지사업을 통한 지역과 연대(8줄)

2000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교육장(한마음자연학교)을 만든 한마음공동체는 폐교된 남면 서초등학교를 구입하여 환경농업교육관, 생태문화체험관, 황토방 등을 조성하여 소비자 교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추수감사제, 정월대보름 한마당, 소비자의 날 행사,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농업후계자 교육, 자활센터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지원, 행복한 노인학교 운영 등 다양한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한마음공동체는 매년 운영예산 수립시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복지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 지출항목으로 문화복지사업비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공동체 형성에도 심혈을 기하고 있다.

4. 결론(3줄)

한마음공동체가 초기 단계에서는 신앙적 믿음에 근거한 생산자 조직의 단계로 시작되어 점차 정치적 투쟁의 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생산자가 연합하여 공동마케팅 통해 변화를 추구하였다. 한마음공동체는 일정공간에 모여 사는 생활공동체가 아닌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생명 먹을거리를 통해 형성된 경제공동체이다.

다. 공동체 활동 소개

한마음공동체는 생명에 대한 사랑정신을 기반으로 유기농업을 통하여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환경이 모두 건강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바로 밥상위에 생명이 있고, 밥상이 건강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1990년대에는 유기농업 생산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한마음공동체는 2000년대 초에는 농촌문화 및 그린투어 활성화를 토대로 지역의 농촌관광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후 2000년 중반부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대중화를 위한 소비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현재 전국 76개의 한마음 공동체 매장이 운영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한마음공동체는 자본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체가 아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단체이다. 현재까지 장성, 담양, 무안, 해남 등 150여 생산농가가 한마음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생산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2008년 4월부터 전면 냉장 물류시스템을 실시하였고, 주문 당일 배송 가능한 물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상의 신선한 물류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농촌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산자인 농민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협조를 위해 365일 언제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도시 소비자와 공생을 위해서 소비자의 크고 작음 모임과 연계하여 생산자들과 한마음공동체 식구들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6월 6일 소비자 대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생산들과 농촌 생활문화의 다양함과 함께 친환경농업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09년부터는 도시 소비자가 참여하는 푸른 길 공원 나무심기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한마음공동체가 설립된 초창기 소비자들이 한마음 공동체 생산현장에 왔다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시네요”라며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보았다고 한다. 이렇듯 생산자와 소비자는 유통의 들러리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생각이 지금의 한마음공동체를 있게 해준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이익을 도시 소비자에게 지분으로 돌려주는 실질적인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이러한 성공의 기반은 생산현장을 소비자에게 거짓 없이 보여주고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마음공동체의 활동은 지역 농민의 생각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다. 관행농법을 통해 ‘다수확상’을 타던 농사꾼들이 농약을 버리고, 소득보다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농사꾼이 되기도 하였으며, 쌀값 걱정보다는 ‘생명’을 걱정하면서 제초제를 버리고 사력을 다해 풀을 뽑으면서 ‘농사의 기적’을 맛보았다고도 하였다.

“우리가 짓는 농사는 돈만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어야 한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마음공동체 한승철 대표는 강조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농민을 위해, 소비자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한마음공동체가 되어야 기쁘게 농사를 짓고, 기쁘게 밥상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한마음공동체가 설립된 이후 변화되지 않은 목표는 정의, 생명, 공동체 실현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급속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변심(?)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했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기 때문에 한마음공동체에서는 품질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최우선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생산자와 직매점 모두에게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생산자에게도 이익을 쥐야하며, 직매점의 매장주에게도 수익을 담보해 주어야 하는

책임감은 필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많은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직매장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니, 결코 쉽지 않는 걸음임을 알 수 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장성 한마음공동체는 단하나의 수식어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다양한 조직이 숨 쉬고 있다. 공동체 회원농가의 생산자 공동체, 농촌체험 자연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체, 한마음공동체 소비자 모임인 소비자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한마음공동체는 생산농가들이 모인 영농조합이지만, 농민들만 모인 영농조합과 다른 점은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출자했다는 것이다. 꾸준히 소비자 강좌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보고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졌다. 뿐만 아니라 당당한 농산물을 내놓기 위한 생산농가의 혁신적인 노력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마음공동체의 20여 년간의 꾸준한 활동은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에 있어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신뢰를 기반으로 둔 협력적 공동체가 주는 성과와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관련 예산 (5줄)

한마음공동체의 농업정책자금은 조직의 변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소비자 직거래 유통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는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사업(270백만 원)과 1996년 농산물직판장 조성(봉선동, 212백만원), 우렁이 양식장 조성(35백만원) 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교육장 설치(250백만 원)과 2001년 지역특화사업(100백만원), 2002년 여성농업인센터(120백만원), 2009년 산지유통센터(800백만 원), 2011년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280백만 원)까지 정책지원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위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간 공생을 위한 협력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한마음공동체

대표자 이름 : 한승철

홈페이지 : <http://www.ecohan.co.kr>

12. 강원강릉_옥계면 현내리마을(상생과 협동)

제목: 주민, 마을, 기업이 함께 만든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면 번영회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를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을 지역의 주요 커뮤니티 장소로서 발전시켰다“

- 주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법정리 1개, 행정리 3개)
- 인구: 1,306명
- 면적: 411ha (농경지 84ha, 임야 173ha, 기타 154ha)
- 관련 사업:

2010년 강릉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함께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과 마을, 기업이 함께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옥계면 현내리 지역은 옥계면의 면소재지이나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면소재지의 서비스기능이 위축됨으로서 자연마을의 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어 주민들은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인근도시 및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면소재지의 기능은 점점 더 취약해 지고, 농어촌 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 또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 강화가 필요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과거 옥계면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현내권역의 상권은 교통의 발달과 인근 대형쇼핑센터의 건립 등으로 인하여 매우 위축되었다. 최근 10년간 주변 지역 상주인구 또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농어촌지역에 문화, 복지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지역의 자생단체들 전원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계의 5일장에 필요한 브랜드 전략을 개발하고 전통시장을 주요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였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현내리 지역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주민, 마을, 기업이 함께 정체되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타 지역과 달리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꾸준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 상설 프로그램 운영

(본문 8줄)

첫 번째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추진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는 해체하고 (사) 옥계면 번영회(이하 번영회)로 운영을 넘김으로써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장이 아닌 추진위원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옥계면 전체 지역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꼭 필요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집중화 시켰다.

초반 계획되었던 농산물 집하장은 문화소외지역인 옥계면민들을 위해 마실작은도서관으로 사업변경하여 음악회, 시낭송, 독후감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옥계유도회에서는 서예, 한자, 한문 무료강의를 개설하고, 주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옥계면민들의 문화.복지 시설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매년 각리의 노인회를 중심으로 착사대회 및 장기대회를 여는 등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2.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 만들기

(본문 8줄)

두 번째로는 주민, 마을, 기업이 하나되는 건강한 옥계만들기이다. 지역업체인 라파즈, 포스코 등의 대형업체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회의시설 등과 하천변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과 마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대회의실을 이용해 정기적인 임원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과 기업인들이 함께 장애인을 위한 세상나들이,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경로잔치, 지역기관 단체 및 기업과 한마음 체육대회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행사들을 기획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은 옥계 번영회의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사업과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옥계면민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복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3.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전통시장

(본문 8줄)

세 번째로는 가장 문제점이었던 옥계면 지역의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지역의 주요 커뮤니티 장소로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사업초기에 기획되었던 가로정비사업 대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장터주변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옥계장터를 이용하는 수요층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장터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가림시설이 건물외벽을 가린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옥계출신 상인들로부터 큰호응을 얻었다. 옥계5일장은 지역의 특성상 강릉과 동해에 접해있어 취급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식자재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생계유지의 목적보다는 시장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시장은 하나의 커뮤니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결론 3줄)

옥계면 현내리 지역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시설중심의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민, 마을,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사) 옥계면 번영회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옥계면 현내리 지역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역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문화향수권과 문화복지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 수익자인 현내권역과 지역민들에게 적합한 시설사용 방안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사) 옥계면 번영회는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를 만들기 위해 관내 기관 단체 및 회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로 임원회의를 통해 주요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또, 지역의 여성지도자 워크숍, 각리 노인회 회장, 총무 간담회 등을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리 노인회 척사대회 및 장기대회를 매년 정월 대보름 다음날 진행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주민, 마을, 기업이 함께하는 활동으로는 매년 장애인을 위한 세상 나들이,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경로잔치, 사랑. 나눔. 봉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개관한 마실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시낭송, 독후감 경진대회 등을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건강하고 하나되는 옥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사업초기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민을 대상으로 옥계지역의 모든 단체들의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추진위원회는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사) 옥계면 번영회로 운영권을 넘김으로써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면소재의 기초 서비스기능이 위축되면서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문화, 복지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강릉시 현내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 마을, 기업이 하나되어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을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계면 지역의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수혜자인 옥계면민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으며, 문화, 복지의 중심축으로써 '크리스탈 벨리 센터'가 자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으로써 주민과 마을, 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운영의 주체인 옥계면 번영회는 해수욕장 운영사업과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센터의 운영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지역민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2008년 옥계면 현내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사업초기 현내면 이장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추축이 되어 사업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이다 보니 옥계면 소재의 많은 단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잦은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권역전체 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고, 전통시장내의 비가림시설은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복지시설의 중심이 되는 크리스탈 벨리는 주변지역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설득작업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몇몇 사업은 사업추진 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옥계면 현내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당시 추진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

럼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대상지역의 모든 단체들의 벤치마킹 및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옥계면민들의 요구를 사업에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사업당시 시설중심의 정비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사업진행과정을 통해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복지에 대한 실천이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점 이라고 하겠다. 또한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공업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강릉시와 동해시로 유출되어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거점면 소재지에 대해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도 우수사례라 할 수 있겠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옥계면 현내리 지역은 옥계면사무소가 위치한 옥계지역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라파즈, 포스코 등의 공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강릉시와 동해시로 인구유출이 많아지고 도시로의 유학 등으로 인해 고령화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인근도시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 취미생활을 즐길 거리가 부족한 주부 등 다양한 옥계면민들의 모두 욕구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이 필요하다.

6. 관련 예산 (5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조기효과 거양 및 정책마련을 위해 3개년 (2009년 -2011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을 지원하였다.

연차별로 1년차에 429,000천원, 2년차에 3,786,000천원, 3년차에 2,785,0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 공간에 2,559백만원, 운동휴양 및 교류증진에 1,158백만원, 재래상권활성화에 777백만원, 경관개선에 660백만원, 지역역량강화에 620백만원, 제경비 및 사업관리비, 예비비 등에 1,22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사) 옥계면 번영회 (사업당시 : 추진위원회 / 사업종료 후 번영회로 위탁, 추진위원회는 해산)

대표자 이름 : 박문근

연락처 : 010-9915-1274

13. 전북임실_임실치즈마을(상생과협동)

제목: 공동체복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임실치즈마을

-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610-1
- 인구: 183명 (74가구)
- 면적: 논 88ha, 밭 80ha, 기타 10ha
- 관련 사업: 2003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2억원)사업이 최초로 지원되었고 농협중앙회의 팜스테이마을 지원사업을 2006년에 받았으며 2008년 이후에는 치즈마을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사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공동체복원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임실치즈마을은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을소득사업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치즈마을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1980년 초반부터 태동한 임실치즈마을의 역사는 바른농사를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농촌생활실천으로 시작되었다. 자립, 자주, 자조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마을 스스로 치즈마을을 만들어 위해 유가공가공장과 작목반을 구성하여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마을지정이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임실치즈마을은 꿈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마을이 정부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생과 협동의 농촌마을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자주, 자조, 자립을 테마로 꿈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임실치즈마을은 공동체사업의 의미를 마을에서 지역사회로까지 의미를 확대한 국내 유일의 농촌체험마을이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협동을 통해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주, 자조, 자립이 일궈낸 협동

국내의 농촌체험마을의 대부분은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임실치즈마을은 실천적인 자립의 기치를 내걸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이다. 사업초기 바른농사를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농촌생활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2003년 23농가에서 10억원을 출자하여 마을공동체를 구성한 임실치즈마을은 제1회 마을음악회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다.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음악회 프로그램 기획, 무대설치, 공연진행 등 모든 과정을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해 낸 것이다. 작은 음악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임실치즈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과 얻었으며 이 자산을 바탕으로 임실치즈마을은 지금도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꿈의 프로젝트 -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기틀

자주, 자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임실치즈마을은 꿈의 프로젝트 중장기 사업을 운영위원회를 결의를 거쳐 수행하게 이룬다. 꿈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수혜자에 놓여있는 농촌마을이 지역사회의 기여자로서 변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별도의 군지원사업이 배제한 가운데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5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기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맞춤형사업비, 마을지적립기금, 인재장학기금, 중장기마을발전기금, 지역사회발전기부금 등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 끝에 맞춤형 1호점과 2호점을 조성하는데 마을기금으로 1억원 가량의 대출을 하여 자립의 성과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사업초기의 공동사업장에서 마을기금 운용을 통해 육성된 8개의 개별사업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3.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치즈마을

자주, 자립의 가치를 실천하기 . 그러나 임실치즈마을은 이제는 농촌마을이 지원사업이 임실치즈마을이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임실마을에 지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농촌마을이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져 버리는 시도를 임실치즈 마을이 시작하였다. 이 또한 꿈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노인복지지원금, 아동복지지원금, 지역사회기부금, 인재장학기금, 등 기존의 농촌체험마을에서의 기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금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기여하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금의 기초가 되는 각종 공동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장을 8명 고용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6인의 사무장의 급여를 스스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실치즈마을의 소득사업 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이다.

(결론 3줄)

지원사업이 없이는 만들어지거나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식을 타파하고 자주, 자조, 자립의 기틀 아래서 스스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체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농촌체험마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임실치즈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임실치즈마을은 비영리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체험사업 및 가공사업을 통해 마을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실치즈마을 꿈의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꿈의 프로젝트사업에서는 기금운용을 통한 신규사업장 개설, 인재장학기금조성,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1. 중요한 활동

임실치즈마을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6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사업운영도 다각화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치즈아카데미, 경운기체험, 식당운영 등 대부분의 체험사업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마을공동기금이 적립됨에 따라 사업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점, 민박시설, 치즈체험장을 신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개별사업체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기금을 대출형식으로 지원하여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개별사업체가 대출금 상환 및 추가적인 기금납부를 통해 자조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마을기금에 인재장학기금, 마을발전기금, 지역사회발전기금, 수익적립기금 등 다

양한 기금적립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마을주민의 상생을 뛰어넘어 지역 상생의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임실치즈마을의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5억8백만원의 마을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기금조성관련 규정은 마을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개별체험과 공동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금납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조와 자립을 위한 맛체험점 지원사업을 통해 맛체험 1호점과 2호점이 새로운 사업체로 탄생하였으며, 민박시설 지원으로 4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사업초기에 스스로 협동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임실치즈마을의 의지가 반영되어진 결과이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로 활동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여 인재장학금 25백만원, 지역사회발전기부금 10백만원 등의 기금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지원을 하는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임실치즈마을은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은 바로 이진하 대표이다. 사업초기부터 스스로 교육하고 임실치즈마을의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지만 혼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2년 단위로 재구성하여 임실치즈마을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갔지만, 마을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다. 특히 2년마다 운영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이진하 대표의 몫이었다. 그러나 6기에 걸치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제는 임실치즈마을의 리더자들은 다함께 성장통을 겪었으며 이제는 벌써 4명의 임실치즈마을의 리더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임실치즈마을은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자주, 자조, 자립을 선도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한 대표적인 마을이다. 순환의 리더자 육성과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자주적인 체험마을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금을 운용을 통해 신규사업체인 맛체험점을 설립하는 활동을 통해 농촌체험마을도 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자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농촌체험마을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혜자에서 사회의 기여자로 변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상생과 협동을 위한 임실치즈마을의 활동은 사업초기인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사회의 기여자로 변모하는 활동은 2007년 3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기금조성을 위한 임실치즈마을 실천규약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으며, 2013년 기준 5억 8천만원의 마을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5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3년) - 2억원

농협중앙회 팜스테이마을 (2003년) - 59백만원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2007년) - 750백만원

정보화마을조성특화사업 (2007년) - 50백만원

라. 연락처

조직명 : 임실치즈마을

대표자 이름 : 조기현

홈페이지 : <http://cheese.invil.org>

1. 강원인제_백담마을 (복지 교육)

제목: “마을주민들의 공동사업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백담마을”

"노인회 및 부녀회 등의 조직 및 단체의 지원, 쓰레기봉투, 적십자회비 등 주민에 대한 지원, 공부방 운영, 장학금 지급 등 주민이 일해서 마을의 복지 기금 마련 "

“술방울들의 합창’이라는 동시집을 제작을 하며 백담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 인구: 373명(남 370, 여 303)
- 면적: 21.04km²(용대리)
- 관련 사업:

마을기업을 통해 백담사까지의 버스운행, 황태 및 마가목 직판장 운영을 통해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 소득을 활용해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상봉행사, 장학금 지급 등 마을주민 복지에 활용함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인제 백담마을은 설악산과 백담사를 오가는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많은 마을로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관광산업과 산지가 많은 지리적여건으로 인해 소규모의 농업, 그리고 황태가공 및 판매로 주소득원이 구성되어 있다. 백담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백담사 신도를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를 인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백담마을은 1996년 백담사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마을 합자회사인 용대향토기업을 설립하였고, 이후 용대2리주민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을 해오고 있다. 마을에 있는 용대향초기업이나 용대2리주민백담마을영농조합법인(이하 백담마을기업), 백담마을정보화마을 등의 조직은 백담마을이라는 큰 조직 내에 있는 하부조직으로 마을을 움직이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3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으며, 각 사업조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 마을기금 조성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차적인 목표는 30개인 일자리를 50개까지 늘려 마을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서 마을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백담마을은 용대향토기업의 버스운행과 백담마을기업의 황태와 마가목 직판장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마을기업에 백담마을 주민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서 마을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간 2억 5천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의 분야를 보면 마을 내 단체에게 지속적인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공부방운영 및 장학금 지급, 적십자회비 지원 및 쓰

레기봉투 지원 등의 주민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 주민주도의 소득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생활 도모

첫 번째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마을주민을 고용하고, 그를 통해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백담마을의 대표적 소득사업인 백담사간 버스운행을 통해 20명에 달하는 마을주민의 고용창출효과를 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의 소득사업추진시에 재투자를 통해 백담마을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백담마을기업의 주요사업인 황태 및 마가목의 가공 및 판매를 위해 10명의 마을주민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마을의 사업추진을 통해 마을주민 30명이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게 되어 마을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버스운전 등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마을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태, 마가목 가공판매장의 설치를 통해 판매장에서 직원과 가공공장에서의 직원의 상시 채용이 가능해 짐으로서 노인 및 여성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주민의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 기금이 한해에 2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주민들의 마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마을총회를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 추진

두 번째 요인은 마을총회라는 백담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마을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담마을의 경우 마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백담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과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마을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역시 마을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백담마을은 마을 총회를 거쳐 1년 동안의 마을 운영비를 의결하게 된다. 마을운영비에는 주민 복지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편성되는 마을주민 복지예산에는 매월 1회 쓰레기봉투 지급, 적십자회비 지원, 명절 제수비용 지원(가구당 30만원), 노인회 매월 100만원 지원, 부녀회 매월 200만원 지원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 노인회와 부녀회 등의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은 각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측면에서의 운영비로 활용하게 된다. 노인회에서 마을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담마을의 주민이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경우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총회의 투표권과 함께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백담마을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마을의 197가구가 모두 용대향토기업과 백담마을기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마을일에 모두 앞장설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키운다.

세 번째 요인은 마을의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담마을 솔방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부방에는 40~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공부방 운영은 귀촌한 사람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1주에 한번 또는 1달에 한번씩 영어와 국어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의 강사초청을 통해 특강진행을 진행하기도 하며, 외부 견학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솔방울들의 합창'이라는 동시집을 2013년도 4회째 제작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보관하려는 노력과 함께 참여 학생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교에 진학하는 마을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용대리 전체)을 지급해주며, 어린이날 행사 추진, 마가목축제(마을축제) 추진시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추진 등 마을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

백담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모든 초점을 마을 주민에 맞췄다는 것이다. 마을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주민의 복지에 활용함으로써 마을사업의 혜택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을주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백담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백담마을은 버스운행, 황태 및 마가목 가공 및 판매를 통해 마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기금을 활용한 마을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부방운영, 대학진학 장학금 지급,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 단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백담마을은 주민화합을 위해 음력 1월 15일 대보름척사대회, 5월 8일(어버이날) 경로잔치, 11월 주민의날 행사 등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마을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해 마을의 정보화시설을 활용하여 베트남 가정 9가구의 현지상봉행사를 개최했다. 마을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는 동시교실, 미술교실, 작은도서관 운영, 어린이날 축제 등이 있다. 동시교실은 매년 6월~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유치원과 초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미술교실은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운영하며 마을의 유치원~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5,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꿈틀도서관과의 교류, 베트남어 배우기, 독서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날 축제는 매년 5월 5일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참여하며, 아프리카돕기 후원, 벼룩시장, 거북이 마라톤 등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회 및 부녀회 지원, 대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백담마을이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용대향토기업은 매년 8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연 16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백담마을기업에서는 연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백담마을은 다문화 가정주부, 노인층, 수익이 불투명한 가장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발생시 고용을 통해 마을 전체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윤보다는 서비스 중시, 내실 있는 경영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0개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 및 아동복지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특히 공부방운영을 통해 솔방울들의 합창이라는 동시집을 4집까지 발간하고, 매년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마을 주민이 식재한 마가목을 활용한 상품화, 마을 특산물인 황태를 활용한 가공 및 판매, 백담사까지의 버스운행 등 마을의 내발적발전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외지로 나간 마을 주민 및 자녀의 귀촌으로 인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2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에서 색깔 있는 마을부분 국무총리상 수상, 13년도에는 주민주도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마을과 주민소득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마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기금을 활용한 주민복지 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없었던 듯하다. 다만 용대향토기업 및 백담마을기업 등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이러한 과정을 겪어본 마을만이 아는 고충이 있을 것이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백담마을에서 배울 점은 우선 마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통해 마을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을의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조직들이 각각 개별단위로 움직이지만 마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임으로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공동체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회 및 부녀회 등의 조직 및 단체의 지원, 적십자회비 등 주민에 대한 지원, 공부방 운영,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주민 지원 활동 역시 백담마을 사례에서 배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백담마을이 처음으로 시작한 백담사 버스운행은 1996년도 5월에 용대향토기업 설립을 통해 7월부터 차량 2대로 운영을 시작해 2004년도 버스를 9대로 증차하여 현재는 버스 10대에 운전기사와 매표 및 사무실 직원을 포함하여 20명의 상주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백담마을기업은 2012년 1월 마을가공 및 판매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인원과 가공공장에서 10명의 상주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도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마을의 특화작목인 마가목은 1996년도부터 식재를 해 2009년도부터 매년 마가목축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6. 관련 예산

백담마을은 2003년도 정보화마을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정보화 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억원을, 2010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로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같은해 꽃 마을 시범모델마을로 선정되어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2011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8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백담마을

대표자 이름 : 정래옥 이장

홈페이지 : <http://baekdam.invil.org/>

2. 충남서산_솔마당마을(교육복지)

제목 : 문화예술 활동으로 마을 사업에 활력을 되찾다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1리 623번지
- 인구 : 137명
- 면적 : 185km²
- 관련사업 : 2011년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농촌체험 역량강화사업, 2013년 생활문화공동체사업, 희망마을만들기, 뉴세마을사업 등을 추진, 운영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솔마당은 '12년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던 중 전문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첫째, 다양한 여가 선용의 방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둘째, 예술 활동이 단발적·소비적 문화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마을 청소년들을 마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역사 문화 전승 및 세대간 통합을 목표로 한다. 마을의 발전과 행복은 구성원의 발전과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이 '선 소득증대 후 행복추구'라면, 솔마당의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선 행복추구, 후 소득증대 기회 모색'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곧 마을의 자원이 되고,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가 다시 마을의 상품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전문가와 마을리더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전문가는 교육강사를 섭외하고 예술활동이 생산활동이여지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을 공동체에 흡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 예술 활동을 마을 소득과 연계하라

솔마당의 문화예술교육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을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었다. 소득 창출과 연계된 교육 과정은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마을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솔마당 디자인반은 마을의 주요 작목인 마늘 포장 상자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박한 솜씨로 써내려간 작목 광고 문구(캘리그래피)와 자화상이 담긴 명함 제작 등도 같은 맥락이다. 사진반도 마을 사진관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향후 운영될 마을 사진관은 마을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 체험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솔마당 사례는 문화예술활동이 마을 사업으로까지 성장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마을 노년층을 마을 사업에 참여시키라

노년층의 잠재적 가치와 재능의 발굴은 마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솔마당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사진교육을 통해 사무장의 잦은 업무 중 하나야했던 마을행사 사진촬영이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에게로 이관되었다. 2013년 겨울, 독거 노인들의 마을회관 방문 빈도 및 체류 시간이 길어졌다. 마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무언의 분위기가 형성된 덕분이다.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향유의 즐거움을 맛본 수강생들이 마을 노인회의 이름으로 면사무소나 서산시 노인회 등에서 지원하는 민요교실, 웃음치료 교육을 스스로 유치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는 여러 이유로 수년 간 마을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청년회가 다시 마을회관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3. 1070 세대 간 대화의 장을 열다

청소년 문화 교육은 마을이야기 자원의 중요성 학습, 어르신 인터뷰, 인터뷰 채록, 채록 내용 출판 기획 등의 활동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마을의 인적·문화적 자원을 마을 내부에서 기록하는 일련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뿌리 의식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노년층의 기억 속에 있는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세대간 문화 교류 효과도 얻었다. 교육 이후 청소년들은 학교 다녀오는 길에 경로당에 들러 인사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덕담을 건넨다. 솔마당에서는 지금 ‘내 할머니가 아닌 우리 할머니, 내 손주가 아닌 우리 손주’라는 ‘우리 의식’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결론

우리는 수많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증대가 곧 행복이라는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달았다. 소득증대라는 기관차의 지역 사람과 문화를 놓치지 십상이다. 그런 면에서 솔마당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다. 솔마당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솔마당에서는 부녀회의 풍물놀이, 노인회의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던 중 마을기획가와 마을 리더가 합심하여 생활공동체사업을 유치하였다. 마을기획가와 리더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마을 인적 자원 발굴·육성이 마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2013년을 시작으로 최소 3년에 걸쳐 사진,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1. 중요한 활동

솔마당 마을은 풍물반, 민요반 등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진, 디자인, 스토리텔링 교육을 시작하였다. 사진반은 전문강사와 보조강사 각 1인이 이끌고 있으며 수강생은 6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 본 교육은 현재 1차년도 교육이 완료 되었으며, 최종 목표는 마을 사진관 설립에 있다. 디자인반은 전문강사와 보조강사 각 1인이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 11명의 수강생을 지도한다. 캘리그래피, 상품 패키지 등 마을의 대표적인 작목인 마늘 포장재 개발을 비롯, 개인 명함 제작, 로고로 활용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도출

등의 내용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다. 스토리텔링 교육은 전문가 1인이 중2~고1 학생 총 4명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을 실시, 마을의 사회·문화·인적·자연 자원을 발굴 조사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마을 스토리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사진반 교육을 통해 마을 전속 사진작가가 탄생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생 스스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사진에 관한 공부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디자인반은 캘리그래피 작품들로 족자를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전시하였고, 자화상이 들어간 개인명함을 택배 발송 시 동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마을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간다는 등의 예기치 않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사진반과 디자인반 작품 중 일부는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서산시문화회관에 전시되어 서산시와 시의회, 인지면 등 지역 단체 및 서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스토리텔링반 운영을 통해 마을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세대간 의사소통이 활기를 찾고 있으며, 조사자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됨과 동시에 '내고향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던 작년 대비 농한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는 주민의 수는 '12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13년 12월 마을 총회에서는 미사용 마을 창고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노인회는 체험객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짚풀공예 교실을 열고, '웃음치료교육'을 유치·운영하였다. '13년 예술교육을 개시 이후 '희망만들기사업', '뉴새마을사업' 등이 유치되었고, '14년에 '명품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하는 술마당은 내적강화가 외적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일상이 곧 문화예술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종의 사치일 수 있다는 편견을 바로잡고, 마을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어르신들의 직설 화법에 익숙해지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고최선최대의 방법은 마을 주민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강사는 강의시간 전후뿐만 아니라 강의가 없는 날에도 자주 마을을 방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사 섭외도 매우 어려웠다. 농산어촌의 현황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강의 시간을 마을 주민들의 일상에 맞추고 교육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전국에 몇이나 되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매우 소박한 강의료는 마을 입장에서나 강사업장에서나 교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사업지원 분야에 문화예술교육 부분이 추가되고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술마당의 예술교육 사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모범이 된다. 첫째, 외부전문가와 마을 리더, 주민의 연대가 있었다. 둘째, 주민들을 문화예술 주생산자로 활동함과 동시에 일련의 교육이 마을 소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노력하고 있다. 셋째, 문화활동을 매개로 농산어촌 마을의 청소년과 노년층, 세대 간 문화전수를 시도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은 상향식으로 크고 작은 여타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유치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내적 문화

역량 강화가 마을의 내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2013년 봄 솔마당은 외적으로는 서산시의 팽창(현재 차량 이용 시 서산 시내까지 10분 소요)의 영향으로 도시화·개인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내적으로는 체험마을 운영 부진으로 마을 사업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에 따라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마을 사업 유지 발전을 위한 내적 동기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5. 관련 예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생활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전국의 12개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솔마당 마을은 총 사업비 3,300만원을 배정받았다. 그 중 전시회 관람, 선진지답사 비용으로 500여 만원, 공동체 활동 강사 인건비로 1500여 만원, 스토리북 제작에 1000여 만원, 사진전시회 개최에 300여 만원을 지출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서산시 솔마당마을

대표자 이름 : 김승구

홈페이지 : <http://www.solmadang.kr>

3.울산 울주 _ 소호산촌유학(교육 복지)

제목: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호산촌유학(또는 소호마을)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782-1

인구 : 191가구, 438명

면적 : 1,445ha(밭 : 11.7ha / 논 26.9ha, 80%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짐)

관련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2010), 농어촌유학센터운영지원사업(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시범사업(2011), 예비사회적기업(2012)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지리적으로 울주군은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 사이에 있고, 밀양, 청도, 경주 등 중소도시와도 물려있다. 그래서인지 울주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귀농·귀촌으로 울주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개발바람이 불어 괴산, 영양, 봉화등지로 쫓겨나듯 가버리면서 울주가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활동가로 전국을 다니던 현 소호산촌유학센터의 김수환 대표가 소호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폐교위기의 마을학교를 되살리고 소호마을을 살아 있는 마을로 만드는 것이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소호마을의 목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마을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갈 초등학교가 없다면 젊은 부부들은 농촌으로, 산골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소호마을의 목표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로 세대의 단절이 없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소호마을의 진정한 목표이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수단이 바로 소호산촌유학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소호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다. 현재의 농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심지어 아이들의 모습까지 밝다. 지금의 소호마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조직들로 인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촌유학이라는 사회적 활동이 하나의 방편이 되어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낸 것이다.

1.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촌유학의 사례는 크게 농가형과 센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가형은 보통 귀농한 부부가 유학생을 돌보며 그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를 통학하는 형태다. 반면 센터형은 공동기숙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교육·체험공간에서 활동가의 지도를 받는 형태이다. 농가형은 유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예비캠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농가를 이용하거나 따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마을과의 관계를 맺을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또한 센터형은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 활동가가 상주하며 아이들에게 집중해야한다. 주로 학교생활과 센터생활을 위주로 아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패턴자체가 단순해져 마을사람들과는 어울릴 일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소호산촌유학은 농가형과 센터형이 결합되고 귀농정착형(부모가 직접 아이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같이 생활하는 형태)이 더해져 복합적인 형태를 띤다. 소호마을의 아이들과 유학생들이 소호분교에서 어울려 공부하고, 방과 후에 소호지역아동센터와 소호산촌유학센터에서 풍물, 밴드, 연극, 목공, 미술, 치유의 숲 등의 프로그램

을 최소 하나에서 세가지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농사를 도우며, 의식주에 대해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소호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물론, 각 가정에서, 센터에서,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는 소호마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마을활성화의 밑거름이 된 다양한 마을조직과 활동

소호마을의 조직은 소호산촌유학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소호지역아동센터는 산촌유학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2008년에 개소되었다. 소호분교와 연계된 보완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양한 자연체험, 농사체험, 산촌생활체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로 (사)아이누리 소호산촌유학지원센터는 산촌유학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농가부모의 양성 및 재교육, 도시부모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관련기관 연계활동, 산촌유학 모니터링,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농산물 직거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산촌유학과 마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세 번째로 소호산촌유학센터에서 진행하던 산촌유학사업을 마을중심으로 전환했는데 그 중심에는 <농업회사법인 소호리고현산(주)>가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었다. 산촌유학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유치하면서 마을경관을 생태적으로 조성하고, 생태체험코스, 농사활동체험, 학교운동장 야영 등 다른 마을과는 차별화된 계절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도시 소비자 및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3. 또 다른 마을발전의 목표, 공동체복원

앞서 소개된 마을체험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5~60대의 지역주민들을 마을 일에 참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소호마을에서는 또 다른 협동조직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을 한 이주민이 함께 농사를 지어 가공·판매하는 소호절임배추작목반이다. 영남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절임배추작목반은 체험활동까지 연계되면서 마을공동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호산촌협동조합은 야생차를 생산·가공해 판매하는 동시에 야생차 체험교실을 10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작목반과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의 활동은 마을공동체 복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울림’이라는 외부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 내 자체적인 문화예술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 2011년부터 마을축제인 대동제와 동아리 활동인 소호문화예술학교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외받기 쉬운 마을의 어르신들과 전원주택족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한자리에 모여 함께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여 아줌마들은 중창단에서 노래를, 아저씨들은 색소폰 연주를, 청소년 아이들은 밴드동아리를, 노인 분들은 민요를 부르며 마을에서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 소호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다. 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고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자 앞의 3~4줄을 삭제하겠습니다,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중요한 활동

소호마을의 사업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소호리고현산(주)가 담당하고 있으며 팀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팀, 예비사회적기업사업단, 소호마을문화학교, 산촌유학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단은 체험마을팀, 마을장터·식당팀, 김치·장류사업팀, 마을농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촌유학운영팀은 산촌유학을 담당하면서 소호분교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전담하고 있다.

소호리고현산(주)는 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소호숲체험과 산촌생활체험, 마을옛길 복원 및 체험, 계곡체험장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공판장을 운영 및 꾸러미 사업, 쇼핑몰을 구축을 하는 등 마을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마을장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절임배추작목반, 야생차를 중심으로한 소호산촌협동조합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아이누리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소호산촌유학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소호산촌유학은 폐교위기에 처한 소호분교를 살려냄으로써 농촌 공교육 활성화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싼 땅값으로 귀농·귀촌을 꺼리는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체험사업을 통해 도시소비자들이 소호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 하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판매까지 도모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소호마을은 걱정이 없다. 소호분교가 초등학교로 승급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체가 없어서 마을사업이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걱정도 없으며, 미래에는 소호마을이 어떤 모습일지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이는 산촌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성화 된 소호마을의 공동체조직과 활동들은 농촌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마찰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가 각 조직들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마을”을 만들고자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소호산촌유학센터가 아닌 마을법인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김수환 대표는 뒤로 물러서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마을법인과 소호산촌유학센터가 공생의 관계를 이룩하는 밑거름을 만들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인물로는 소호리고현산(주)의 김득용 대표였으며, 귀향한 마을의 토박이인 그가 공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소통을 독려했다. 이처럼 리더들의 희생과 더불어 마을주민들 간 화합의 노력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소호마을이 될 수 있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소호마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소호마을에는 귀농·귀촌한 부부들도 살고 있으며 전원주택족 또한 살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농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복합적인 갈등 역시 현재 농촌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호마을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며 서서히 줄여나갔다.

첫째로 앞서 소개된 소호마을문화학교는 귀농·귀촌인과 전원주택족을 참여시킴으로써 마을에 계신 노인분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마을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주민들도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냈다.

두 번째로 영농조합법인 소호리고현산(주)가 주도적으로 체험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60대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따라서 산촌유학과는 별도로 마을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체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유학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절임배추작목반, 소호산촌협동조합은 영남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랭지배추와 산과 들판에 있

는 꽃들을 가공하여 공동판매하면서 공동소득을 창출해 나갔다.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작목반과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조직을 통해서 이루어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2007년에는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이 귀농운동본부, 작은학교 교육연대와 함께 산촌유학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8년에는 소호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여 소호마을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소호마을사회적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실제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0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소호마을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에 산촌유학생이 최초로 소호산촌유학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농어촌유학센터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소호산촌유학을 발전시켜 나갔고, 같은 해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소호마을문화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2012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소호리고현산(주)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체험휴양마을로 승인을 얻었다.

6. 관련예산

사업명	년도	금액	내역
농어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2013년	38,000,000원	인건비, 프로그래머, 시설개보수비
녹색농촌체험마을	2013년	100,000,000원	다목적체험관건립 90,000,000원 특산물판매장 10,000,000원 (부지확보 및 지주사용승락 조건에 따른 비용 30,000,000원은 자부담)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	2011~2013년	34,000,000원	동아리 운영에 따른 강사비, 악기구입 등 운영비
예비사회적기업	2013년	16,278,000원	특산물패키지(감자박스, 고사리 지퍼백) : 7,000,000원 생태관광상품개발(소호산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 9,278,000원 (보조금 14,628,000원, 자부담 1,650,000원)

라. 연락처

조직명 : 소호산촌유학센터

대표자 이름 : 김수환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해주시시오)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oho-sanchon>

4. 전북 완주_안덕마을(교육 복지)

주민의 행복과 방문객의 힐링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안덕마을

-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95번지
- 인구: 313명(2012년 기준)
- 면적: -
- 관련 사업:
2007년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시범사업과 2011년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1970년대 전기도, 버스도 들어오지 않던 오지마을, 금광은 폐쇄되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던 농촌마을, 시간이 많이 흐른 2000년대에도 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 스스로 돌파구가 필요하다 느꼈지만 방법을 몰랐고, 이러한 이유로 소위 스타마을이 생겨났었던 2002년에 비하면 안덕마을은 조금 늦게 마을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안덕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자식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가 있으며, 농촌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자식들과 함께 살길 원하고, 물론 자식들도 부모님을 시골에 두는 것이 마음편할리 없을 것이다. 농촌에서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다.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있다 해도 먹고 살만큼 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안덕마을은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지금보다 덜 벌지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지역에서 부모님과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현재 13명의 상근인력과 30여명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마을주민들이 계획한 부분을 가시화 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무리한 기반조성을 지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자립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건강과 힐링이라는 테마에 걸맞는 프로그램개발과 구성으로 방문객에게 오늘날로 오게 된 것이다.

1. 건강힐링체험마을

(본문 16줄)

마을내 위치한 민속 한의원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던 토종 한증막은 24시간 운영하며, 건강썩뜸체험, 옛 금광굴을 활용한 얼음방, 오감체험장등은 마을의 대표아이템이며,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웰빙식당에서는 마을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채식부페를 항상 맛볼 수 있다. 안덕마을의 컨셉과 맞게 마을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만 식단을 구성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깊숙한 산속에 소

농을 주업으로 하는 어르신들은 농사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왔다갔다 교통비에 제값을 다 받아 내기도 어려워 그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정한 원칙은 마을내에서 재료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도매가격이 아닌 파는 소비자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을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마을내 농산물로는 부족하여 마을 주변 농산물까지 구매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어드벤처 체험장 등의 특색있는 안덕마을만의 건강힐링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경험과 힐링을 마을주민은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통해 마을주민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으며, 진정한 힐링마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2. 완전한 자립을 꿈꾸다.

(본문 8줄)

안덕마을은 올해 6년차지만, 주요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채 3~4년이 되지 않는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육과 견학등에 매진하면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노력했다. 기본적으로 안덕마을은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을내에서 재료를 공급하고 마을주민이 운영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안덕마을은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내 학교도 중요한 시설도 전혀 없지만 단순히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가꾸고 자립하여 문화와 복지 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3줄)

안덕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스스로의 자립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다.

다. 안덕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완주군에서 진행하는 파워빌리지 시범사업을 통해 리더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갔으며, 법인설립 당시 고령화되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마을에서 1억이 넘는 출자금을 모아 이 돈을 기반으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처음에는 옛 서원을 복원하여 요초당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장을 만들었고, 황토방 4동을 주민 스스로 완성하여 민박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안덕마을 내 민속한원의 한증막시설과 식당을 임대하였으며, 세미나장을 짓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룰 수 있었다.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고용창출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상근직원 6명으로 시작하고 몇 달은 적자운영이었지만 점점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이 창출되면서 수익을 다시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상근인력에 대해 복지혜택을 주고자 4대보험에 가입했으며, 인건비와 인력을 늘리려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최근 상근인력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나 인건비로 인한 소득지출을 줄이고,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당 및 사우나 시설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수수료를 마을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 결과와 성과(13줄)

주민공동체 측면의 결과와 성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안덕마을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로 2009년 법인구성을 통한 출자금으로 3300㎡(1000평)의 땅을 사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짓기 시작하였다. 인근에서 서당으로 쓰이던 오래된 한옥을 옮겨왔으며, 온돌과 부뚜막이 있는 집도 지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아끼기 위해 주민들이 친환경 재료 등 건축자재를 마련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직접 공사를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마을계획에 맞는 것을 찾아서 받고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일년에 한번 영화관람을 기획하고 있다. 과연 좋아하실까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다녀와서 서로 품평도 하고 좋아 하시는 모습에 안덕마을이 꿈꾸는 비전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세계 8개국이 안덕마을을 방문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약 3만명 2012년 기준으로 2만명정도이지만. 이는 한증막사우나, 캠핑장 이용객들까지 포함하면 약 4만명정도 된다. 기존의 상근인력은 총 13명 정도(2013년 하반기 기준) 평균 150만원 이상 받고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이 있는 농촌마을 공동체회사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사업초기 마을주민에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다. 장장 3년이란 시간동안 천천히 설득시키려 노력하였다. 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기 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 사업의 시작과정이 꽤 간편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반조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기존의 형태를 지양하기 위한 완주군의 파워빌리지사업은 지원금액이 적어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부터 접근하여 오늘날까지 비교적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어려운점이라 하면 사업 규모와 매출이 커지면서 회계와 세금 등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안덕마을은 마을주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진행한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 문화생활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된 건물을 짓거나, 판매할 상품을 만들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마을의 컨셉에 맞게 조리하여 판매한다. 방문객을 맞이 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직접 하고자 한다.

또한 안덕마을은 방문한 모든 방문객에게 안덕마을의 이미지를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경관 및 체험프로그램과 음식까지 통일된 느낌과 시골마을의 정감을 주기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앞서 설명바와 같이 안덕마을은 스타마을이 탄생한 2002년에 비해 한참 늦게 시작되었다. 2006년 그마저도 마을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자 3년이란 시간을 소요했다. 수도권에서도 3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안덕파워빌리지 입구에서부터 건강해지고 힐링될 것 같은 느낌, 진짜 힐링이 되는 그런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안덕마을 주민들은 바쁘다.

6. 관련 예산 (5줄)

2007년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시범사업과 2011년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안덕파워영농조합

대표자 이름 : 유영배총장

홈페이지 : www.poweranduk.com

5.전남함평_월야마을(교육 복지)

제목: 구나 선생님이 되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월야마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마을의 소외된 이웃을 서로 서로 돌보는 ”

-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야1~5리
- 인구: 536세대, 1,211명(남:603, 여:608)
- 면적: 5.6km²
- 관련 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행복하고 풍요로운 마을가꾸기를 모토로 2011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현재 계속 시행중에 있음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월야마을은 광주광역시와 영광군이 인접해있어 외부에서 방문하기에는 좋으나 반대로, 함평군 관내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있어 군에서 이루어지는 여가, 교육, 문화, 복지과 관련된 여러 혜택들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마을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며 마을발전에 고민중이던 이장과 지순한 애향심으로 알게 모르게 마을을 위해 사무장 그 밖에 지자체 관계자, 민간 단체 등이 만나 행복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마을의 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월야마을 주민들 모두 그 열정이 대단하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월야마을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마을 주민의 안녕과 행복이다. 늘 마주치고 인사하며 지내는 내 이웃, 내 고장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하하호호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면 자연스레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월야마을 주민들은 단계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 농수특산물 판매 등 소득사업을 통한 수익의 증대는 차치하고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확립, 지역문화의 보존, 주민들간의 교류와 소통·화합을 우선시 하며 이러한 기치 아래 단계적으로 내 이웃, 내 마을을 우선 돌보고 차츰차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은은한 달빛마냥 월야마을의 웃음과 행복을 세상에 스며들게끔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월야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우수한 점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문화, 복지, 여가활용에 대한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마을주민의 행복감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Anyone Edu-System 구축

‘Anyone Edu-System’이란 월야마을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형 프로그램에서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0~50년대 시대적 상황과 생활고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업과 노동에 투입되어 이제야 한글을 배우게 된 마을 어르신은 다음 날 예절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과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한국문화교실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던 해외이주여성이 다음 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어떠한 주제에 관계없이 돌아가며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며 서로서로 존중하며 가르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순환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존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토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주 2~3회 시행하고 있으며 한글, 문화, 한지공예, 농악, 난타, 영어, 컴퓨터, 정보화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상호간 소통과 교류의 증대로 인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역소의 현상의 해소

월야마을은 ‘농촌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월야마을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따른 역소외현상을 잘 알고 있는 마을이다. 소외계층에게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이 돌아갈 때, 평범한 가정의 농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다른 마을 사례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월야마을은 이러한 역소외를 겪는 주민들이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활성화된 여러 교육 및 복지 혜택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이나 음악교실 등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외계층, 역소외계층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월야마을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내 이웃, 내 마을 사람들이 유쾌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마을이 되고 자연스레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로써 도농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마을이 저절로 윤택해지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복한 마을, 즐길 줄 아는 마을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월야마을은 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한다.

다. 월야마을 활동 소개

행복한 월야마을로 가꾸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특색있는 활동은 월야 주민대학의 운영이다. 대학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민속음악 동아리, 의료지원 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월야 주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 이후 더욱 개편되고 확대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형 프로그램들은 주 2~3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정보화 교육이, 다문화 가정의 해외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및 예법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가정상담 프로그램,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교실, 독서교실, 학습 컨설팅, 영

화감상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Anyone Edu-System을 토대로 교양과목 개념의 운전면허, 한지공예, 목공예, 서예, 다도, 바둑, 요가, 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대학 내 민속음악 동아리인 ‘달빛문화예술단’의 활동지원, 주민대학 학생들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모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후 차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2. 결과와 성과

월야 주민대학의 운영으로 마을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주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매년 주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늘어 최초 50여명에서 시작하여 현재 100여명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대학이 제공하는 교육형 프로그램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의료봉사활동 또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후 3년이 지나 처음 마을 사업의 진행 목표대로 교육, 문화, 복지, 여가 등의 측면에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간 소통과 교류증진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르신들은 지난 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었던 배움에 대한 열망을 쏟아내며 마음 속 응어리를 풀었고 이제는 조심스레 운전면허시험과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이역만리 타국에서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루하루 애쓰는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情을 느끼며 점차 동화되어가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고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아동들은 방과후 영어, 독서, 체육, 음악 등 창의적 자기개발 활동에 열심이다. 민속음악 동아리인 달빛문화예술단은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나 관공서의 워크숍 등지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대학의 의료봉사활동은 지역 보건지소와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층, 장애인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증진 상담·치료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마을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참여유도, 운영방향 설정, 커뮤니티센터 부지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마을 발전을 이루고 싶었고 그 계기와 지원사업도 마련이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농림부와 지자체의 관계자, 민간 전문가, 전남 사무장 협회 등 각계 각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월야마을은 없었을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두 번, 세 번 발품을 파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확보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과 행정, 민간단체가 똘똘 뭉쳐 돌파구를 찾아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행복한 월야마을이 만들어졌다. 지난 3년간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니 마을의 자체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과 사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만큼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교육과 복지를 통해 마을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각 마을마다 특색을 갖추며 어느 마을은 소득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어느 마을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축제로의 발돋움, 어느 마을은 경관개선을 통한 예쁜 마을 꾸미기 등 농촌의 마을들이 곳곳에서 발전하고 있다. 타 마을에 비해 월야마을이 내세울 특색은 교육과 복지이다. 월야 주민대학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는 독

특한 교육 시스템은 자존감의 확립과 행복감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의료봉사활동, 환경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민대학 참여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에게 고루 의료나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졌다. 주민대학의 교육형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복지 활동들을 병행하게 되었고 마을은 점차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이 모든 것이 어렵게나마 그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도부터이다. 그 때는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 지도 몰랐고 그저 마을 발전에 고심하고 작은 여력이거나 마을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몇몇 인원이 알게 모르게 노력하던 때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 월야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장, 마을발전 행정관계자 등이 만나면서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이 만들어졌고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결국에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수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와 전통식품홍보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7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으로 친환경 주차장 8억, 보행로 조성 16억, 마을복지회관 정비 4억, 마을회관 리모델링 2억, 전통식품관을 포함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설 20여억 등 약 50억 원이 투입되었고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10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 등이 소요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월야마을추진위원회

대표자 이름 : 정기수 위원장

홈페이지 : <http://www.wolya.com/>

6.충북옥천_안남면 공동체 (교육 복지)

주민자치 1번지 안남-주민의 손으로 공동체의 싹을 틔우다

“주민들에게 안남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준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농교류센터:연주리 안남로 509)
- 인구 : 1,486명 / 762호 (2013.12월 옥천군청 자료명시)
- 면적 : 31.7km²
- 관련 사업 :

2011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다. 지역발전위원회(2013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로자부문 대통령상 수상)등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안남어머니학교, 배바우마을도서관, 무료 마을순환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주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안남면은 금강 대청호 상류에 자리 잡은 곳이다. 대청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약간의 수계기금을 받는데 각 마을은 수계기금의 일부를 면 발전을 위해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시작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에코빌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자치로 시작하였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안남면은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의 소득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안남면은 이미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나, 배바우장터, 배바우밥상, 배바우마을신문 등의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사업운영역량의 전문화 및 주민의 참여도 증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역량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먹을거리가 우리생활의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안남면은 금강 상류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청정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농가가 많다. 현재는 산수화권역사업을 통해 그 수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또 소비자와의 직거래와 농산물가공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안남면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전에 이미 자치활동(지역발전위원회, 대청호주민연대), 교육문화활동(어머니학교, 배바우작은도서관, 작은음악회), 경제활동(정보화마을 가공판매사업, 한살림/생협연대 직거래사업) 등 타 지역에 비해 마을공동활동 기반이 매우 우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키워드제목작성) (본문 8줄)

주민자치 1번지에 걸맞게

작은 면 큰 안남. 안남면을 일컫는 말 중 하나이다. 옥천군에서 규모면에서는 인구 1,486명의 제일 작은 면에 속하지만,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수계지역이라는 아픔을 기회로 삼아 주민들이 뚝뚝 뭉쳐서 안남면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활동하고 있다. 정부정책사업 이전에 '배바우작은도서관', '안남어머니학교' '무료마을순환버스'등을 통해 교육, 문화와 복지가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지역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배바우마을신문'은 마을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 마을기자인 것이다. 쉽지 않지만 주민의 작은 힘이 보태져서 매달 발행해 나가고 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남이 주민자치 1번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주민의 작은 손들이 모여 지역의 큰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모두 깊게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모두 주민의 손으로 일구기 시작한 것이다.

2. (두 번째 키워드제목작성) (본문 8줄)

친환경공동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안남은 친환경농업생산자모임이 조직되어 정보화마을, 옥천살림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옥천살림은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간식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산수화권역 사업을 통해 친환경분과를 조직해 '친환경농업대학'이라는 장을 마련했다. 꾸준히 친환경농업특강과 회의를 거쳐 친환경농업생산자조직 구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생협으로의 납품 등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로컬푸드를 매개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한다.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자는 의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키워드제목작성) (본문 8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차근차근 이룬다

'배바우밥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회원 수가 많지 않다. 단순한 홍보를 통해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컬푸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식구(食口)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와 공동체회복이라는 목표가 하나갈수록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실무자들 뿐 만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본연의 의도를 왜곡하지도 꾸미지도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추진위원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어느 선진지견학 사례의 마을대표가 한 말씀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느리게 함께 가야 한다고. 수월하지 않겠지만, 아니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함께 차근차근 지역을 살려가고자하는 모습이 희망적이다.

(결론 3줄) -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가능한지?연주리에서 친환경 토마토를 재배하고 현재 산수화권역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윤섭씨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이다. 서번트리더십에 가깝다고도 볼 수있다. 그는) 안남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보다 주민행복과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명의 가치인식이라고 했다. 주민이 행복해야 마을, 지역,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농업을 통해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가 정착하고 농업인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꿈꾼다.

다. 안남면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로컬푸드를 매개로 친환경농산물 기반시설 확충, 도농교류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를 추진 중이다. 현재 도농교류센터를 완공하고 역량강화사업에 주력했던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안남면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더들의 사업운영 능력강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선진사례견학 등 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 도농상생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옥천, 대전, 서울 등의 각 기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안남을 널리 알리고 있다.

로컬푸드를 위한 활동으로는 친환경농업대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전하고 생산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을 통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여성소농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시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학교를 통해 올바른 농촌·농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배바우장터를 열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둔주봉을 오르는 등산객과 안남면의 주민들이 모이는 정기적인 자리로 매김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마을소식을 실어 출향민 등에게 마을활동을 알리는 배바우마을신문이 벌써 35호까지 제작되었다. 이 밖에 다양한 활동들로 안남면을 살찌우는데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성상 많이 예산이 투입되므로 가시적인 하드웨어 부분의 성과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역량강화에 집중했다. 주민이 이 사업의 주체이고, 이 사업은 안남면 주민들을 위해 존립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과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다양해진 점이다. '배바우토요장터'는 매달 안남의 주민이 사고팔고 즐기는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또 둔주봉 등산객들도 안남면이 지나가는 길이 아닌, 정기장터를 운영하는 활기찬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배바우밥상'은 여성소농인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향토음식을 배워 반찬을 만들어 일자리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배바우마을신문'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창간했으나 주춤하던 차에 산수화권역사업을 기점으로 꾸준히 출간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35호를 출간하였는데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성과는 도농교류활동이 신뢰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농촌학교'는 단기적인 농업수확체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과 농업의 순환과 가치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옥천, 대전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농상생워크숍'은 서울의 주민자치회, 대전의 생협회원, 옥천의 다문화지원센터와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이고 다방면으로 교류를 맺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안남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준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남면이 잘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과이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안남면의 많은 사업들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권역사업으로 묶인 3개리(연주리, 도덕리, 청정리) 밖의 속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정부지원사업이 안남면 전체 일로 인식하는데 추진위원들은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어느 공동체가 갖고있는 고민이지만 주민참여를 더욱 끌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사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 하지만 뜬구름 같은 비전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실현가능한 일로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하겠다. 친환경공동체 산수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참여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옥천에서 금강을 거쳐 구불구불 길을 따라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남면에 들어서면 차분함과 여유가 느껴진다.

시골의 적막함과 다른 분위기이다. 입구에 청정마을표식과 배바우작은도서관이 먼저 눈에 띄는데 이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친환경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알게 된다. 더불어 ‘작은 먼 큰 안남’의 의미까지도. 요즘 지역의 개발사업 중에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일단 벌이다가 결국엔 폐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종종 볼 수 있다. 무척 안타깝다. 하지만 안남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목적인 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쉽 없이 움직이고 있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안남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13년까지는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산수화권역사업이 3년간의 1단계사업을 마쳤다(1단계 3년, 2단계 2년, 총 5년). 또 고민하고 논의하던 시기를 지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그 중 뜻이 맞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정착시킨 시간이다. 따라서 2014년, 2015년 2년간은 친환경공동체 안남을 다지는 일이 남았다. 본격적으로 친환경공동체를 궤도에 올려 우수공동체 사례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 관련 예산 (5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5년간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그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억 원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농교류센터 내 공동체험장, 숙박시설 등 시설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친환경지원시설, 경관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교육, 경영지원 등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주민자치 1번지 ‘안남’

대표자 이름 : 송 윤 섭

홈페이지 : <http://www.baebau.com>

1. 경기양평_수미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비즈니스 성공의 롤모델 수미마을

- 주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531
- 인구: 297명
- 면적: 16,695,100m²
- 관련 사업:

2006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작으로 편의시설지원사업, 물놀이 축제지원사업, 체험휴양마을 지정, 색깔 있는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주민중심으로 주민을 위해 고려되던 주민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물맑고 쌀이 많은 마을 그래서 수미마을이라 불렸지만,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오면서부터 마을의 인구는 줄고 경제 상황은 쇠퇴해 갔다. 그래서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원으로 마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같이, 다함께 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365일 계절별 공(公)정(正)축제를 열어 소득을 높인다.”

공(公)정(正)축제를란 대규모의 소비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주민중심, 방문객 중심의 소규모 문화체험을 진행,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은,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빙어축제로 1년 내내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많은 방문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365일 언제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한 철저한 전문협업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마을 기업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1. 방문한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본문 8줄)

2013년 11월말 165만명이 수미마을을 방문했다. 그러나 상시인력 92명으로는 165만명의 방문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더 오고싶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기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할 수 는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라색 팔토시의 주민에게 기분이 나빴다는 항의 글에 홈페이지 관리자는 부녀회분들의 미숙함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댓글을 금방 단다. 체험패키지 코스의 변동으로 인한 금액 차액 때문에 올린 항의글에 통화가 안된다며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는 댓글이 3~4개가 달렸다. 아마도 나중에 댓글을 확인한 방문객은 잠깐 언짢았던 기분이 다만 얼마간 풀리지 않았을까? 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로 채 6년만에 전국최고의 농촌체험마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컴플

레인이 있었을까? 작은 킴플레인부터 큰 킴플레인까지 수미마을은 방문한 분들 뿐 아니라 방문하려는 분들까지 최선을 다해 맞이하고 있다.

2. 365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본문 8줄)

봄에는 딸기축제, 여름에는 물놀이축제, 가을에는 수확축제, 겨울에는 빙어축제 양평의 르네상스 수미마을은 365일 계절별 축제가 열리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 또한 늦가을에 김장체험과 상시 운영하는 호빵만들기체험, 트랙터타고 마을 한바퀴, ATV 등 젊은 층, 또는 가족단위의 방문객 당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역시 매력적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캠핑장과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 *Kleine Garten* 역시 위치해 있다.

지하철로도 이동 할 수 있어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당일로 방문하기에도, 가족단위 1박2일 캠핑, 체험여행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 진 마을이라면 아마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리더의 열정, 아름다운 자연과 지자체의 관심으로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시너지효과로 탄생한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마을 수미마을은 365일 뜨겁다.

3. 여러 사업 주체가 협업하여 하나를 이룬다.

(본문 8줄)

수미마을은 철저하게 분업형태이다.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수미마을 영농조합법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황소의 땅’, 농촌관광과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주)광장’ 양평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의 주체인 ‘양평 나드리’가 만나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해결하고 인적자원과 대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내부적으로 찌빵을 만드는 ‘찌빵농가’, 캠핑장을 운영하는 ‘맛있는 캠핑’, ‘고소한 캠핑의 밤’, ‘먹거리하우스’는 부녀회가 운영하니 먹거리하우스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각 체험별 분업과 수수료 배분에 대한 협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체험마을 주식회사이다.

마을내부에서 모두 해결하고 진행 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협업을 통해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결론 3줄)

수미마을은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을 주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며,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65일 이어지는 체험 및 계절별 체험을 통해 재방문율을 높이고, 업무 분담 및 전문화된 주민들의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수미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수미마을은 철저한 분업형태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구성과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재방문율과 만족도를 높였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공장이 한곳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이 물이 서울의 식수로 제공된다고 한다. 수미마을은 물수 쌀미를 써서 물과 쌀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365일 축제마을, 4계절 항상 새로운 체험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선불제와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전국에서 규모가 제법은 체험마을로 성장하였다. 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상근인력 92명과 그 외 협업을 통한 수수료 등의 다양한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2. 결과와 성과(13줄) :

수미마을은 개별 체험보다는 당일 및 1박2일 도는 가족이나 단체객들을 위한 패키지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전예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봄에는 딱기농장 및 봄소풍, 여름에는 메기수렵패키지, 가을에는 농산물 수확패키지, 양평 김장여행, 김장나눔여행, 가을패키지, 자유여행권, 빙어채비, 수미마을 야간개장 등과 패키지 프로그램과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당일 여행이 많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캠핑장을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 하였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2월의 추천여행지 전국 6선, 2012년에는 (주)농심에서 후원하는 물맑은양평빙어축제를 지원하며, 수미칩을 가공하기 위한 감자를 전량 구매하기도 한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뽑은 여름휴양지 추천 9선, Rural-20 선정, 양평 지역만들기 사업 최우수상을 표창하였으며,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대통령상을 표창하였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사업초반 각 농가별 소득분배 및 농가별 체험인원 배분에 관한 문제, 농가별 수수료 비율이 달랐고, 인기있는 체험과 그렇지 않은 체험의 진행인원에 대한 농가별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귀촌인들이 들어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였고, 보통 3시간씩 회의를 진행, 감사회의의 경우 끝없이 치열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각각의 체험농가, 캠핑장 등의 전문화된 협업시스템 도입과 365일 끊이지 않는 체험프로그램으로 4계절 동안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축제발굴을 통해 점점 안정적인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일체험과 1박2일 체험 등 체류일정 별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거나 예약한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 하는 등 고객지향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개인이나, 농가가 아닌 마을전체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으며, 노력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7년 양평군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6년간 진행된 이야기이다. 지금과 같은 운영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까지 마을주민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를 반복하였다. 현재도 다음 계절, 다음시즌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5줄):

2007년 양평군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등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클라인 가르텐 1억8천4백만원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상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수미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이현기

홈페이지 : <http://soomyland.com>

2. 강원양양_해담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주민이 함께 일터를 만든 해담마을

- 주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016 해담마을
- 인구: 141명
- 면적: 7,780ha
- 관련 사업(2줄): 2008년 정보화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해담마을은 여느 농촌과 같이 총 가구 54세대, 인구 141명의 작은 농촌마을로 마을의 소득원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산, 강 그리고 바다까지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자원을 통해 지금껏 농사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왔던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으로 마을발전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해담마을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마을이 발전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마을을 교훈 삼아 끊임없는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혜택이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을의 휴양지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증가하게 되고, 마을의 소득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해담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진정한 마을공동체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 역량있는 지도자와 하나되는 마을이 되었다.(8줄)

현재의 해담마을이 있기까지는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며 오직 마을발전에만 전념했던 김영철 이장의 끊임없는 노고가 있었다. 그는 2004년 처음 해담마을의 이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두에 나서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2005년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시작으로 2008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등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찾기 위해 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다니며 꼼꼼히 정보를 파악하는가 하면 그에 따라 얻은 정보를 해담마을과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항상 고민해 왔다. 단순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마을주민들과 항상 논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화합의 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끝장토론을 주축하기도 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2. 마을이 마을주민의 일터가 되다.(8줄)

양양군 서쪽에 위치하며, 삼림이 울창하여 서림(西林)이라 명명됐던 해담마을은 산림이 97%나 되며 주변에는 정족산, 조침령, 점봉산, 조봉 등이 위치한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청정한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있는 해담마을은 뒤로는 푸른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고, 마을 안에는 맑고 깨끗한 계곡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이용하여 방갈로 8동으로 휴양지를 운영하면서 시작된 마을 사업은 현재 체험관 2동, 세미나실 1동, 체험장 2동, 방갈로 31동, 펜션 3동, 야영장 10,000㎡ 등의 마을종합휴양단지로 발전하였다. 마을종합휴양단지 운영은 해담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7개팀(숙박운영, 식사 및 펜션관리, 레저체험, 전통체험, 친환경쌀도정, 표고생산, 버섯너비아니팀)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해담영농조합법인은 마을주민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이며, 운영팀 또한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이 주민들의 새로운 일터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3.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다.(9줄)

해담마을은 방갈로 8동을 가지고 마을 휴양지로 시작한 곳이다. 방갈로 운영이 잘 되면서 숙박시설을 방갈로와 펜션, 야영장 등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숙박과 더불어 마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마을에서는 수륙양용차, 뗏목타기, 활쏘기, 은어잡기, 카약타기 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방문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을의 특별한 먹을거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마을에서 자체 생산한 표고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을 이용해 버섯너비아니를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또한 표고버섯 재배사에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버섯너비아니와 함께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도정을 통해서 학교급식과 인터넷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오토캠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 야영장을 확대하여 오토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 소득의 일부를 마을 자본금으로 남겨두며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4. 결론 (3줄)

해담마을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도자 아래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표를 만들었으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의 자산으로 가꾸었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해담마을 마을공동체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종합휴양지의 농촌관광사업과 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 창출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각종 마을사업 평가의 수상과 마을의 수익금을 지역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해담마을은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을의 54가구가 참여한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마을의 공동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신하여 1구좌 당 5만원씩 일괄 출자하여 해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담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산촌체험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해담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위원장, 총무, 개발위원장, 사무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아래 숙박운영, 단체식사, 레저체험, 전통체험, 친환경쌀도정, 표고생산, 버섯너비아니팀의 7개 전담부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전담부서의 운영인력은 연령에 관계없이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마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을의 기금 조성과 출자한 가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해담마을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자리 잡기까지는 마을 지도자의 발전목표와 추진의지를 믿고 지지해준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합을 바탕으로 해담마을은 안행부의 정보화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사업,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등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당초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농사만으로는 마을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을 휴양지와 방갈로 8동을 활용해 농촌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현재 타 마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마을방문객은 2012년 약 1만 2천명에 이르렀고, 마을의 체험수입, 숙박, 특산물외, 기타 수입 전체 매출은 2012년 5억 8천만원을 올렸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는 법인에 출자한 가구당 200만원씩 총 1억 8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해담마을은 2009년 전통테마마을 대상 수상, 2010년 정보화마을 대상 수상, 안전행정부의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3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어 명품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농촌마을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9줄)

마을 공동사업이 어려운 점은 마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해담마을 또한 마을의 공동자산을 활용하여 마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사업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을 자산이 올바르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이한 의견들을 마을주민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참여시킴으로써 마을의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 관리자

를 두어 일체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전자거래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해담마을 공동체의 배울 점은 무엇보다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해담마을은 마을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차례의 교육과 선진지견학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다른 마을에서 해담마을로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다른 마을에서 우수한 사례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마을의 승합차를 타고 다른 마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갈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 또한 배울점이다. 해담마을은 2009년 전통테마마을 대상, 2010년 정보화마을 대상,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마을의 수익금 일부를 양양군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의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5줄)

해담마을 사례는 1995년 마을 방갈로를 통해 마을휴양지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2005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에 선정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부터 해담마을은 공동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동의 일터를 가꾸고, 공동의 소득과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완료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관련 예산 (5줄)

해담마을은 2007년 농촌건강장수마을 1억 5천만원을 통해 전통체험관 건립을 하였고, 2008년 정보화마을 3억원을 통해 정보화교육장 조성, 새농어촌건설운동 5억원으로 통해 레저체험 및 부지구입을 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2억원으로 표고재배단지조성, 산촌생태마을 14억원을 통해 너비아니 공장신축 및 숙박시설 부지 정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황룡마을과 치래마을과 함께 구룡령권역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해담마을

대표자 이름 : 이상욱

홈페이지 : hd.invil.org

3. 강원평창_어름치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주민이 전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어름치 마을 주민 모두가 전문가 어름치마을

- 주소: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인구: 94명(남 48, 여46)
- 면적: 39ha
- 관련 사업:

2010년부터 마하생태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선정, 강원도)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마하리는 원래 동강 래프팅 출발지로 유명하다. 많을 때는 1일 1만 명 이상 방문하지만 마을에 소득 없이 쓰레기만 쌓이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래서 2009년 자연마을단위의 공동체로 묶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돈 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처음 공동체를 만들고 정했던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 하지만 건물 짓는 것과 같이 자본이 투자되는 것과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 모두가 조금씩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마을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마을이 가진 자연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익 창출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다. 처음 3년은 준비기간 최근 3년은 도입기간 향후 3년은 완성기간이다. 너무 많은 사업을 받아서 마을의 생태적인 것들을 파괴하거나 바꾸기 보다는 보호하고 가꾸는 방법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어름치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많은 주민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어름치마을만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물론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단한사람의 소외되는 주민 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1. 어름치 마을 전문가

(본문 8줄)

어름치 마을의 첫 번째 우수사례요인은 마을주민 스스로 발전하고 노력하여 주민모두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진취적인 리더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도 할 수 있었지만. 그에 반해 주민들이 움직여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 진행과 마을운영을 위해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총 7개 자격증을 28명(중복됨)이 보유하고 있다. 자격증으로는 백룡동굴 가이드 자격증, 숲 해설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체험지도사

자격증, 플라이 낚시체험 지도사 자격증, 동강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생태 해설사 자격증이다.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마을을 운영하여 매년 5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인이 아닌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가짐으로 생기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2. 으뜸치마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우리마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줄)

어름치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어름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 가장 큰 매력일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개발하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단적인 예로 어름치 마을에서는 다른마을과 차별화된 인플래터블 프로그램(래프팅), 백룡동굴 탐사, 전기 자전거 하이킹, 동강스카이라인, 스카이 점프, 동강 야간보트 탐사 등의 특수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이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어 동강 일대의 각종 토종어류를 관찰하고 생태학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치열하게 그리고 쿨하게

(본문 8줄)

어름치마을은 마을주민 100% 출자하여 법인을 구성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는 13명, 모든 사업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총회를 한번 더 거쳐 확정 짓는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장 표현 그대로 치열하게 회의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하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결정하기까지 치열하게 회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누구나 함께 한다는 원칙이다.

(결론 3줄)

어름치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의 발전이 아닌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과, 마을주민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 마을만의 프로그램으로 전국 유일의 생태마을을 탄생시킨 점이다.

다.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어름치마을은 주민전체 참여를 원칙으로 법인을 구성하였으며,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개발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어름치마을은 전문적인 지식없이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마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생태체험과 레저체험이 적절히 조화된 패키지 프로그램운영으로 활동적인 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하루 150명의 정도의 제한된 인원만 체험할 수 있는 백룡동굴탐사, 어두운 밤 금강의 맑은 물에서 사는 어름치 산란탐관찰체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전문 안전관리인을 동반하여 운영하는 동강 라이더/스카이점프, 전기 자전거를 통해 백룡동굴까지 가는 아름다운 동강 트래킹과 같은 레저생태체험프로그램은 어름치 마을 주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일 한정된 인원으로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은 꼭 지키도록 한다.

2. 결과와 성과(13줄)

어름치 마을은 2009년 마을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시간안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마을 내부적으로나 김정하 운영위원장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다만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마을주민 모두 함께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덧붙였다.

어름치 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공동선정 전국 10대 생태관광마을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적인 경관과 전통이 살아있는 Rural-20 선정, 최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1등급을 당당히 받았으며, 2013년 농촌마을 대상(농림축산식품부)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연 11억원의 소득창출과 2만5천명의 방문객, 약 50여명의 상근인력의 주민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교량이 없어 찬물을 직접 건너거나 섣다리를 이용해야 갈 수 있었던 오지(현재도 동강에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감자, 옥수수, 수수, 조 등의 영농활동과 동강의 어로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름치 마을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어름치 마을이 점점 발전하면서 법인체와 마을운영이 분리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은 전 이장(현 운영위원장)이 사업시작부터 운영까지 다 했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였고, 이장의 경우도 법인 운영과 분리되어 사업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장은 법인체 운영과 이장은 마을운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 100% 출자를 통하여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 지는 만큼 마을 회의를 통하여 사업 운영이나 전반에 걸친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언제나 함께였다. 아프리카 속담중에 “ 빠르게 가고 싶으면 혼자가고, 멀리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란 명언이 있다. 2008년 3월 자생적으로 출범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어름치마을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어름치마을은 생태관광모델마을로 선정되면서 많은 교육을 통해 현재와 같이 올 수 있었다 한다. 키워드는 “공유” 마을주민 중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마을이 꿈꾸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어렵더라도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자 한 것, 농촌마을이라 어르신들이 많아 잘 못알아 들으시지만 자꾸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이해시켜 드리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어름치마을인 마하리는 2000년대 초기 영월댐 건설이슈로 동강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세상에 그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세상에 드러냈다. 영월댐 건설로 인하여 물속에 잠길 운명이었던 마하리를 위해 당시 동강에 최초로 래프팅을 도입했던 김정하 운영위원장은 영월댐 반대백지화 운동에 앞장섰다. 어쩌면 어름치 마을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공동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날에 오기까지 인연의 연결 고리는 동강이었다.

6. 관련 예산 (5줄)

2010년 생태관광모델로 선정될 당시 마을의 전 가구(당시 32가구)가 가입하여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시작, 2010년 생태관광모델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사업비 2억원을 통해 마을공동체험물자 및 보관시설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영농활동과 체험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으로 마을공동부

지를 구입하고, 마을공동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어름치마을

대표자 이름 : 김정하

홈페이지 : www.mahari.kr

4. 강원 정선_개미들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열굴 마주하기로 일군 개미들 마을

“화투, 장기, 술한자의 일대일 만남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갔다.”

- 주소: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520-2(광락로 354)
- 인구: 91명
- 면적: 43ha
- 관련 사업:

2004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였다. 2007년에는 정보화 마을에 지정되었고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2002년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할 당시 마을상황은 마을회관을 지을 마을땅이 없어서 회관조차도 없는 오지마을이었다. 낙동리는 정선읍내로 나가는 버스가 아직도 하루 2회에 불과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오지마을이다. **마을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기 이전에는 공동체적 정서가 남아있던 마을이, 인구가 줄고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각박한 마을로 변모되어 있었다. 최법순대표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사람사는 냄새가 풍기는 마을조성을 위해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애초에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이 주요 목표였다. 2002년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마을 경제적 여건은 대단히 열악했는데,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고 농가부채가 많아 주변마을이나 사람들과 어울릴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2002년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가 26가구였는데, 서로 싸우기 바빴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로 공동체의 내부결속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마을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소득보장을 위해 농촌체험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목표는 고령화된 마을을 젊은 농촌마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과 자식들이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개미들마을은 산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농지가 좁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성화되었던 광구도 없어 소득수준이 대단히 낮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마을사업을 통해 현재는 연매출 10억원에 연간 방문객 4만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1. 주민과 적극적으로 만난 리더의 정성과 수고가 있었다.

(본문 8줄)

현재의 개미들마을이 있기까지에는 **최법순 대표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2002년 고향마을로 귀향한 후

2005년에 마을이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마을의 총재산이 26만원이었고 마을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6년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마을주민들을 다독여 농촌체험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초기에 마을주민들은 ‘뭐 볼게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겠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마을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쌓고 사업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화투놀이와 장기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나갔다. 2006년 처음 시작한 마을축제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도 좌절하지 않고, 2007년부터 마을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7개 학교가 마을로 수학여행을 오게되면서 성공적인 체험마을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새로운 젊은 공동체를 만든다

(본문 8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마을사업의 성공은 확신하기 어렵다. 개미들마을은 고령화된 마을을 젊은 농촌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귀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초기에 마을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5명 정도인데, 젊은 층은 자기 일을 하기 바빠서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대표님과 함께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8년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인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업초기 26가구에서 41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났다. 즉 15가구를 귀농귀촌으로 받아들였는데, 모두가 50대 미만의 젊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귀촌학교를 운영중인데, 귀촌하려면 마을에서 3개월을 마을주민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최소비용만 받고 있고 3개월 후 자신이 귀촌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3. 적정소득 보장과 투명한 회계

(본문 8줄)

최범순 대표가 생각하는 마을개발사업의 최대의 애로사항은 마을의 리더들에게 조건없는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마을사업의 책임을 지게되는 리더들은 마을사업 수행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살필 수 없게 되고, 결국 마을은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리더들은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지속적인 마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미들마을은 마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10%를 법인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연간 75일을 하면 평균 1,7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분배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직원이 4명, 정보화마을 사무장이 1명인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 영월군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를 한 명 고용하고 있는데, 회계사는 매우 금요일 마을을 방문하여 회계처리를 해주고 있고, 매달 60만원을 기장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결론 3줄)

개미들마을이 가진 격오지로서의 특성은 농촌체험마을로서 성장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이 조건을 사업화하는데 마을리더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귀촌인력을 통한 젊은 농촌마을로의 탈바꿈, 적정소득 보장과 투명한 회계집행이 개미들마을을 우수마을로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다. 개미들마을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사업이 시작되었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현재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필요한 사업인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귀촌정책을 펼쳐 적정가구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2004년도에 시작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낙후 마을들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미들마을의 경우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마을소유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마을개발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정보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보조금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프라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2007년 서울지역의 교육청과 여행사, 학교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시작하였고, 급식담당자도 불러서 매년 5회 정도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07년에 서울 강남 3구의 7개학교가 농촌체험을 테마로 한 수학여행을 개미들마을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수행 인력 확보를 위해 3개월 코스로 귀촌학교를 운영하였고, 귀촌학교를 통해 15 가구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마을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결과와 성과(13줄)

마을에 거주하는 48가구가 모여서 영농조합 법인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운영 및 수익분배 방식은 협동조합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는 마을 이장과 법인대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는 이익금의 10%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경우 연간 최소 50일 이상을 마을사업에 참여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하를 참여한 주민들의 경우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41 가구인 가구수를 2015년까지 5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50가구를 최종 목표로 하는 이유는 가구당 1명씩 마을사업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17명을 한 조로 4개조를 만들려면 50가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0가구가 달성되면 더 이상의 귀촌인구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법인 수익의 5%를 마을에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마을기금으로 공동화장실 수리, 마을회관 수리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정선군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정선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잔치를 개최하는 등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대표를 포함하면 총 6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마을사업 초기 대부분의 마을에서 겪는 것처럼, 개미들마을의 주민들도 마을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일반적 농촌 마을 주민들을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대일 만남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갔다. 먼저 시도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마을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주민들이 인식한 뒤에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마을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그간 마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보통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주민간 분열 등이 개미들마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사업의 리더인 최법순 대표가 마을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것이 바로 봉사정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마을의 리더가 사심을 내세우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귀촌인구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귀촌교육과 주택임대를 마을에서 진행했다는 점도 여타의 마을과 다른 점으로 눈여겨 볼 대목이다. 3개월의 귀촌교육기간을 최소비용으로 받을수 있다. 마을이 선 구매한 토지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수 있다. 귀촌자의 초기비용을 줄여주고 마을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젊을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한명 한명을 설득하는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 얼굴을 마주하는 장소는 어디든 함께 했다. 장기 판이든 화투판이든 술자리든 주민들을 한명 한명 만나고 그들 모두가 기억하는 살기좋은 마을들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나누는 일이 마을사업보다 앞서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마을 주민의 의식에 기반한 마을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4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마을사업은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정보화마을에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보조금 사업과 별도로 2007년부터 마을 마케팅이 시작되었고, 귀촌학교를 운영하여 15 가구가 마을에 정착하였다.

6. 관련 예산 (5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5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안행부 정보화마을 2억원, 농촌종합개발사업 43억원

라. 연락처

조직명 : 개미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최법순

홈페이지 : <http://ant.invil.org>

5 전남보성_봉천메주익는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할머니들의 일터를 만든 봉천마을

-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당촌길 8
- 인구: 110세대 219명(남:107, 여:112)
- 면적: 0.7km²
- 관련 사업: 2011 농촌여성일자리사업, 2013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봉천 메주익는 마을은 2011년 10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마을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3년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지역내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성군으로 귀농한 비봉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귀농한 마을에 애착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마을내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타지역이나 인근 마을로 품팔이를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마을내에서 취약계층의 인력을 소요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황토 메주방’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금의 ‘봉천 메주익는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2011년 10월에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마을개발이 시작된 봉천 메주익는 마을의 목표는 처음 설립 목표 그대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근로여건의 보장이다.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인력을 활용한 농촌마을의 경제활성화는 일자리의 창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귀농·귀촌의 활성화, 협동과 상생의 문화 정착의 길로 향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봉천 메주익는 마을은 보성군 복내면 봉천리의 당촌마을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6차 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면 단위, 군 단위, 도 단위로 확대하여 농촌마을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생각이며 경제활성화 측면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기부활동, 귀농·귀촌 장려활동, 도농교류 촉진활동 등을 펼쳐 궁극적으로는 농촌재생에 보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서론—

봉천 메주익는 마을은 마을내 유희시설과 취약계층의 비생산적인 두 가지 측면이 만나 생산적이고 건실한 마을 발전을 이룩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년간 방치해둔 황토 메주방의 재활용과 노인, 농촌이주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력 운용은 마을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화합과 소통의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 농촌내 유희공간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봉천 메주익는 마을에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관리인력의 부재로 유희공간, 유희시설이 존재했다. 마을의 '황토 메주방'이라고 하는 메주 가공 시설과 유희 경작지가 그것이다. 메주방 인근의 부지나 시설 모두 지금의 봉천 메주익는 마을이 되기 6년 전부터 방치되다시피 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정작 이 메주방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마을내 인원들은 메주방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지역으로 품팔이를 나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안을 마을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게 되었고 마을 이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황토 메주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의 사용 장려가 아닌 장류가공 마을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장운영과 원료생산을 위해 200명 남짓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40-50명 정도의 인력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오로지 마을이 보유한 자원만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적, 주체적 장류가공 마을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믿고 먹을 수 있는 장류식품 생산

봉천 메주익는 마을 구성원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데에 있어 자부심이 있다. 지리적 여건상 광주광역시외의 식수원인 주암호가 위치하고 있어 농약사용을 일절 금한 친환경 유기농 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력제를 도입하여 재배자, 구입자, 거래처 등을 모두 기재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마을에서 가공하는 장류는 모두 전통방식을 고수하여 개량식 장류에 비할 수 없는 정성을 쏟아 붓고 있으며 주암호의 1급 청정수를 사용하여 맛과 영양 또한 우수한 장류식품을 생산한다. 이는 '내 가족이 먹을 식품'이라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만큼 마을의 구성원들 모두가 생산자로서 고객을 중요시하고 있고 고객에게 당당할 수 있는 측면이다.

3. 협동과 상생, 신뢰의 문화 정착

유희 경작지와 유희 시설인 황토 메주방을 활용하여 마을이 장류가공마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마을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의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만 얻은 것은 아니다. 마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요하고 적막했던 마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고 원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생산해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을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 협동과 상생, 신뢰의 마을문화가 형성된 것은 무엇보다 값지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장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 이외에도 마을내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마을 단위로 합심하여 봉사 및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측면은 높게 살만하다. 이전에는 마을의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내 이웃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며 주민간 왕래가 잦아졌고 마을의 경관개선활동, 봉사활동, 모금활동 등 마을단위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동반자적 관계가 마을단위로 형성된 것이다.

-결론-

봉천 메주익는 마을은 농촌의 유희 시설과 유희 경작지의 재생적 활용, 마을내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마을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안정적 근로여건의 조성, 마을의 경제활성화, 도농교류의 증대를 촉진하였으며 향후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합한 6차 산업으로의 진입, 타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네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 봉천 메주익는 마을 활동 소개

봉천 메주익는 마을은 단순히 원료를 가공하여 장류를 생산해내는 활동뿐만 아니라 원료의 생산과 가공, 홍보, 유통 등 장류사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마케팅 과정을 마을 자체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마을 환경 미화 활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 및 기부활동,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봉천 메주익는 마을의 목적은 마을의 활성화에 있다. 그 대안이 메주가공공장의 운영이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마을 발전이 최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된 것이다. 장류의 원료가 되는 콩의 재배에서부터 장류로의 가공, 포장, 유통 등 장류사업 전 과정을 마을내 자원과 역량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가공된 장류식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는가 하면 마을 구성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도 하고 가공공장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의 마을 활성화 측면의 다양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귀농한 가구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마을문화에 잘 적응하고 정착이 용이하도록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 인원의 약 30%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기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이 같은 마을 구성원간 단합을 토대로 마을 경관개선활동, 마을 축제, 경조사 참여 등의 마을 단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

봉천 메주익는 마을을 이끄는 비봉영농조합법인은 대표 1인, 운영위원장 1인, 정관심의위원장 1인, 심의위원 6인, 감사 2인, 작업팀장 1인, 사무장 1인 등의 이사진과 조합원 43명으로 구성된 법인체이다.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10여명 정도 늘었으며 그만큼 일자리의 창출도, 장류식품의 생산량도 늘어났다. 최초 사업이 시행되던 해인 2011년에는 메주의 가공에 필요한 원료인 콩을 27가마 소요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12년에 127가마, 2013년에 200가마가 소요되었고 2014년 350가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도 늘어 2012년 약 5,000만원에서 2013년 약 7,000만원으로 수익금이 증대되었으며 원료 생산에 필요한 부지 약 450평을 매입하였고 자체 수익금으로 시간당 평균 4,000원의 인건비도 지체 없이 지급하는 등 마을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마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판매 및 유통, 고객응대, 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 등 상시근로인원이 필요한 실정에서 일자리창출, 농촌소득 개발의 성공적 모델로 인정되어 2013년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 5명의 일자리와 1,500만원의 사업개발비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근 마을이나 타 지역과의 교류도 증대되었다. 보성군 내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강진, 순창, 완주, 순천, 전주, 나주 등지에서 농촌 활성화와 농촌 소득 창출의 표본으로 삼고 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해 많은 방문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처음 마을활성화 과정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주민들의 텃세가 다소 존재했다. 비봉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귀농한 경우로 보성군이 고향이었지만 출생마을은 아니었고 때문에 마을내에서는 연고가 없어 주민들은 그녀를 외지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서울에서 고시학원을 운영하다 내려와 농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여 원료의 생산과 선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 전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텃세를 부리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민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주민들의 참여 이외에도 브랜드의 개발, 판로의 확보, 홍보.마케팅 방안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한 행정적 지원과 자문, 컨설팅이 이루어지며 해결할 수 있었다. 마을 구성원들의 연령층이 높다보니 초창기에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실수도 잦았으나 차츰차츰 체계가 잡혔고 시간이 흘러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전에 데면데면했던 사이도 이제는 메주

익는 마을의 구성원이 되어 마을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농촌의 유희자원에 대한 활성화와 적극적인 활용이다. 봉천마을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유희 경작지를 늘리게 되었고 마을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졌다. 이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유희 경작지와 시설을 취약계층의 유희 인적 자원과 타마을로 유출되는 인력이 운영하게끔 한 것이다. 메주를 가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원료의 수급이다. 이 원료가 되는 콩을 유희 경작지에서 유희 인적자원의 노동력으로 재배한다. 이렇게 재배된 콩을 또 다시 마을내 유희 인적자원을 통해 가공하고 판매한다. 장류식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일정부분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고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마을경제가 활성화되며 더불어 마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현재 마을 사업이 2차 산업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계획 대로 3차 산업, 6차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또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파급효과가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타마을, 타지역에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이야기가 처음 진행된 시기는 2011년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의에서였다. 약 1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마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에서 봉천 메주익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비봉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귀농한 비봉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봉천마을에 무언가 보탬이 되고자 하였고 이는 봉천마을에 대한 애착심의 발로였다. 그녀 이외에도 늘 마을 발전에 고심하고 있던 봉천리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열성으로 비봉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며 계속 발전 중에 있다.

6. 관련 예산

2011년 농촌여성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 예산은 유희시설이던 황토 메주방을 리모델링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정으로 운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용으로 소요되었다. 장류 가공을 위한 가마솥, 메주를 말리는데 필요한 선반의 제작, 장류보관용기인 숨쉬는 항아리, 생산·가공된 장류를 포장할 수 있는 실링기, 홍보·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및 홈페이지 개발 등 대부분이 물품구입에 사용되었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구입과 파종용 씨앗 구입, 사무실 운영비, 초기 인건비 등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4,050만원으로 충당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비봉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이재청

홈페이지 : <http://www.bcmeju.co.kr/>

6. 경남 남해_해바리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지역의 오랜 자원을 체험으로 바꾼 해바리마을

- 주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91
- 인구: 161명(2013년 기준)
- 면적: 63ha
- 관련 사업:

2004년 전통테마마을(농진청) 사업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농촌의 쇠퇴는 남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가 떠나버린 농촌마을에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강진만 청정해역과 갯벌, 유자농원과 편백림, 그리고 눈썹바위의 전설,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길 등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해바리마을의 가장 큰 목표는 공동체 유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대부분의 농촌처럼 해바리마을도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공동체의 기반 역시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세대의 귀촌이나 이주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해바리마을은 도농교류 사업과 농촌관광 활동을 위해 주민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방문객과 마을주민을 위한 경관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산물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해바리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해바리마을은 전통테마마을 사업준비단계부터 이끌어간 양명용위원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나는 팔고 하나는 버리기운동, , 해바리체험 등의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운영방식을 통해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하나는 팔고 하나는 버리기운동을 전개하다.

(본문 8줄)

해바리 마을은 마을주민들의 의식을 변화하기 위하여‘하나는 팔고 하나 버리기’운동을 진행한다. 이 운동에서 팔고는 ‘서비스’를 판다는 뜻이다. 방문객에게 3감동(감탄, 감명,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을의 이미지 개선과 마을에서 생산된 먹거리까지 사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버리기는 ‘욕심’을 버리자 이다. 우리집의 조금의 소득을 위해 마을 전체의 화합과 조화를 깨는 운영이 없도록 하고자 함으로 우리집에 한명이라도 더 많은 방문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마을의 성패를 보지않아도 뻔한 결과인 것이다. 이 때문에 방문객이 생활할 민박집의 경우 순

번제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운영 역시 순서를 정하여 진행한다.

2. 오래된 농업유산을 지원화하다.

(본문 8줄)

두 번째 요인은 차별화된 체험거리와 패키지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다. 해바리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가족단위의 주말 방문객 위주로 운영된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된 체험과 기간별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정착시켰다.

해바리마을의 자랑인 해바리체험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유년기시절 생계를 목적으로 한밤중에 홧불들고 갯벌에서 생물을 잡는 어로행위를 체험화 한 것이다. 당시 찾아보기 힘들었던 야간 체험프로그램은 방문객의 궁금증을 크게 높였고, 갯벌과 바다, 유자농장 과 편백림, 해안도로 등 다양한 마을 자원을 결합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찍부터 1박 2일 / 2박 3일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패키지 프로그램의 발달은,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마을에는 높은 객단가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 성공적인 체험마을 기반을 만들 수 있다.

3. 마을 공동체는 모두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

(본문 8줄)

도시민들은 왜 농촌을 찾을까? 우리마을로 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것인가? 해바리마을 주민들은 저녁마다 회관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숙박과 식사 그리고 평균 4가지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부녀회원들은 민박과 함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골밥상으로, 노인과 청년들은 경운기체험과 선상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 하게 된다.

체험마을 운영이 일부 집행부가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역량과 서비스수준이 향상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올라간다. 또한 소득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체험거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결론 3줄)

해바리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이끌어 가는 리더는 끊임 없는 학습과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의 일관되게 추진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해바리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남해군농업기술센터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는 경험을 바탕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중심마을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해바리마을의 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 2년간 2억을 지원받았으며, 이 사업을 통해 오래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도농교류 공간으로 만들었고,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역량

을 키울 수 있었으며, 2년간의 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 부터는 해바리마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 마을 자체적으로 '해바리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해준 해바리마을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고속도로마다 마을 리플렛을 비치하며 마을 홍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요청 결과 언론/방송 매체를 통해 마을이 알려지면서 체험마을로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방문객 만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이어져다. '하나 버리고, 하나 팔기'운동을 통해 욕심은 버리고 서비스를 파는 주민들의 일치된 노력은, 방문객들의 감동으로 이어졌으며, 방문객의 만족은 결국 최고의 마케팅 수단인 '구전효과'를 통해 재방문과 신규 고객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해변과 바다, 마을(리)'이란 의미를 가진 '해바리'란 브랜드로 시작한 공동체사업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하였고, 한번 방문한 방문객에게는 정이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체험마을로 발전하다.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연간 40만명에 육박하며, 해마다 만여명이 넘는 방문객과 함께 3억 이상의 마을 소득이 발생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농가민박에 25가구가 참여하고, 선상체험에는 15가구가, 경운기트레킹에는 10가구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300백만원의 평균소득, 최대 900여만의 농업 외 소득을 올렸으며, 마을 공동기금으로도 연 평균 1,000만원씩 적립하여 마을의 취약계층과 공동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리더와 주민들이 부단한 노력이 알려지며, KBS '6시 내고향'의 백년가약 사업에 해바리마을이 70호제로 선정돼 5,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공동숙소 2동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제 8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상과 함께 6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제 5회 도농교류대상' 마을부문 동상을, 2012년에는 '제 1회 농촌자원사업 경진대회' 전통테마마을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농촌관광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인식전환이었다.

평생 농업과 어업으로 생활하던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체사업을 통한 농촌관광활동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또한 본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공간들을 도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온 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 지정되기 전까지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녁마다 회관에 모여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바리마을의 운영체계를 조직화하고 업무 분담도 이루어지며 소득의 분배방법도 논의되었다. 다양한 체험거리도 논의하였는데, 해바리마을을 알리게 된 '해바리 체험'역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해바리마을의 오래된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해바리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마을주민 모두 함께 한다는 기본기준을 통하여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마을의 장점을 찾고,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최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해바리마을의 주변 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해바리 마을의 노하우를 연결하고, 옆 마을의 대표자원을 연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해바리마을은 2004년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동체사업이 진행되었다. 방문객을 위한 쉼터 하나 없던 곳에 오직 주민들의 희생과 참여로 시작된 공동체 사업은 점차 체험관이 조성되고, 파고라가 설치되었으며, 민박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한정된 자원으로 조금 불편했던 편의시설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5줄)

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진청 : 2004년~2005년)

민박품질향상사업 (농진청 : 2007, 09, 10, 11, 13)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농림부 : 2012~2016)

라. 연락처

조직명 : 해바리마을

대표자 이름 : 양명용

홈페이지 : <http://haebari.go2vil.org/>

7. 새둥지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자연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새로운 등지! 새둥지마을

- 주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68
- 인구: 93명(56가구)
- 면적: 전 54ha, 답 33ha, 산림 270ha
- 관련 사업:

새둥지마을은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마을리더와 주민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리더와 주민들은 2005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희망심기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경기희망심기프로그램은 시설 투자지원이 아닌 순수하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 사업이었다. 마을개발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기희망심기프로그램의 목표는 3~4명의 마을리더그룹 육성과 주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리더와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경기도 연천군 구미리는 경기북부지역의 마을 중에서도 마을 둔덕만 올라도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접경기역마을이다. 2005년 당시 마을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마을에서 농사만 짓고 살면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희망심기프로그램에서 마을주민 모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마을리더와 주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개발계획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마을리더는 마을리더대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함양에 힘썼으며, 마을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열심이었다. 그 결과 마을현황분석에서 마을개발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가 만들어준 컨설팅 보고서가 휴지조각에 그쳤다면, '마을리더와 주민들이 함께 만든 우리마을사업계획'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것이기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 새둥지마을은 2005년 마련한 계획을 해마다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새동지마을은 전국 최초로 농촌교육농장교사양성과정의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마을주민 10여명은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마을회관에 모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1.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자.

(본문 8줄)

첫 번째 요인은 마을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농촌교육농장교사양성과정은 20여개의 마을에게 똑같이 부여된 기회였다. 그러나 다른 여러 마을들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른 마을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들은 새동지 마을에도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새동지 마을이 다른 마을들에서 찾기 힘들었던 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을주민 모두 주인의식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였다. 그래서 70세가 훨씬 넘으신 노인회장님도 마을의 역사와 지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교육농장 교사가 될 수 있었다.

2.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가자.

(본문 8줄)

두 번째 요인은 성급하게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 없이 건물을 짓기보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리대로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갔다는 것이다.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체험장을 당해 연도 지어야 하는데도 건물 짓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마을리더는 부지문제와 운영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민들의 운영 역량 강화에 힘썼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영실습도 하면서 마을주민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준비된 마을이라는 판단을 하여 접경지역개발사업을 마을에 지원해 주었고 숙박, 식당, 교육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8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비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데 사용하였다.

3. 멀리보고 함께 더불어 가자.

(본문 8줄)

세 번째 요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득과 실을 따지기보다 주민 모두가 공동의 목표에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서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책임과 연대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회노애락을 함께하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공동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업초기에 마을운영규약을 만들었다. 마을주민이 함께 모여 늦은 밤까지 의논하면서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다듬어간 운영규약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도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만든 규약이었기에 이를 지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몇 년이 지나 새동지마을을 방문해도 마을주민들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따스한 동료애를 나누고 있었다.

(결론 3줄)

새동지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마을리더와 마을주민 모두가 학습과 성장에 열심이었으며 서로 합심하여 스스로 만든 마을개발계획을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갔고, 그 결과 꾸준히 연매출 40% 성장을 이루었으며, 더불어 사는 삶의 보람과 행복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새동지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매주 아파트 단지 내 직판장을 여는 활동에서 출발한 도농교류활동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법씨에서 밥알까지 프로젝트’, ‘논에서 배우는 수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학생들이 연중 마을을 방문하도록 하였고, 이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학교 운동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주어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하루 1000만 원 이상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새동지마을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서울 잠전초등학교, 서울 중계본동,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대우인터내셔널, 빈동초등학교 등 다양한 단체 기관과 지속적인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마을 농산물 직거래 기반을 확보해 갔다. 또한 전국최초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사업을 추진하여 5도2촌을 실현하는 마을의 모델로 발전하였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적극적이었던 새동지마을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농촌체험마을로 성장 발전해 가면서 쌀, 콩, 고추, 한우, 말 등을 테마로 한 농촌체험교재를 만들어 경기도 팜스테이마을에 보급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협의 ‘식사랑 농사랑 운동’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20개의 작목에 대한 식교육 운영매뉴얼과 레시피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식교육전문농장, 주부농산물체험구매단, 어린이 체험서포터즈, 향토음식마을, 교육부와의 MOU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현재 새동지 마을은 농협의 ‘식사랑 농사랑 운동’의 핵심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식교육 전문농장 1호점으로 선정되어 우리농산물이 식이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일에 열심이다.

2. 결과와 성과(13줄)

연천 새동지마을은 농촌체험관광의 불모지인 연천에서 처음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또한 연천군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지만 10년간의 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마을로 성장하였다. 2006년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 2007년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상, 2008년 도농교류 정부포상, 2012년 팜스테이마을 대상, 마을개발부문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연간 2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하였다. 또한 연간 1,000~2,000명 정도 전국의 마을지도자들이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새동지마을은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팜스테이마을 지정, 2005년 구미리 체육공원조성, 2006년 12월 체험교육관 준공, 2007년 전국최초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 2008년 체험교육관 진입도로확포장, 2008년 연천군 농촌관광네트워크 구축, 2009년 물놀이 체험장 조성, 2011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 2012년 식교육 전문농장 1호점지정, 2013년 식교육 체험장 준공, 2013년 우수체험공간지정, 2008년~2013년 대산농촌문화재단 가족사랑 농촌체험마을선정, 2012년~2013년 도농교류 협력사업유치, 2013년 체험형파머스마켓 조성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탄한 농촌체험마을로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마을 가꾸기 활동이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장기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요구하기에 마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새동지마을은 2005년 한 해 동안 경기희망심기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과 프로그램개발 등을 마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다. 마을대표는 자기의 농업활동을 뒤로 한 채 마을일이 가장 중심이 되어 일을 하다 보니 마을은 발전하지만 개인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마을주민이 단합하여 마을대표가 추진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힘이 되기는 하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개발운영이 가능하려면 마을대

표의 희생에 기대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별농가의 발전과 개별농가경영체들의 연대가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새둥지마을은 마을리더와 마을주민이 시설 투자에 우선하여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학습의 과정을 거쳐 성장 발전한 마을이다. 배우고 익힌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새둥지마을은 일찍부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학습의 공간으로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무게를 두고 활동하면서 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농업농촌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즐거운 배움터에서 학생, 소비자,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나가며, 이를 통해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되어 교육, 문화,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촌이 잘사는 곳으로 바뀌어 가길 희망한다. 농업농촌이 미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 아래 새둥지마을주민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천 새둥지마을에는 선진지 견학을 오는 지역민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큰 공을 세운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마을리더 김탁순 운영위원장은 여기 저기 강의 초청을 받아 사례발표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다. 2005년 시작된 새둥지 마을의 변화와 괄목할만한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6. 관련 예산 (5줄)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2005 경기희망심기프로그램 / 2006년 체험교육관 준공 / 2007년 체재형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조성사업 / 2008년 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2009년 다목적체험장, 마을농산물 포장지지원 / 2012년 식교육전문농장지정 및 식교육체험장조성 / 2013년 체험형파머스마켓 조성사업.

라. 연락처

조직명 : 연천 새둥지마을

대표자 이름 : 김탁순

홈페이지 : www.gumiri.com

8. 전북진안_와룡마을 (경제활성화)

제목: 잃어버린 고향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와룡마을

- 주소: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230-1
- 인구: 42명 (2012년 기준)
- 면적: 전 23ha, 답 2ha, 임야 18ha
- 관련 사업:
 - 2003년 완주군의 으뜸마을 가꾸기,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와룡마을은 용담댐 건설로 마을 전체가 수장된 신정마을과 원와룡마을의 10여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1996년 현재의 와룡마을에 이주를 하면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했지만, 변변히 농사 지을 땅도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사업에 눈을 뜨면서 2003년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지을 품목을 찾고 공동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을 달랠 여유도 없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걱정이 막막했던 와룡마을은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공동체사업 발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0여 가구밖에 없는 농가수, 부족한 농지, 불편한 교통 등 불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하나로 뚝뚝 뚝쳐 마을 농특산물 공동판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10년의 세월을 넘겨 마을사업을 진행되면서 사업유형은 단순농산물판매, 농산물가공품판매, 농촌마을체험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마을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이 유입되어 마을주민(21가구 42명) 늘어난 이후에도 공동사업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와룡마을은 강주현 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신규로 조성된 와룡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을 도입하여 특산물 재배단지를 만들어 공동생산을 시작했고 ‘좋은 동네’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판매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20 여개의 산촌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을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 마을공동사업을 이끌기 위한 리더의 노력

용담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되면서 원주민 100여 가구에 이르는 원주민들 대부분은 고향을 등지고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다. 마땅히 떠날 곳을 정하지 못한 10여 가구는 댐 상류에 위치한 와룡마을에 터전을 잡았으

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따름이었다. 시름에 빠져있는 와룡마을이 살아갈 길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이웃사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일이라고는 생각한 강주현 대표는 3년여의 시간동안 마을회의를 통해 와룡마을 발전5개년 계획을 마을회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묵묵히 수행하였으며, 성공적인 공동체사업을 끌여가기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며 마을전체가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여 변화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덕목을 발휘하였다

2.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사업

마을 전체 가구가 12가구 밖에 되지 않은 와룡마을은 마을이 합쳐진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되었다. 사업초기 마을에서 채취되는 산초와 더덕, 산나물 등 임산물을 각자 판매하다 보니 제 값을 받기도 어렵고 판로개척도 어렵다는 것을 공감한 마을주민들은 공동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마을 공동특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인삼, 고추, 콩, 도라지 등을 공동재배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마을기금을 공동투자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을 도입하여 5개 품목에 20여종의 가공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면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배분을 통해 와룡마을 가구당 연간 6백만원 이상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3.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을사업

와룡마을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마을이다. 2003년 농산물 공동판매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주민들이 이제는 무엇인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농산물 공동판매사업과 가공사업의 성공은 와룡마을이 산골의 특성을 살린 도시민 유치 를 위한 산촌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을전문대와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20여 개의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한 와룡마을은 2006년 8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한 이후 지속적 성장하여 연간 방문객 8,000명, 연 매출 4억원을 올리는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퍼져 나가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생겨나면서 마을의 가구 수도 21가구 4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결론

와룡마을은 수몰로 인해 사라져 가는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소득원을 창출하였으며,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농촌마을에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 와룡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용담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와룡마을은 진안군으로부터 으뜸마을로 지정받은 이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시하여 공동판매, 공동재배단지조성,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장기간에 걸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변변한 농사지를 땅도 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와룡마을은 공동체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채취되는 임산물을 공동판매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12가구 밖에 되지 않은 와룡마을 이 함께 모일 때에 비로서 제 값을 주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마을 공동판매사업은 이후 마을공동 특산물 재배단지를 만들어 마을의 공동농산물 생산과 가공사업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 가공판매사업을 위해 좋은동네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후 와룡마을은 보다 나은 수익과 살기 좋은 와룡마을을 만들기 위해 와룡마을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산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2. 결과와 성과

마을공동 특산물 재배단지 2.5ha를 조성한 와룡마을은 마을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규모 가공사업을 통해 5개 품목, 20여종의 가공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도입된 산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천문대, 공동숙박시설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실질적인 공동소득원을 제공하여 연간 방문객 8,000명, 연매출 4억원에 창출하는 살기좋은 와룡마을로 탈바꿈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몰로 인해 12가구가 이주해서 어렵게 일구어 낸 마을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마을에 유입될 수 있게 하여 21가구로 늘어날 수 있게 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살기좋은 마을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용담댐 건설로 인해 고향마을이 수몰되어 변변한 농사 지을 땅조차 없이 이주하게 된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탈피하는 것이었다. 새로 조성된 와룡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을 설득하여 공동판매에 참여시키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으뜸마을지정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은 주요한 단초가 되었으며, 공동판매의 작은 성공은 마을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농산물가공산업, 산촌체험마을운영 등 마을공동사업은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농산물 공동판매에서 시작한 와룡마을의 공동체사업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인 도전을 해 온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 전원참여 수익금 공동배분의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진통은 있었지만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간의 약속을 문서화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와룡마을은 2003년 진안군 으뜸마을로 지정된 이후 공동체사업의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채취농산물 공동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6년 산촌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연간방문객 8,000명, 매출액 4억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루었다. 와룡마을은 이제 또다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2003년 완주군 으뜸마을 가꾸기와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대표자 이름 : 강주환

홈페이지 : goodvillage.kr

라. 연락처

조직명 : 좋은동네영농조합법인

9. 충남공주_소랭이마을(경제활성화)

제목: 자연과 농촌의 가치를 전달하는 열린 교육의 공간, 소랭이마을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외 4개리 (월산리, 대산리,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 인구: 542세대, 1,266명 (65세 이상 노령인구 375명)
- 면적: 3,631ha (농경지 438ha, 대지 40ha, 임야 2,982ha, 기타 171ha)
- 관련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9년, 농림수산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2013, 공주시), 농어촌우수축제(2012-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인성학교(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2008년 소랭이마을의 월산초등학교가 59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다. 늘 가까이에서 추억을 회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공간을 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안타까움에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학교를 임대하게 되었고, 오롯이 마을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학교를 마을 주민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한 생각으로부터 마을사업이 시작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소랭이마을은 주민들이 임대한 월산초등학교를 ‘소랭이활성화센터’라는 희망찬 이름을 걸고 새롭게 단장하였다. 학교의 모습은 최신식으로 변했지만 학교를 살리고자한 바램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에 학교의 본래 역할은 그대로 이어나가길 모두가 소망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은 ‘배움과 정이 넘쳐나는 새로운 활력의 공간’을 목표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과 활동들을 만들어냈고, 70~80년대 옛 시절을 추억하고 새롭게 즐겨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배움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도에는 청소년의 농어촌 현장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선정되면서 미래의 젊은 인재들에게 농촌의 정과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소랭이활성화센터를 꾸려 나가고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소랭이마을은 방치될 수 있었던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시대적 교육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저혜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폐교를 농촌의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열린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1. “농촌에서 배운다.”- 농촌의 가치 전달

(본문 8줄)

요즘 청소년들은 틀에 갇혀 자라나고 있다. 학교, 학원, 운동시설, 심지어 놀이시설까지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높은 밀도에서 경쟁하며 성장한다. 비좁은 틀 안에서 경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심을 기르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며 자라날 수 있을까? 소랭이마을은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다. 정해진 공간이 아닌 넓은 자연에서. 그래서 한 번 재밌게 즐기고 가는 일반 체험마을이 되지 않기로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공부했다. 학년별 학습 내용을 농촌의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점과 접목하여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전형적인 농촌으로 벼와 밤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바른 전달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역량을 키웠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것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린 공간에서 풍부한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었다.

2. “소랭이마을 활성화의 시작.” - 지역 활성화 견인

(본문 8줄)

소랭이마을에서는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곳을 찾는 아이들과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은 조용한 시골마을인 소랭이마을의 활성화 시작점이 되었다. 주민들은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많은 교육을 이수하여 새로운 능력을 키워나갔으며, 체험 학습활동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자 직접 발 벗고 나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의 학교들을 찾아가 체험학습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관련된 전시박람회가 개최되면 2박3일의 일정도 거뜬히 소화하며 소랭이마을에 대한 설명과 체험 시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3년 여름에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과 재미난 활동들을 묶어 소랭이마을 여름 농촌캠ป์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농촌교육체험마을’이라는 인식을 견고히 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소랭이마을에 활력소가 되었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부가적인 이윤 창출에 힘이 되었다.

3. “소통의 즐거움” - 도농교류, 경제활성화 촉진

(본문 8줄)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버렸고 매년 짓는 농사는 항상 비슷하다. 반복되는 일상에 쉽게 무료해지는게 농촌의 생활이고 소랭이마을 또한 그러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지만 강한 변화가 생겼다. 학교를 새롭게 단장하여 조성한 소랭이활성화센터에 교육체험과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마을에 찾아오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설렘이 소소하게 생겨난 것이다. 논과 밭, 실개천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동감을 느끼고 전래놀이와 생활에 자연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아이들 또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지혜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다.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와 활력이다. 또한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고 많은 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소랭이마을은 이러한 도농간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결론 3줄)

학원폭력, 건전한 근로의식과 협동심 결여 등 심각한 청소년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소랭이마을은 자연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과 활동을 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다. 소랭이마을 활성화센터는 배움을 나누는 학교의 참 뜻을 이어가며 지역활성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소랭이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소랭이마을은 2009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소랭이권역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소랭이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며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정안밤꽃축제의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농한기인 여름을 이용하여 농촌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소랭이마을의 활동 중심인 소랭이활성화센터에서는 농촌교육 및 체험활동, 기업의 연수, 각종 모임이 가능하도록 회의·연수 및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항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모임의 장으로 많은 이용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체험교육을 특화하여 ‘정안 알밤 이야기’, ‘참 소중한 버’, ‘내가 먹는 밥’과 같은 농산물의 재배-수확과 연계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많은 학교들의 체험활동 공간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2013년 9월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설운동을 중요활동의 한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외의 활동으로 2006년부터 매년 초여름 밤꽃이 필 시기에 기원제와 함께 간소하게 운영하던 정안밤꽃축제를 2012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앞으로의 다양한 운영을 위해 소랭이캠프를 시범운영하여 지속적인 주요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 결과와 성과(13줄)

소랭이마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나의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거점형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다. 그 결과로 학교가 있던 자리에 소랭이활성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체험의 개발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소랭이마을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농촌교육프로그램을 도출해냈고,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과정을 습득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다. 여기에 잘 갖춰진 시설을 포함한 다각적인 장점을 계기로 농어촌 인성학교의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 및 체험방문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소랭이 마을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게 되었고, 정규 방문객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증진, 고정적인 지역 인력의 충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욱이 지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에서 배우기 위한 교육의 시대적 트렌드가 농촌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소랭이마을의 미래는 더욱 밝고 진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많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극복방법(8줄)

소랭이마을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교과학습과정의 이해와 많은 연구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이나 컨설팅의 힘을 빌려 장기간의 교육과 회의과정을 이행했어야 했다. 주민들이 이 모든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재 또한 충분하지 않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아직까지 학교 또한 ‘농촌체험’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농촌에서 교육체험을 한다’는 것에서는 인지가 부족한 상태라 수요가 상당하지는 않았다.

소랭이마을은 지역민의 단합된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향식 개발마을이다. 많은 주민들이 내 일처럼 사업에 참여하였고, 사업을 위한 교육의 이수과정에서 무한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을 위한 장소이니 만큼 교육을 통하여 운영할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 이것으로 소랭이마을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소랭이마을은 농촌체험을 교육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지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생겨났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과 다각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소랭이마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두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여 그 가치가 크게 키워나갔다는 것이다. 애당초 소랭이마을의 사업 시작은 마을에 있던 주민들의 모교인 월산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배움을 나누던 학교는 없어지지만 그 뜻은 그대로 이어나가려 했던 주민들의 염원이 모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업의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자연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다. 남들과 같은 식을 고수한다면 남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적다. 소랭이마을이 우수한 점 또한 이 차별성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가치를 나누는 사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9년에 소랭이권역이 지정되고 2011년 12월에 폐교된 월산초등학교가 소랭이활성화센터로 재단장 되었다. 이후, 농촌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실습의 과정을 거쳐 2012년 3월 예비운동을 실시하였고 운영의 보완단계를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인 실제 운영이 실시되었다. 정안밤꽃축제는 2006년도부터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초여름 매년 마을에서 운영되어오던 사업이며, 소랭이마을 여름농촌캠프는 2013년 8월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6. 관련 예산 (5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70억원
농어촌우수축제(2012-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각 5천만원

라. 연락처

조직명 : 소랭이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임동영
홈페이지 : <http://www.soraengi.com>

11. 충남 부여_ 백제인동마을(경제활성화)

제목: 공동자산, 공동생산, 공동정산으로 공동체 정신을 키우다

“우리 소유의 밭을 마을에 내놓고 갈테니 농토가 없는 이웃들이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게 하시게”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백제인동마을
- 인구: 64농가 154명(남67,여87)
- 면적: 530ha (산림420ha,논31ha,밭29ha,기타50ha)
- 관련 사업:

2003년 팜스테이마을(농협중앙회),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2010 휴양마을사업 자지정, 2007~2009년 산촌생태마을(산림청), 2011년~**현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거전리중심5개마을), 2012년 마을기업지정(안전행정부)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깊숙이 자리 잡은 산골 오지마을. 백제인동마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산에서 자라는 산채나물과 약초를 캐면서 별이를 해왔다. 하지만 노인들 혼자 힘으로 채집도 힘들고 제값을 받고 파는 일도 어려웠다. 이에 생산과 출하를 함께하여 힘이 덜 들고,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벌수 있게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백제인동마을은 차령산맥이 서해를 향해 뻗어가는 칠갑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백마강으로 흐르는 구곡지천이 마을 앞을 굽이쳐 흐는 충청도 두메산골이다. 고령화된 노인들은 산채나물과 약초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았다.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자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제인동마을은 공동체정신을 활성화하여 화합하고 상생 협동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나. 왜 백제인동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백제인동마을에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업 부지를 기증한 주민과 출향인사들의 훈훈한 손길이 있었다. 소득 작목인 원추리를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었으며, 원추리에 담긴 백제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활용해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1. 주민과 출향인사의 기증으로 공동의 자산을 마련하다.

백제인동마을은 고향과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일궈나갔다. 마을에 전

해지는 훈훈한 일화로 1900년대 초반 마을에 살고 있던 최씨할아버지와 황씨할머니 부부 이야기가 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내 소유의 밭을 마을에 내놓고 갈테니 농토가 없는 이웃들이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게 하시게”하셨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손이 없었던 노부부를 마을 옆 양지바른 산에 모시고 산소를 관리해왔다.

마을에서는 노부부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고 계승시켜야할 공동체의 덕목으로 널리 홍보하였다. 이에 주민과 출향인사 분들이 선뜻 부지를 기증하여 녹색농촌체험관, 산림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끌어 나갈 중심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 공동출하 공동정산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다.

백제인동마을은 아름다운 야생화와 들꽃, 야생동물, 풀벌레, 시냇물에는 토종 물고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평화로운 산골마을로써 주 소득자원이 산채나물과 약초이다. 하지만 산채나물을 채취하고, 약초를 캐서 읍내장터에 내다팔아야 별 돈이 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산약초작목반을 결성하고 주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야생초 원추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산약초작목반은 원추리를 소득 작목으로 특화시켜 집단 재배하였고 생산된 원추리를 한데모아 도매시장으로 공동출하하고 공동정산하여 소득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홀로 약초를 캐어 팔며 흩어져있던 마을주민들이 결집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87개의 농가가 함께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3.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백제인동마을이라는 이름은 옛날 백제 왕도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다 마을 특산물 중의 하나인 인동초를 합쳐지은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백제의 폐망과 관련된 슬픈 전설이 담긴 야생초 원추리를 재배하여 주요 소득작목이자 경관작물로 가꾸었고 이를 활용해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2차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들과 산에 자생 하고 있는 야생초 원추리를 논다랭이, 뽕기밭에 옮겨 심어 3~4월 경 새순을 채취해 출하하여 소득을 올린다. 이후 7~8월이 되면 망우초(忘憂草)라고 불리는 원추리꽃이 피어 산촌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망우초 전설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망우초 꽃길걷기”, “망우초 그림그리기”, “망우초 사진촬영”을 진행한다. 그리고 가장 자랑할 체험으로 “근심을 잊게 하는 꽃, 망우초 사랑의 꽃떡만들기”는 단연 백제인동마을에서만 경험 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이다.

백제인동마을은 소박하지만 마을공동체를 위한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는 기증사례가 귀감이 된다. 또한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속에서 두 배로 웃고 두 배로 버는 즐거움을 얻고 있으며, 소득 작목으로 식재한 원추리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작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우수하다.

다. 백제인동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백제인동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하여 산채나물과 약초를 주요 소득사업으로 하는 산약초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마을사업을 앞장서서 진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백제인동마을 산약초공동체의 중요한 활동은 산채나물과 약초 생산이다. 자연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논밭으로 옮겨 심고 친환경 재배를 통해 채취한 뒤 생산물을 한데 모아 공동 출하하고 공동 정산하면서 함께 일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얻고 있다. 작목반에서 시작된 공동체는 도농교류영농조합법인이 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마을공동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또한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면서 도시민의 방문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도농교류활동도 활발해졌다. 주민들은 뜻을 모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했고 녹색농촌체험관을 건립하여 도농교류의 메카로서 방문객의 숙박, 식사, 체험 장소를 제공하며 도시민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후 산촌생태마로 선정되어 세미나, 교육,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산림문화센터가 지어져 각종 단체, 기업, 학교와의 도농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2. 결과와 성과(13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마을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주민 소득과 함께 행복지수도 높아졌다. 숲을 보존하고 나무를 가꾸면서 그 숲의 하층에 잘 자라는 약초, 산채,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임업인의 소득공간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산채 약초 체험공간으로, 학생들의 생태 숲 학습 공간으로, 숲 휴양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낳았고 귀농 인구도 늘어났다.

또한 소득 작물로 심었던 원추리가 환하게 꽃을 피워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선물하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다.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마을경관도 개선하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한편,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인식이 확산되었다. 마을에서는 산나물 외에도 잡곡, 고추, 콩, 쌀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주민들 대부분이 친환경 산나물 재배에 참여하다보니 다른 작물의 친환경 재배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교류를 통해 마을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가 담긴 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외소득증대와 함께 도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년 동안 백제인동마을공동체가 선봉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마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도 있었고 공동생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어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웠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회계처리,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민들 각각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게끔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이 역할 분담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분업화 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참여하는 공동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새로운 정보 취득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

백제인동마을은 마을공동체운동을 통한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공동체의식함양과 공동사업 적응훈련을 선행했다. 사업이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마을을 한 번에 바꾸는 거대한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지 않아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함으로 덜 힘들고, 덜 외롭고, 같이 있어 더 즐겁고, 더 보람 있고, 작은 소득이지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했다. 사업비를 받기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물이나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문을 두드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동체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백제인동마을의 산약초작목반은 1997년에 결성되어 산채류와 약초를 공동출하하고 정산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 도농교류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업,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팜스테이마을,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7~2009년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진행하였다.

6. 관련 예산 (5줄)

2004년 녹색농촌마을조성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관건립에 2억, 2007년~2009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산림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12억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백제인동마을 웰빙산약초공동체(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김은환

홈페이지 : 백제인동마을.kr

1. 충북괴산_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환경)

제목: 마을 공동의 의제로부터 시작된 괴산군 육지염전 프로젝트

“지역의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농가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전역
- 인구: 회원수 1,000명
- 면적: 130개 작목반
- 관련 사업:

2009년 절임배추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2010년 충청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삭제 우리 조상들은 수분이 많은 채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금에 절여 여러 가지 양념에 섞어 먹는 방법으로 김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은 11월이 되면 일년 동안 먹어야 할 김치를 담게 되는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김치 담는 것에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김치를 담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괴산의 농가들 역시 이러한 시기에 발맞추어 1990년대 후반부터 개인 농가를 시작으로 절임배추를 팔기 시작한다. 양질의 배추와 양질의 소금으로 절여진 배추는 시장의 좋은 호응을 얻게 되나 절임배추생산의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배추 절임 후 남은 오염된 폐염수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큰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괴산 절임배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괴산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이다.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는 절임배추산업이 지역의 하천 환경에 위해가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시켜 나간다. 작목반별로 염수 통 160개를 비치, 절임 후 남은 폐염수를 임시저장하도록 하였으나 마땅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문가 및 행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괴산군 전역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연간 3,000톤이 소요되며, 11월 한달 간 하천으로 버려지는 폐염수는 800여톤으로 이 버려지는 폐염수에 의해 지역 하천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행정의 손을 잡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육지염전 프로젝트였다. 협회와 행정은 실제 적용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소금으로의 재생산을 확인하게 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배추절임 후 버려진 물이 지역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역 의제가 존재했다. 이 의제 설정에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지역 농가 대부분이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역 하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계

속 사용해야하는 지역 농가들의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 명확한 문제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11월 한달간 버려지는 800여톤의 폐염수는 지역하천에 심대한 오염을 끼치는 동시에 하천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역 농가들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절임배추 산업이 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다시 지역 농가의 목줄을 죄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달간의 달콤한 주머니 사정에 의해 지역 농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폐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지역 의제가 생겨난 것이다.

괴산군의 농가들 사이에서 하천에서 “민물고기 대신 바닷물고기가 올라와 살 상황”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농가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2. 함께 공부한 행정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는 여러 방면의 전문가와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던 중 농업기술센터의 윤홍규씨를 만나게 된다. 윤 씨는 유색 벼를 활용한 농촌어메니티 개발, 다목적 베드식 건조 육묘시설 개발보급, 충청북도 최초 직원 1인 1과제 연구사업 추진, 관상용고추 선발육성 및 분 재배기술을 확립 등 괴산군 농업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윤 씨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 적용시책 창안 4건, 농업혁신 기술개발 3건, 괴산청결 고추를 이용한 고추술 개발 외 2건을 특허 등록하는 등 괴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부하는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열정적인 공무원이다. 윤 씨는 최근 5년 간 장관표창 1회, 도 친절공무원선정, 충북상상아이디어 경진 최우수, 충북행정명품경진 최우수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공무원인 윤홍규 씨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절임배추 후 남은 소금물의 친환경 처리방안 모색이라는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육지염전 실험을 시작하기 시작한다.

3.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설득한 농가 -> 적극적으로 절임배추생산농가를 설득한 협의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전문가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역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전국최초의 육지염전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었다. 일단 버리는 폐염수를 각 작목반별로 별도로 임시 저장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게 되었다. 괴산군이 지원한 폐염수 임시 저장통에 버릴때마다 보관해야하는 수고로움은 빠르게 돌아가는 김장철에 참여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는 지역농가들에게 지역환경의 위기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설득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농가들은 스스로 수고로움의 길에 동참하게 된다. 지금의 수고로움은 괴산군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지며 이 효과는 결국 농가들의 자산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다.

(결론 3줄)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괴산군청이 추진한 육지염전 프로젝트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에 염전을 만든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였으나 당장의 주머니 사정 해결을 위해 지역자원을 무한으로 이용하다 보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들에게 온다는 공동의 의제 설정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 육지염전 프로젝트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절임배추 생산 잔여물인 폐염수의 경우 염도가 높아 미생물 증식이 어렵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폐염수가 그대로 자연으로 배출될 경우 강이나 하천의 미생물 및 생명체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경지에도 염분이 축적되어 토양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는 육지염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시설하우스 내 경사가 없게 평탄작업을 하여 소금물 깊이를 고르게 하고 100~150㎡ 크기로 구획을 만들어 육지염전을 조성하였다. 증발지와 결정지를 구분하고 배추절임 후 남은 소금물을 증발지에 가두고 자연증발을 시켜 염농도 25% 내외가 되면 결정지로 옮겨 소금을 결정시킨 후 고무래 작업을 하여 소금을 수확 (소금물은 염농도 27%에서 소금결정)하게 된다. 증발지는 소금물을 저장하는 기능까지 겸하여 소금물의 높이를 20cm 까지도 가능하나 가급적 소금물의 높이는 낮을수록 유리하며 결정지는 소금물을 8cm이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기유동을 위해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바닷가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여러 단계의 증발지를 거치기 때문에 불순물이 침전되어 깨끗한 백색의 소금이 생산되나 배추절임 후 남은 소금물은 흙 등이 혼합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건축용, 제설용 등으로 현재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년간 800톤의 소금물로 80톤의 소금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금을 관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장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역의 이러한 활동은 환경보호, 예산절감, 유기농업군 이미지 제고, 자연 학습장 이용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과 2010년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지원 받았고, 2012년 녹색성장 우수사례에서 녹색성장위원장상을 수상하였기도 하였다.

환경보호와 유기농업군의 이미지 제고에 힘입어 괴산 절임배추는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400개 농가 참여로 시작된 협의회가 현재 698개의 농가로 늘어나게 되었다.

698가구에 이르는 괴산의 절임배추 농가는 2013년 11월 한 달간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33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 사이 농가당 4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선순환 효과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1월 한달간 절임배추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이 3000명, 한달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택배 사용량이 30억원에 이르는 등 절임 배추 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교포를 상대로 미국·캐나다 수출도 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농가에서 진행하던 일상적인 관행들에 문제가 있다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농정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지역의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절임배추 산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힘들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농가 역시 수긍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농가들이 육지염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농가들이 배출하는 폐염수의 경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가 참여 확대의 문제는 “자원 재생”과 “환경 보호” 통해 지역 전체가 공생해야 한다는 당면과제 해

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폐염수 배출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와 괴산군은 현장에서 농가들을 설득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은 사람과 자연, 즉 생명전반에게 삶의 근간, 그 뿌리를 흔들고 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열심히 일한 결과는 환경에 대한 파괴만이 아니라 지역문화, 농업자체를 파괴하는데 기여했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생산과 소득에만 급급해하는 인간들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의 지역개발 사례들과는 반대로 괴산 농가들의 이러한 활동은 “공유지의 비극” 위협에서 스스로 벗어난 지역 공동체의 생태환경 운동의 측면에서 칭찬할 만 하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개별사업의 당사자들(사업주체, 지역주민, 지자체 등)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며 전체의 이익을 보지 못하여 결국 목초지(농촌)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러한 농가들을 조직화할 수 있었던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재했고 이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공부하는 행정이 존재 했기에 이러한 성과는 가능했을 것이다. ->

여러 공동체 원들을 설득하는데는 구체적인 의제와 위기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1년 작목반이 자생적으로 조직된 이후 2009년 절임배추 생산자 협의회가 지역 농가들의 공동마케팅 채널로 조직되게 되면서 의제가 본격적으로 모아지게 된다. 절임 배추 생산 농가들의 교육, 공동 마케팅의 문제에서 지역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육지염전에 대한 연구와 육지염전을 테마로 하는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절임배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6. 관련 예산 (5줄)

“빛과 소금”이라는 지역자원의 순환 모델을 테마로 하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2009년에 추진하였다. 육지염전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자원재활용 교육, 체험, 생산 등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절임 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회원들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공동 마케팅, 품질 역량 강화 교육, 사업추진단 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괴산군의 절임 배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괴산군 절임 배추 생산자 협의회

대표자 이름 : 정순천 회장

연락처 : 011-9417-2200(대표번호)

2. 전북김제_화동마을(환경)

제목: 주민이 주인인 마을영화 제작을 통해 물환경 개선에 눈을 뜨다_김제 화동마을

- 주소: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화동마을)
- 인구: 3085명
- 면적: 36.79km²
- 관련 사업:

농촌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중, 문화적 도구를 도입해 주민참여를 독려한 마을 환경개선 사례 : 2011년 마을환경영화 제작을 추진함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농어촌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속가능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생활자 중심의 물환경 인식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행정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특히 유역생활자의 생업활동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농촌의 영농활동 개선이 이루어져야 비점오염 저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주민 참여도 높이고 지역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화동리 깨끗한 마을가꾸기 모임”이라는 명칭의 주민커뮤니티와 ‘깨끗한 하천, 건강한 농산물, 살고싶은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원평천의 사라진 어종이 돌아올 수 있고 깨끗해진 원평천 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손자, 손녀가 찾고 싶은 깨끗한 마을환경 만들기가 목표이다. 이를 위해 영농개선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생활습관의 변화로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정화의 날과 환경모임을 가지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환경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동마을에서는 2011년 1월 12일 화동영농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마을공동부지에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였으며, 마을주민이 전부 참여한 마을환경정비를 시작하였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비점오염원의 최대 발생지인 농촌(전 국토의 85% 해당) 지역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참여형 마을 하천관리이다. 그러나 활동 도모를 위한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문화적 활동으로 주민참여를 높일 방법이 필요했다. 이를위해 마을환경영화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영화제작과정을 통해 화동마을 주민들간의 공동체성이 함양되었고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때문이다.

쉽고 재미있고 해보고 싶은 놀이로 시작하다.

원평천 유역의 죽산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배제하고 마을단위의 커뮤니티를 끌어내어 스스로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해보고 싶은 문화활동을 통한 접근

을 시도했다. 이는 환경을 생활 밀착형으로 좀 더 가깝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으며 최초 협의 자리에 10명 남짓했던 출석률은 마을 환경 영화 제작이라는 즐거운 활동으로 연결되자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인 독립영화 상영회, 마을진단게임, 영화따라잡기, 영상편지, 클랭크 인crank in고사, 영화 시사회 등) 참여율이 가구별 70%에 달하게 되었다.

외부의 관심으로 내부의 행동력이 높아지다.

영화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주민들은 영화 뿐 아니라 마을주민들 스스로 화동마을 노래자랑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적극성을 보이게 되며, 화동마을의 마을환경영화 만들기가 인터넷과 지역 방송국 등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10월 7일 마을환경영화 시사회가 진행될 때는 마을 주민 뿐 아니라 죽산면 내 48개 마을의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TV와 인터넷 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으로 주민의 자발적 행동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스스로 심심일만하여 마을 도랑청소, 마을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진은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무뚝뚝한 행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화동마을의 마을환경영화 만들기가 대외적으로 홍보되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히 죽산면사무소의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되었고 마을환경영화 시사회 준비에 있어서 지역 홍보 및 초대장 배포에 죽산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시사회 당일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화동마을을 비롯하여 죽산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결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활동을 확산시키는 기반구축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결론 3줄)

기존의 주민교육의 학습과정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방식을 택한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었으며 주민들에겐 기대와 재미,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 모색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활동(비점오염원 저감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출발의 근본 목표가 나의 활동으로 인해 내 손자, 손녀가 찾고싶은 깨끗한 마을 환경 만들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 주민참여형 환경영화 제작과정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마을환경영화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은 농업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마을주민 참여의식 확산과 향후 연구진행 동참 유도를 위해서 영화제작진과 연구진이 2011년 8월부터 두 달간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화동마을에 머물며 마을주민과 가까워지기 과정을 거쳐 마을주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작한 환경영화이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농촌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환경영화 만들기’를 주제로 시범대상지역 주민인 화동마을 주민들이 참여 주체가 되어 “우리마을 영화만들기 동아리”를 꾸려 기획팀, 촬영팀과 함께 시나리오도 작성해보고 함께 마을주민 오디션도 치렀다.

영화 소재를 찾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의 다양한 워크숍은 주민들이 더욱 재밌어 하며 의견을 내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영화 촬영기간 내내 마을은 주민 모두가 구경하는 주민오디션, 영화촬영 고사 등으로 잔치 분위기를 형성하며 마을 주민들의 도움아래 진행되었다.

영화가 제작된 후 2011년 10월 7일 추진된 마을환경영화 시사회는 화동마을 주민 뿐 아니라 옆 동네 주민들

도 대거 참석하기에 이르러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

함께 호흡하며 지냈던 촬영팀은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마을단위 영화제작의 경험이 있는 “이닥 픽처스”에서 맡아주었다. 젊은 청년들의 열정은 주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소통을 가져왔으며 이는 주민들의 협조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공동창작의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환경독립영화를 만들겠다는 설명과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재미난 영화만들기라는 도구 아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영화 촬영에 함께하는 주민 뿐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주민들도 생활에 있어 ‘한번 더’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결과와 성과(13줄)

화동마을 주민들은 영화제작 참여와 시사회, 독립영화제 대상 수상 등을 통해 시골의 조그만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단절된 주민간의 소통과 마을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하면서 자신감을 회복, 스스로 마을가꾸기에 대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갔다. 또한 본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주민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마을노래자랑, 마을 환경운동의 날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자체 규약을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화동영농위원회에서는 “환경지킴이 주민 숙지사항”을 제작, 함께 지키기 위한 “약속”을 만들어 마을 입구에 비치시키고 있다. 약속의 내용으로는 1. 쓰레기 집하장을 이용, 처리하는 주민은 규격봉투 사용하기. 2. 쓰레기는 꼭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음식물은 발효 후 각자 밭에 퇴비로 사용). 3. 농약, 화학물질들은 비오는 날 논, 밭에 뿌리지 않기. 4.마을 도랑 관리를 위해 마을 대청소는 매월 10일에 진행하기. 등이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과 극복 과정

비점오염원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평생의 농사짓던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더구나 한 참 바쁜 농번기에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개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마을환경영화라는 제작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즐거우면서도 힘든 점이라 할 수 있다.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힘들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는 물(하천)환경을 좋게 해야 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어렵고 귀찮은 것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공동체 활동, 문화활동, 환경개선 활동 등 흔히 말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행정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마을이 작은 활동을 통해 영농위원회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화동마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마을 플랜카드를 자체 제작, 마을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른 마을이다. 작은 마을의 이러한 활동 하나도 죽산면 전체의 마을들이 협조하게 되었으며 이를 권장하는 행정의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 중 ‘문화’를 접목시켜 단순 워크숍, 교육을 떠나 지역주민의 문화 창출, 문화공동체 발굴로 이어지게 된 사례이다. 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나고 즐거운 놀이는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업의 파급효과를 훨씬 더 크고, 깊고, 오래가게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10년 첫 사업이 시작되어 주민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과 주민참여형 하천가꾸기 활동을 진행, 주민커뮤니티

의 마을환경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데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2011년 사업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도입, “영화”를 통한 사람중심의 비점오염저감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6. 관련 예산 (5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저감 기법개발 공동연구'의 제5 과제인 '농촌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자율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화동영농위원회

대표자 이름 : 심재호 위원장

연락처 : 010-6230-0436

5. 충북단양_한드미마을(환경)

제목: 에코빌리지 한드미마을

“마을개발의 최종목표를 소득증대의 단기성과가 아니라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에코빌리지 건설이라는 장기성과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301-2
- 인구: 85명
- 면적: 85ha
- 관련 사업: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한 이후 산촌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 권역개발사업, 낙후지역공모사업을 진행. 현재는 농촌체험과 농촌유학을 진행중이며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단양 한드미마을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경지면적이 좁고 평균기온도 낮아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마을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로 다른 동네에 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00년에 정문찬 대표가 마을이장을 맡으면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낮은 소득수준, 버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마을안길,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에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양태를 바꿔보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애초 마을사업의 시작은 환경개선이 주목적이었다. 수확 후 남은 농업관련 쓰레기들이 방치된 마을환경은 가난한 동네의 을씨년스런 풍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문찬 대표의 생각이었다. 즉, 소득이 생겨야 최종목적인 환경개선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마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기 체험이 뭔지 잘 모르던 때에 우연히 대학생들이 엔터를 왔고, 대학생들에게 옥수수를 따오게 했더니 이들이 옥수수값을 흔쾌히 지불한 것에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이 때 농촌체험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녹색농촌체험사업 관련 예산의 존재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보조금을 통해 본격적인 농촌체험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사업초기에는 단순한 마을환경개선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드미마을을 에코빌리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한드미마을은 마을주민들의 고령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고령화를 극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체험사업과 농촌유학을 시작했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났고 지금은 19명의 유급노동자(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전입)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1. 리더의 추진력

(본문 8줄)

첫 번째 요인으로는 마을사업을 시작했고,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문찬 대표의 추진력을 꼽을 수 있다. 정문찬 대표는 1999년에 고향인 한드미마을로 귀향했고 2000년에는 마을이장을 맡으면서, 마을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3년 마을 최초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으면서 마을개발에 앞장섰으나, 주변의 굶지 않은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장이 독선적으로 마을사업을 운영한다는 평가, 뭔가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낭설 등이 퍼졌으나 3년 간의 검찰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마을주민들 사이에서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문찬 대표의 추진력은 마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법에 근거하고 있다. 1978년 최초 마을 귀농 후 벌였던 양계사업이 파산한 후 떠났던 고향마을을 다시 찾으려 하며, 그가 목격한 낙후된 마을상황 개선의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 농촌유학 -> 농촌체험과 농촌유학으로 기반을 마련 ,주민의 동의를 구함

(본문 8줄)

두 번째 요인은 농촌유학이다. 2007년부터 시작한 농촌유학은 소득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로 노인들로만 구성된 인구 40여명의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문찬 대표는 농촌유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 초등학교를 살리고자 시도한다. 농촌유학 첫 해에만 16명의 아이들이 한드미마을로 내려와 폐교를 막을 수 있었다. 2013년에는 48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드미마을의 농촌유학은 이후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 2012년에는 464명의 농촌유학생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한드미마을의 농촌유학은 유학생의 학부모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이들을 통해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이 구전마케팅되는 효과를 통해 방문객이 늘어나는 소득창출의 측면과 함께, 유학온 아이들을 따라 마을로 귀농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의 사망으로 인해 마을이 폐촌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줄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거듭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3. 마을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 환경개선 (어류생태계복원, 자연자원 복원)

(본문 8줄)

현재의 한드미마을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소로는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들 수 있다. 2003년 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어떠한 보조금 사업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심지어 시설하우스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을에서 시작된 마을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요인은 무엇보다 각자의 처지에 맞는 일거리를 주고, 노동량만큼 배분을 해주었다는 점이다. 노인회는 환경정비사업을 맡아 마을길과 소하천 등을 관리하고, 부녀회는 체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중고생들로 구성된 체험도우미에게는 주말이나 방학에 체험보조 역할을 맡겼다. 수행한 각자의 역할과 노동량에 합당하는 인건비를 받게 되니, 주민들 입장에서 마을사업은 꽤나 짝짤한 수입원으로 떠올랐다. 농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의 발생을 통한 소득제고는 마을 주민들의 사업참여 의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결론 3줄)

한드미마을이 성공사례로 성장하는 데에는 낙후된 고향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리더의 사업추진력과, 소득과 지속가능한 마을조성에 큰 기여를 했던 농촌유학, 그리고 마을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소득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마을주민들의 인식 공고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작용하였다.

다.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마을개발의 최종목적인 에코빌리지 건설을 위해서 마을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낮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제고가 필요했고, 소득제고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젊은 층이 필요. 이 과정에서 농촌체험과 농촌유학이 진행되었다. 현재 19명의 유급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2000년대 초반 낙후된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찾다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2003년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을사업 수행을 위해 노인회, 부녀회, 체험분과, 상거래분과, 환경정비, 체험도우미, 사무국, 농촌유학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각종 언론에 마을이 홍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마을방문객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체험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권역개발사업 수행동력이 축적되었고, 농촌 마을단위 사업에서는 드문 사례인 오페수처리시설과 전선지중화 사업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마을주민이 다수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10%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많아 조합원들의 배당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원 33명에게 1인당 300만원 정도 배당할 예정이다. 유급노동자 18명 중에 마을 토착민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마을에 남아있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낙후성의 상징처럼 남아있던 마을의 돌담길을 정비하여 뛰어난 경관자원 및 체험자원으로 계승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남아있던 방앗간과 연탄저장고 등을 보존하여 체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마을의 중심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이들의 여름체험 및 겨울체험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하천의 관리를 통해 복원된 어류생태계는 청정지역으로서의 한드미마을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준다. 소하천 건너편에 있는 자연동굴로 통하는 진입로를 확보하여 체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각종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사용되고 있어 마을의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초기 농촌체험과 농촌유학을 위해 지은 통나무집과 식당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고, 방문객들을 위한 펜션시설도 완비되었다. 마을안길을 정비하여 버스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4년 5월 오픈예정인 약선식당의 옆에 새로운 농촌유학센터와 사무국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 기반을 조성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19명의 유급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외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립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99년 33가구에 4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던 한드미마을이 현재는 47가구에 8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 인구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한드미마을의 주민들이 정문찬 대표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업초기에는 마을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던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마을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는데, 2007년 한 신문에 ‘돈벼락 맞은 마을’이라는 제목을 가진 선정적인 기사에서 한 사례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3년 7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와 경찰,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현재 가장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마을사업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비즈니스 요소의 도입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최고의 시사점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감사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점은, 여타의 마을에서 회계와 관련하여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회계의 불투명한 과정으로 인해 많은 분란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투명한 회계과정은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마을개발의 최종목표를 단기성과 중심인 소득증대가 아니라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에코빌리지 건설이라는 장기성과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3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쾰른에 있는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에코빌리지·에코투어리즘(Eco-Tourism) 인증패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현실과 동떨어진 마을개발이 아니라, 정확한 마을현실 분석에 기초한 마을사업을 통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을발전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한드미마을은 우리나라 농촌개발 관련 마을사업의 역사에서 상당히 초기에 개발사업을 시작한 마을에 속한다. 2000년 마을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마을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보화마을, 권역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낙후지역공모사업 등을 2013년 현재까지 진행하였다.

6. 관련 예산 (5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억 5천만을 지원받았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7억 5천만원, 권역개발사업비로 67억원, 정보화마을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낙후지역공모사업비로 15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라. 연락처

조직명 : 한드미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름 : 정문찬

홈페이지 : www.handemy.org

8. 제주서귀포_동백마을(환경)

제목: 동백나무를 심으며 300년 미래의 꿈을 꾸는 동백마을

“설촌터이자 마을 상징물인 동백나무 군락지를 공유화하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 인구 : 518명(남 265명, 여 253명)
- 면적 : 1,542ha
- 관련사업

신흥2리 동백마을의 공동체사업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사업으로 시작으로 서귀포시의 자립마을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색깔 있는 마을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제주 동남쪽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마을 신흥2리는 감귤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설 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였다. 특히 제주도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이나 마을은 관광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마을을 떠나가는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고 있었고, 주민들은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흥2리 마을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신흥2리의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을의 청년회는 마을역사를 기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7년이 마을의 설촌 역사가 300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3년여 동안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방향을 논의한 끝에 단순히 설촌 기념사업에 머물지 않고, 300년 미래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7년 5월 동백마을 선포식과 함께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체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연구회의 명칭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는데, 동백나무 숲을 보전하고 마을의 전통을 잘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함축하였다. 이처럼 신흥2리 동백마을만들기는 '아름다운 마을의 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3줄)

신흥2리 동백마을의 사례의 특징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동체와 마을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중시하면서 주민 간, 공동체 간 협동의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소득활동과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힘써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1.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다 (8줄)

첫 번째 요인은 동백마을 만들기의 주체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과정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이다. 신흥2리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곳이어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닫힌 환경이었다. 그러나 신흥2리 마을의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믿고 신뢰하는 전통만큼은 어느 마을 못지않게 살아 있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을역사를 기록 정리하면서 설촌 300년 기념사업을 제안하고, 동백마을을 선포하는 등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어르신들이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3여년에 걸친 마을 내부 논의와 외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그 당시 제주도내 다른 마을에

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미래마을 가꾸기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이처럼 과정을 중시하는 마을분위기 속에서 리더의 헌신적인 활동과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였다.

2. 환경자원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의 의지(8줄)

두 번째 요인은 이 마을의 설촌터이자 마을 상징물인 동백나무 군락지를 공유화하였다는 점이다. 신흥2리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다. 이 숲은 마을 설촌터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마을회와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이 숲을 공유화하기 위해 3년간의 노력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였으며, 행정의 도움도 이끌어낸다. 더욱이 마을총회에서 토지 매입에 필요한 4천여만원의 마을기금을 충당하여 공유화한다. 동백 숲의 공유화는 주민들에게 숲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게 했으며,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300 그루의 동백나무를 심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나무심기는 벌써 3,000여본을 넘었고, 나무를 심는 마을로 알려지면서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3. 마을공동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8줄)

세 번째 요인은 동백마을 공동체사업을 전담하는 ‘동백고장보전연구회’라고 하는 주민조직이 있는 점이다. 연구회는 청년조직에서 출발한 후 주민총회에서 동백마을만들기를 전담하는 조직체로서의 위상을 부여 받는다. 연구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조직으로서 동백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소통과 사업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행정이나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었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특히 동백마을만들기의 지속성과 공공성, 자율성 원리를 담은 운영규약을 만들었다. 현재 연구회는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마을단위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연구회는 동백나무 묘목사업, 동백열매를 활용한 소득사업,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소식지 발간, 동백 숲 보전 및 가꾸기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결론)

이처럼 신흥2리 동백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마을숲 공유화와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마을의 환경보전을 중시하면서 주민 간, 공동체 간 협력이 잘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동백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신흥2리 동백마을은 2007년 설촌 300년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주민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중장기 동백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이를 토대로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 구성, 육묘장 조성 및 나무 심기, 동백 숲 공유화, 동백방앗간 운영 등을 통해 '300년의 미래를 꿈꾸는 마을'을 가꾸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신흥2리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다. 이 숲은 마을 설촌터라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동백마을 만들기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마을회와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이 숲을 공유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년간의 노력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였으며, 행정의 도움도 이끌어낸다. 더욱이 마을총회에서 토지 매입에 필요한 4천여만원의 마을기금을 충당하여 공유화하였다.

신흥2리 마을회와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동백나무 육묘장을 조성하였다. 1,500여평의 육묘장은 6,000여 본의 어린 동백나무가 자라는 곳이 되었다. 신흥2리는 한국지방난방공사와 함께 매년 300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다. 마을 전체를 동백나무 숲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흥2리 동백마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체험과 교육견학을 겸한 마을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체험은 동백기름을 활용한 천연동백비누만들기, 동백숲 체험하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 외에도 방문객들이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숙박과 농가민박을 연계하고 있고, 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2. 결과와 성과(13줄)

신흥2리 동백마을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져 갔다. 특히 공동체의 결속과 협동의 경험이 쌓였다. 동백 숲을 공유화하고 나무를 심는 과정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도 높아졌다. 주민들 스스로 숲을 지켜내고 가꾸는 일이 알려지면서 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 숲이 주관하는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전통 마을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제10회 대회에서 '숲지기상'을, 2012년 전국지역리더대회에서는 조직부문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마을자산도 늘었다. 동백방앗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소득사업은 단순히 소득과 일자리 효과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동판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포장재를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제주동백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홍보 효과 덕을 보고 있다. 마을이 알려지면서 일반 관광객들도 동백마을을 찾아 숲과 마을을 걸어서 탐방하고 있다.

동백기름 생산체계를 갖추고 제품을 만들 수 있어도 유통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2010년 동백마을은 국내 화장품 전문기업인 (주)아모레퍼시픽과 아리따운 구매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동백마을만들기의 공공성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영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신흥2리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2004년. 그 당시 신흥2리 청년회원들은 설촌 300년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제안을 마을회에 했으나, 초기에는 제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묻혀 버리는 구나'하는 위기의식도 있었으나,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설촌 300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등 2년여의 관심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동백 숲이 제주도지정문화재이면서 마을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설촌터라는 점에서 '동백마을 만들기' 계획은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었다. 지난 7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백마을은 여전히 고민이 많다. 동백 숲 가꾸기, 공동소득사업, 체험휴양사업, 특히 공동체의 협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나무심기 등의 비영리적 활동에 주민참여 방안은 늘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

4. 공동체 우수사례에서 배울 점(8줄)

신흥2리 동백마을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2004년 마을공동체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대표와 협력하면서 동백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헌신적인 리더(김현섭 회장)와 마을사업 전담조직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했고, 이는 제주지역에서 쉽지 않은 사례다.

또한 마을의 설촌공간인 동백 숲 토지 매입에 4천여만원의 마을기금을 충당하여 공유화하였다는 점이다. 동백 숲의 공유화는 주민들에게 숲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게 했으며,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공동체와 마을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중시하면서 주민 간, 공동체 간 협동의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소득활동과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힘써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4년 신흥2리 청년회는 마을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맞는 '설촌 300년 기념사업'을 구상하게 되고, 2007년 3월 마을회관에서 동백마을만들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그해 5월 동백마을 선포식과 함께 신흥2리에 마을만들기 주체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 육묘장 조성 및 동백나무 심기, 2009년 동백군락지 공유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을 통한 동백방앗간 조성, 2010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숲지기상', 2012년 전국지역리더대회 조직부문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6. 관련 예산(5줄)

신흥2리 동백마을의 마을공동체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모사업(100백만원)에 참여하여 동백열매 가공공장(동백방앗간)을 조성하였다. 이후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사업(70백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160백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백만원), 동백기름 기능성 검사지원사업(100백만원), 색깔 있는 마을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사)동백고장보전연구회

대표자 : 오동정

홈페이지 : www.jejudongbaektown.com

1. 경북울진_십이령마을(문화 축제)

제목: 문화활동으로 하나가 된 십이령 마을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삼당권역
- 인구: 가구수(213)호, 인구(489)명
- 면적: 총 4,677ha (농경지 107ha, 임야 4,429ha, 기타141ha)
- 관련 사업: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4줄)

경상북도 울진군 북서쪽에 위치한 십이령마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태어난 삼당권역의 새로운 이름이다.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고, 오래된 담장을 정비하고 센터를 짓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될수록 주민들의 아쉬움은 커졌다. 시설은 만들어 지는데 주민들의 마음은 더 팍팍해졌다. 개발 사업을 떠나 4개리 마을 주민들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8줄)

울진 십이령마을은 울진에서 봉화까지 '소금과 미역의 길' 십이령 옛길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미역과 소금, 어물을 지게에 지고 내륙으로 행상을 떠났던 바지개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마을의 전통문화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던 중 십이령마을에서는 이를 복원하고 재현하자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십이령등금쟁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마을주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마을과 마을 간의 자연스런 소통이 이루어져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십이령마을 주민들에게 바지개놀이 공연, 사물놀이 공연 등 문화활동 기회를 부여하였다.

십이령마을의 사업은 공동 문화권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축제를 통하여 자연스레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십이령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독창적 지역문화를 활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외부 기획사 없이 지역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적절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지역 문화자원 발굴한 '십이령바지개꾼 놀이'

첫 번째 요인을 뽑으라면 단언컨대 '십이령 바지개꾼 놀이'라는 문화자원을 발굴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은 '십이령 보부상길', '십이령 금강소나무길'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기본계획을 세우던 2008년 당시에는 지역민에게조차도 잊혀졌던 십이령길이였다. 1988년 부구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이규형 용은 어린 시절 집 앞을 수없이 오가던 십이령 바지개꾼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십이령 바지개꾼 놀이'를 창작했다. 그 후 수 차례 공연을 하며 근근이 맥을 이어오다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십이령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이규형 용에게 직접 전수 받아 주민들이 함께 공연하는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에 선보이게 되었

다. 지난해 작고하신 이규형 옹은 젊은 사람들이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울진의 고유한 전통놀이로 이어져 나가기에 희망하셨다.

2. 기획에서 공연까지 ‘주민 손으로’한다.

두 번째 요인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역문화 축제라는 것이다.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한마디로 촌스럽다. 기획에서 공연까지 지역주민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한기(12월~2월)가 되면 십이령마을 주민들은 더욱 바쁘다. 다음해 대보름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축제까지 공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지개놀이 공연도 해야 하고, 풍물연주도 해야하고,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모인 센터는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활짝 핀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어 고스란히 좋은 추억을 공유하게 된다.

무대에 오르면 그 재미는 두 배가 된다. 웃고 즐기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역량은 높아만 진다.

울진읍에 가니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으며 스타가 된 주민들도 있다.

3. 가까이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찾다.

세 번째 요인은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적절한 지원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지만 간혹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회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해결한다. 의외로 지역 내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흔쾌히 도움을 주었다.

울진교육지원청(사생대회 협조공문 및 시상), 울진문화원(바지개놀이 소품, 의상), 부구초 최승란 선생님(사물놀이 무료강습), 그리고 울진군청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추가사업비까지 지원해 주었다.

이런 지역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마을주민들의 손으로 축제를 할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해낼 수 있었기에 연계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결론 3줄)

십이령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외부전문가가 만들어 남에게 보여주고 돈을 벌기위한 사업이 아닌, 다소 미숙하고 촌스럽지만 지역주민들이 꾸리고, 만들고, 치루는 축제라는 점이다.

마을의 역사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라 더욱 정겹다.

다. 십이령마을 공동체 활동 소개

1. 문화 동아리 육성(10줄 서술)

울진은 개봉영화관이 한개도 없다. 두천리는 하루에 3대의 버스만 운행이 된다. 한마디로 십이령마을은 교통의 오지, 문화의 오지이다.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풍물놀이팀을 구성하였다. 사업비로 사물놀이 악기를 구입하고, 농번기에는 저녁시간에 농한기에는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사물놀이 강습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부녀회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다. 추운날씨에 30~40분을 걸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냄비뚜껑 두들기며 복습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만큼 문화활동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물놀이 회원 중 울진문화원에서 요가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사물놀이 강습에 요가강습까지

추가되었다.

4개리 부녀회원들이 사물놀이라는 문화동아리 활동을 매개로 자주 만나 소통을 하다 보니, 각 마을부녀회에서 십이령마을부녀회로 자연스럽게 하나가되어 사사로운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2. 결과와 성과(13줄)

십이령마을의 가장 큰 연중행사는 매년 2~3월 경로잔치 겸 웃놀이대회(21회)와 8월 초 개최되는 삼당초등총동문회가 있다. 그리고 2012년 시작한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 역시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십이령등금쟁이 축제는 주민문화동아리를 만들어 겨우내 준비한 문화동아리팀들의 발표무대이기도 하다.

십이령등금쟁이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고, 문화빈곤지역인 지역민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유산인 십이령바지개꾼 놀이를 재현했다는 점에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직은 두 번의 축제에 불과해 완성도나 운영상의 미흡한 점도 많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축적되어 독특한 지역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십이령마을 문화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문 강사 초빙이었다.

사물놀이 악기, 강습실은 준비가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전문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보니, 거리가 멀어서 십이령마을까지 출장을 오기가 어려웠고, 혹은 선생님과 일정이 맞지 않아 모셔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인근 삼당분교에서 사물놀이팀을 지도하셨던 최승란 선생님이 마을주민의 노력에 감동하여, 흔쾌히 지도를 맡아 주시기로 하셨다. 또한 악기나 악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도하셨던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은 마을에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축제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지역축제가 한창이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물론 내용, 성과 측면에서 성공한 축제가 많지만 축제의 대형화, 지나친 상업화, 지역 부적합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해 십이령등금쟁이 축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위한 축제가 아니라 주민이 만들고 주민을 위해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 맞는 소박하고 정겨운 맛이 있다.

십이령마을은 두천1리, 두천2리, 상당리, 하당리 총 4개의 행정리가 모인 권역단위 마을이다. 축제장소, 내용, 공연연습 시간 및 장소 선정 등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개리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십이령마을에서 문화동아리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고 3년째 되던 2010년 여름부터 자료수집 및 준비과정을 거쳐, 그해 겨울 농한기에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6. 관련 예산 (5줄)

2011년 제1회 등금쟁이 축제 사업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농어촌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2회 축제는 2,700만원(자부담 2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십이령마을

대표자 이름 : 강성국

연락처 : 010-3889-1804

홈페이지 : www.12goge.com

이메일 : angelmee@lycos.co.kr

2. 경남거창_한기리 시인학교(문화 축제)

제목: 불 꺼진 교실을 밝히는 시인학교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얻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용양면 한기리
- 인구 : 379세대, 1,159명
- 면적: 58.47km²
- 관련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주최 거창군농업회의소 주관 [주민주도형 행복한 마을만들기] 교육을 시작으로 2013 문화이모작 사업 “할매할배 학교갑시다”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지역창의아이디어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출생인구 감소로 점점 줄어드는 농촌지역 인구로 인해 하성초교는 60년간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도 어느새 불 꺼진 학교는 지역의 쇠퇴를 반영하는 상징이 되어있었다. 급기야 폐교되어 14년 동안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동문과 마을 주민은 버려진 폐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주민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다시 학교가 문을 연다면, 불꺼진 교실은 환히 밝아지고 빈 벽의 책장엔 책들이 꽂히고’라는 상상으로 주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추억속의 배움터를 복원하고자 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전환 및 공동체 의식 확대의 계기마련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문화, 교육사업을 가능성을 토대로 삶의 질 개선, 새로운 마을경제 공동체사업 발굴 및 공동기금 조성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하성초교를 중심으로 농사 짓는 마을에서 시 짓는 마을, 글 짓는 마을로 만들고자 한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하성초교 복원을 위한 할매할배 학교갑시다 프로그램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체험관광 유치형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정형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며, 소외된 문화 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내어 자립적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1. 마음 모으기

(본문 8줄)

하성초교 주민들은 ‘버려진 학교를 다시 되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학교를 살펴보고자 했다. 다시 이 학교가 문을 열고 주민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이 붙여지고, 주민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찾아오고, 계절마다 운동장에 모여 소풍 같은 백일장과 운동회가 열리는 모습을 모두 함께 그렸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

이 될 날을 꿈꾸었다.

거창군농업회의소에서 주관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교육에 주민 30명이 꾸준히 참석하여 모두가 수료하였다. 주민은 교육과정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사업 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문화예술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끊임없이 주민 간의 마음을 모아 그 꿈을 현실로 이루고자 노력했다.

2. 지역내 단체들의 지원과 참여

(본문 8줄)

지역의 문학도시추진위원회, 농협, 인근중학교 학생, 문화예술인 등 폐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전체가 힘을 모았다. 13년 11월 19일 ‘할매할배 학교갑시다!’라는 이름으로 주민 백일장을 학교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폐교된 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민들의 첫 행사로 매주 저녁마다 거창지역의 문인들과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습작과 시화제작 활동을 한 결과였다. 소문을 들은 거창군 내 문화예술인 단체는 백일장 당일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나섰다. 주민은 직접 식재료를 가져와 참여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음식을 마련하였다. 또 거창군 문학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습작물은 시집으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을기획자의 고교동창회에서는 주민들이 먹을 찹쌀떡을 기증하는 등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 농업회의소 역할 기술 필요

(본문 8줄)

웅양면 한계리 주민과 하성초등학교 동문들은 지역의 상징이자 주요한 거점인 학교가 더 이상 폐교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주민과 행정은 함께 노력했다. 특히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거창군 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이 나서서 거창교육청과 거창군에 제안하여 주민들의 공동편의시설 및 문화생활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작년에 개정된 폐교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임대 조건 등을 확인하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거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예정인 생활권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요조사에 웅양면 하성초등학교를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더불어 초등학교의 임대를 위해 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후원을 받아 1년간 임대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행정과 다각적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폐교활용 의지를 보이면서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새롭게 학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결론 3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단위 농촌학교 마저 문을 닫으려는 시기에 14년 만에 폐교된 하성초등학교에 다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교문을 열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행정의 지원과 맞물렸을 때의 파급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 하성초교 복원 프로그램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하성초교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12년 여름 한기리를 중심으로 폐교활용 계획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폐교활용을 위한 재능기부자 및 단체발굴, 거창교육지원청 무상임대 협의 등을 거쳐왔다. 12년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형성된 거창군 농업회의소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이후 13년 문광부의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할매할배 학교갑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4년에는 농업농촌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문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처음에는 폐교된 학교를 다시 학교로 사용하고 싶다는 막연함에서 시작하여 ‘할매할배 학교갑시다’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글짓기 교실을 열었다. 죽어있는 폐교를 추억속의 배움터라는 의미를 두고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내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지역과 마을, 사람의 역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나누고자 시작했다. 첫 교육에는 “그런거 나는 못해! 우리는 딱 그런거 싫어한다”라고 말하시는 어르신이 한번 두 번 세 번 교육을 하고 나니 어느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배를 보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시” 이런것도 시지! 하고 말한다. 지역의 문인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시를 쓰는 법과 낭송하는 법을 배웠다. 폐교된 학교의 3회 졸업생인 노인회장이 시낭송 연습을 마치고 난 후 백일장에는 꼭 자작시를 지어오리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글짓기 교실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소풍같은 백일장!'을 주제로 열린 백일장 행사는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품을 써 품평회를 하고 시 낭송회, 사진전시회, 마을이야기 사진집 전시와 주민 솜씨 자랑도 함께 열었다.

2. 결과와 성과(13줄)

주민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 모았다. 수십년전 학교를 다니던 어린이는 마을과 농촌을 지키는 장년이 되었고, 농촌의 교사로 부임했다가 마을에 살게 된 노인은 수십년만에 무너져가는 조희대에 다시 올라 섰다. 백일장을 위해 풀을 깎고 운동장을 고르고 페인트칠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였다. 동문회에서는 3백만원의 학교운영 기금을 내놓기로 했고, 주민들은 열심히 습작활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주민 스스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고 끊임없는 학습과 네트워크를 확충시키면서 문광부의 장관상 수상을 하는 성과도 얻었다. 마을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직접 문화적으로 가꿔가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 하성초등학교를 다시 찾는 모임도 구성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며, 각종 교육 및 정비사업에 팔을 걷어붙여 나섰다. 이렇게 주민 모두가 학교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버려진 탁구대를 다시 학교로 들여 체육의 공간을 만드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나서는 모습이 마을에 생겼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학교는 교육청 소유로 마을에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 학교 소유문제를 두고 몇 년간 협의를 했으나 농촌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 가장 큰 난제였다. 임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모으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좋은 의도를 이해는 했으나 공감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한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모이는 어르신들 마다 ‘그게 되겠나’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고, 행정에서도 임대문제, 지원문제 등으로 외면받았다. 이때, 주민을 설득하는 일을 노인회의 한분이 맡아 벗고 나서주었다. 나도 하겠다는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통이 시작되면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순히 폐교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화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주민들은 서로 소득시설이 필요하다, 창고가 필요하다 등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목표와 비전 없이 싸우고 목소리 높이는 일만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가치를 인식했고 학교를 살리는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에 주민 스스로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시행하고자 노력하고있다.

이처럼 사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얻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본 사례는 2013년 11월 백일장 행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들은 12년 농업회의소의 김훈규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학교에서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학교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학교 동문회와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였다.

6. 관련 예산 (5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약 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거창군 내 경관조성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15년 농림부의 창의지역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다. 앞으로 할매할배 학교갑시다 시즌 2를 통해 백일장을 기반으로 영화학교, 생활체육학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라. 연락처

조직명 : 하성초등학교를 다시 찾는 주민 모임

대표자 이름 : 김훈규

연락처 : 010-2557-1654

홈페이지 :

이메일 :

3. 제주서귀포_가시리마을(문화 축제)

제목: 놀멍 배우멍 재미진 가시리마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함께 놀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냈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 가시리

인구: 449가구 1200명 초등학생 40여명

면적: 5199ha 표선면의 41%

관련 사업:

가시리 마을은 2010년 신문화공간조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레지던스운영,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색깔있는 마을사업의 7개의 사업을 2013년 현재 추진하고 있다.

1. context (배경과 목표)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5줄>

주변 마을에서는 제주 가시리마을 사람들은 평생 일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가시리마을은 개별 작목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밤 낮 없이 농사짓는 부자마을 이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이 공부로 성공해서 서울에서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 곳에 사는 즐거움 함께 하는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 마을은 농사짓는 일터였지만 함께 거주하며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마을의 리더와 사무장은 마을 주민이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시리의 문화공동체 육성 사업은 시작되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10줄>

2010년 제안 초기 사업의 방향은 마을의 과거의 문화를 찾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계획이 시작되면서 마을의 사업 목표는 “놀멍 배우멍 재미진 마을”로 구체화 되어 갔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놀고 배우고 즐기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의 행복한 공동체를 재생할 것이라는 계획가의 믿음이 기저에 있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그날의 농사가 바빠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놀면서 배우면서 재미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렇게 초기 갑마장 역사자원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세부 사업들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주민 수요 중심의 문화 활동변경 되었고 주민 수요 중심의 문화 활동이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었다.

2. 왜 이프로젝트가 우수한 사례인가?

가시리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점, 주민수요를 우선으로 한점 축제를 통해 주민들과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한 점이다.

외부전문가와 결합

가시리 마을은 문화기획가를 총괄계획가로 예술가들을 문화활동 선생님이로 모셨다. 마을에 귀촌해 있던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인 지금중 대표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총괄계획가로 결정되고 계획수립, 사업조정, 실행관리의 총괄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는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드는 등 사업을 총괄하고 마을 추진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했다. 사업과정에서는 지금중 대표는 유수의 문화예술작가를 마을에 유치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계획했다. 마을에 머무는 작가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문화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갔다. 외부전문가가 사업 총괄의 권한을 위임받아 기획에서 실행과 운영의 긴 과정동안 주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중요했다.

주민들과의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마을 사업의 시작은 마을주민의 수요를 찾는 일이었다.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잦은 회의가 있었다. 총괄계획가와 리더와 사무장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의하고 어떤 활동이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게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언제나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랑방도 만들었다. 모여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들의 문화동아리인 밴드, 난타, 스포츠댄스, 어린이 스포츠댄스, 국궁의 순으로 서서히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가들도 주민과의 소통에 역할을 했다. 마을에 입주한 회화작가인 홍반장은 아트택시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리마을 사람들을 표현면까지 데려다 주며 주민들의 일상과 소통했고, 아침커피 프로젝트를 진행한 작가는 아침6시 일어나는 주민들과 마을 중심광장의 나무아래서 커피를 나눠마시며 소통을 시도했다.

가시리마을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재미있어 할 만한,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사업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킨 점이다.

주민 축제를 통한 성과 공유

“혼디모영 신명나게 놀아보세”는 주민들의 공연을 위주로 하는 축제이다. 2010년 12월 동아리활동 발표대회의 성과가 주민들 사이에 회자된 것을 계기로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3회를 개최한 마을 축제이다.

이 축제를 통해 동아리 활동, 문화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의 노력이 공유되고 칭찬받는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평가 받는다. 마을주민 남녀노소 가족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같이 보낸다.

가시리에는 사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지만 가시리의 가장 큰 변화중에 하나는 주민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마을 축제를 함께 연다는 것이다. 큰 규모도 많은 예산을 들인 축제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함께 즐기고 먹고 놀며 성과를 공유하는 이 자리는 가시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가시리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전문와 예술가와 함께 준비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고 일상을 배우고 놀고 즐기는 주민축제를 만들어 성과를 공유하며 꿈을 만들어 가고 있다.

3. 가시리마을 문화공동체 활동 소개

마을에는 주민이 조직화된 문화동아리와 레지덴시 프로그램으로 마을에 머무는 예술가들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문화동아리로는 마을주민 10명이 참여하는 밴드 동아리, 노인회가 참여하는 기공동아리, 남성 장년들이 참여하는 국궁동아리, 부녀회로 구성된 스포츠 댄스 동아리, 어머니들의 활동으로 확산된 어린이들의 스포츠댄스 동아리, 부녀자들이 함께 하는 타아동이라, 한달에 한번 출사로 돈독해진 사진동아리가 있다.

이들 모든 동아리는 많게는 주 2회 적게는 한달에 한번의 지속적인 모임으로 활동을 지속한다. 그리고 마을 축제가 다가오면 더욱 자주 만나며 준비하여 1년동안 성장한 자신의 기량을 이웃에게 선보인다.

문화교실은 여러 예술가와 작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시적 프로그램이다. 이유헌작가가 진행하는 풍낭아래광은 마을의 중심광장에 있던 나무가 사라진 자리 돛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사진, 쿠키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아이들과 함께 한 사진 교실, 가시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스케치 탐험대, 어린이 영상교실, 어린이 방송교실, 자연의 재료로 즐기는 즐기는 바람땡 자연학교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이들과 함께 한 문화교실은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과 사업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바람땡 자연학교는 가시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놀이를 스스로 개발하는 자연 워크숍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상상력과 꿈꾸는 창의력으로 자연과 교감하며 노는 방법을 개발하는 워트샵이다.

아트택시는 가시리에서 면소재지인 표선면까지 주민들을 모셔다 주는 택시 운행 프로그램으로 교통비로 주민들의 애장품을 받는다. 함께 가는 동안 주민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을 녹화하며 작가는 공동체 기반의 문화지도를 그린다. 그는 노인분들을 면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지만 특별한 날에는 아이들과 극장에 가거나 축구경기를 보러가는 아트택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점 - 해결방법 -10줄>

주민들과의 문화동아리를 진행하며 가장 어려운점은 주민들을 동아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상에 바쁜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즐기도록 하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자주, 매일, 시간나는 틈틈이 주민들 찾아다니고 만났다. 자주 만남은 주민을 움직였고 주민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여러 동아리들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다른 성격의 동아리 활동에 균등한 관심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초기에 활동 재료 구매, 강사지원으로 시작된 동아리 활동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완료된 지금에도 여러지원이 요구된다. 마을이 가용할 재원은 한정적이고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원은 공정해야 했다. 사소한 지원으로 동아리간 갈등이 없도록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점이고 동시에 지원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드는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다.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점 -10줄>

가시리마을 문화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에게 배우고 즐기고 노는 방법을 알려줘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노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가시리 마을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변화하고 외부인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칭찬하고 마을의 이미지가 바뀌면서 주민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살기좋은 마을이 되면서 마을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것도 가시리가 얻은 성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시리의 문화 공동체 활동사례가 가르쳐 주는점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함께 놀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발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놀 사람인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 5줄>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 2012년 완료되었지만 마을주민동아리와 문화교실은 2013년 현재도 진행중이다.

<관련 예산> 출처와 예산액 -5줄

2010년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중 가시리는 총사업비 20억을 배정 받았고 그중 가시리문화센터 구성에 5억, 레지덴스 공간 구성에 1.5억이 하드웨어 사업에 사용되었다. 수요조사로 5천만원, 공동체 축제로 2억, 문화아카데미 9천만원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용되었다.

조직 가시리문화학교

대표자 이름 지금중

연락처 064-787-3666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a-si>

4. 전남나주_이슬촌(문화 축제)

제목: 초등학교부터 어르신까지 합심하여 만든 이슬촌 크리스마스축제

“마을 사람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축제 전부터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2구 계량마을
- 인구: 68가구/157명 (남:68명, 여:89명)
- 면적: 108.3 ha
- 관련 사업:

2007년 나주 배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되어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산타마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우수 마을축제 공모를 통한 농어촌축제지원을 받아 산타마을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이슬촌은 전체 주민의 80%가 60~80대 노인인 마을이 고령화 되어가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마을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자리잡았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경제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이슬촌은 ‘새벽에 맞이하는 이슬을 맞고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가진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 이름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친환경 농업을 일구고, 100여가지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민들의 근면성을 대변해준다. 이슬촌은 주민들의 근면성이 경제적소득과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겨울에는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타마을 축제가 개최된 이후 농한기에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슬촌의 구성원들이 축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이다. 마을 축제 개최 이후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마을 회의가 빈번해졌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여 축제에 일조하다보니 주민들의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이슬촌 산타마을축제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특별한 인공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성당 자원을 활용했다는 것과 초등학교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각자 역할을 분배하여 축제를 스스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1. 첫 번째 키워드제목 작성 농촌마을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축제

(본문 8줄)

이슬촌 산타마을축제는 새로 만들어진 건물과 자원이 중심이 되는 축제와 달리 마을의 원동력이 되는 노안 성당이라는 자원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배울만하다. 지방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안성당은 천주교 신자가 90%가 넘는 이슬촌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다. 이슬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때,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성당과 부합하는 ‘크리스마스’ 컨셉을 찾을 수 있었다. 축제를 위한 건물을 세우거나 기념 조형물을 세우지 않고도 성당 자원을 활용하여 예수가 태어난 구유를 재현한 공간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광객들이 가장 붐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와 축제장을 연결해주는 운송수단도 외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 자원인 트랙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축제의 명물로 만들 수 있었다.

2. 두 번째 키워드 제목작성 전통과 신앙공동체에서 나온 협동심

(본문 8줄)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체험 프로그램이나 산타마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주민의 98%가 대부분 가톨릭 신자인 신앙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방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안성당이 중심이 되어 이슬촌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를 신자이다. 유서가 깊은 노안성당을 통해 형성된 신앙공동체는 마을의 화합과 단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른 요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계량 대동계’이다. 대동계는 이슬촌의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풍습으로, 11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구한 말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대동계를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결정하고, 설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이웃의 안위를 묻고, 합동 세배를 하는 풍습은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세 번째 키워드 제목 작성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합심하여 만든 축제

(본문 8줄)

이슬촌 산타마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초등학생부터 동네 어르신까지 합심하여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은 축제의 구성원이 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내 일처럼 일조했다.

청년회는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진행을 맡아 안내소를 운영하며 산타 분장을 하거나 산타 트랙터를 운영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축제를 돕겠다고 나섰다. 지붕위에 없는 용마름을 엮고, 짚풀을 이용해 미끄럼틀을 만들거나 노인당에서 산타마을 축제에 쓰일 작은 소품들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군고구마를 팔고, 활발한 마을 부녀회는 요리 솜씨를 발휘했다. 산타마을 축제를 통해 주민들은 소득 창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크리스마스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결론 3줄)

이슬촌 산타마을 축제 운영 초반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힘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큰 문제없이 주민들의 손으로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결된 마을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이슬촌, 산타마을축제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이슬촌은 기존에 있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마을 중심에 있는 성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가 산타마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마을 단위의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인지도를 얻으면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축제이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이슬촌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100여 년이 된 노안성당이 있는 점을 착안하여 단순한 농촌체험에서 한 단계 높여 성탄을 연계한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 성당이 축제의 중심이지만 종교적 색채가 드러난 축제가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하며 온정이 있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다.

축제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문화 공연과 전통 민속놀이, 산타 트랙터 타기, 소망엽서 쓰기, 소원 담은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주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떡국과 김치전은 관광객들에게 실비로 제공된다. 산타축제에서 볼 수 있는 공연들은 모두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다. 마을 풍물패가 길놀이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고, 초등학교들은 댄스공연을 준비하고, 국악을 전공한 귀농인은 국악무대를 재능기부로 선보인다. 축제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마을의 공동시설을 보수하거나 일부는 마을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2. 결과와 성과(13줄)

첫째, 마을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력에 기초한 농촌마을 축제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생각보다 방문객이 적었다. 산타마을 축제를 개최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 단위 크리스마스축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이슬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2013년에는 관광객이 6000명 이상 방문했다.

둘째, 경제적인 크리스마스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한기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슬촌은 농촌 체험프로그램과 농가 수입으로 소득을 얻는데, 겨울에는 소득원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산타마을 축제는 농한기에 새로운 농촌 소득의 일환으로 마을 경제력을 상승시키고, 농촌지역에 크리스마스축제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농촌 간 문화적 교류를 확산시켰다.

셋째, 마을에 생기와 활력이 생기고, 주민간의 유대의식이 증진되어 마을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축제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만들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축제를 통해 마을과 축제 참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소외된 마을 주민도 공동체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축제 수익금으로 형성되는 마을발전적립금으로 마을의 불우이웃을 돕게 되었고, 2014년부터는 매년마다 마을 내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지만 당시엔 별로 알려지지 않아 방문객수가 많지 않았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여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야간운영 중심으로 주간 프로그램이 부재하였고, 주민역할분담이 미흡하거나 축제운영의 자생력이 부족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족한 인력은 마을 축제에서 그간 역할을 맡지 않았던 계층인 마을 어르신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천주교 네트워크를 통해 천주교 광주교구의 지원을 받고, 나주시 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 면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축제의 개최 및 발전을 위해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산타마을 축제를 매년 거듭하면서 이슬촌은 조용하고, 지체된 분위기의 농촌마을이 아닌 활동적이고, 생기있는 마을이 되었다. 축제를 처음 개최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문가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축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축제를 내 일인 듯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축제에 참여한다. 친환경 농업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축제로 인한 인지도 상승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마을에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후에 운영되는 산타마을 축제에는 마을 사람들이 축제의 일원으로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전부터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준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2004년 농림부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당명의를 폐교를 임대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산타마을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한 콘텐츠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2007년에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되고, 4회의 지원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이슬촌 산타마을축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귀촌한 사람들까지 합류하여 테마가 있는 마을로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6. 관련 예산 (5줄)

2007년 신활력사업으로 이슬촌이 나주 배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되었다. 이 때,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산타마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축제 1회차에 3000만원, 2회차에 2200만원을 지원받아 산타 트랙터를 운영하였고, 3회차에 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수 초청 공연을 진행했고, 4회차에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 전남도로부터 우수 마을축제 공모를 통한 농어촌축제 지원비(1억3000만원)를 받아 주민 주도적인 축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하게 되었다.

라. 연락처

조직명 : 이슬촌

대표자 이름 : 김경화

연락처 : 010-5635-1000

홈페이지 : www.eslfarm.com

이메일 : powerajm@hanmail.net

5. 경북고령_개실마을(문화 축제)

제목: 집성촌 마을 문화를 유지하는 개실마을

“ 양반마을, 평범한 생활에서 전문적인 체험학습장이 되기까지 ”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243번지 일원
- 인구:158명
- 면적:1,236만 6,000㎡
- 관련 사업:

개실마을은 2001년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사업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환경개선과 주민 역량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팜스테이(2003), 신활력사업(2005), 고택자원화사업(2006)을 통해 전통마을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농촌문화와 생활체험을 제공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가. 배경과 목표

1.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4줄)

개실마을은 조선중엽 영남사림학과(嶺南士林學派)의 증조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의 집성촌으로 350여 년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의 약 80%가 전통한옥을 유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양반문화’를 간직해 오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마을이다. 2000년 중반부터 마을의 농업 외 소득원을 발굴하고, 고령화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조들의 생활문화 자원을 체험프로그램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2.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8줄)

예부터 개실마을은 양반의 후손이 모여 사는 탓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마을주민의 소득은 주로 농업에 국한되어 왔다. 주민의 평균연령은 70세 이상으로 전형적인 농촌고령화가 진행되어 마을의 활력이 다소 쇠퇴해 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개실마을은 이러한 이유로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농가소득 외에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전통 한옥마을이 보유한 문화다양성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농촌 체험마을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오랫동안 보존해 온 전통마을에서 정비가 필요한 흙담, 기와집, 우물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방문객을 위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촌 생활 문화를 활용하여 엿 만들기, 대나무 물총, 연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전통한옥마을의 문화를 제공하고자하는 개실마을의 목표를 실현할 태세를 갖추었다.

나. 왜 이 마을 사례가 우수한가?

(중요한 키워드 3줄)

개실마을은 조선중엽부터 이어져 온 전통마을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이곳을 찾는 도시민에게 전통한옥 숙박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지역주민이 스스로 운영 가능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지역을 대표하는 농촌체험의 장소로 거듭난 자립형 농촌체험마을이다.

1. 도시화로 남은 빈방, 한옥체험의 기회로 역이용 (본문 8줄)

첫 번째 요인은 개실마을의 위기가 기회로 작용한 전환점에서 시작되었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마을 내 활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마을주민 대부분은 쌀, 보리쌀, 딸기, 마늘, 완두콩 등의 특산물 제 배에 의존하는 농가소득 구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국가지원으로 시작된 2001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체험마을 수용태세를 구축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마을 내 보존되어온 전통방식의 한옥에는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는데 개실마을에서는 이를 방문객을 위한 한옥체험 장소로 활용하였다. 마을 내 한옥정비는 외관을 보존하고 숙박객 편의를 위한 실내공간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농가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을 찾지 못했던 마을 어른들은 한옥민박을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찾게 되었다. 또한 숙박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마을경관 정비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농촌체험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2. 전통마을의 소박한 일상생활 체험개발 (본문 8줄)

두 번째 요인은 주민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소박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이다. 개실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체험마을이 되기 전부터 해오던 농업과 전통방식으로 대대로 내려온 전통음식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되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문화체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소소한 변화를 시도해 가족 및 단체가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역량교육은 노인에서부터 마을에 젊은 사람들까지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

3. 다양한 도시민유치 활동과 전문기관 협력 (본문 8줄) -> 전통과 전문화를 융합하다.

세 번째 **집성촌 주민들의 일상 속에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녹여내다.** 개실 마을의 주민들은 선비들의 집성촌이었던 마을을 관광화 시키는데 있어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수적 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지원과 새로운 변화들로 인해 진보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농촌체험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상의 삶에 농촌관광대학의 외부 숙박 교육과 에버랜드의 서비스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잘 녹여내 전통적이면서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이어진 프로그램으로 1사1촌을 맺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협력기관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가치 창출에 도움을 주고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면의 도시민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다양한 도시민유치와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이다. 개실마을 주민들은 도시민, 기업, 행정기관 등 다양한 단체를 유치하여 도농교류의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인근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 지역기업과 관공서 등은 개실마을과 1사1촌을 맺고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및 지역봉사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학교는 지역사회 문화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협력기관 방문객들은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전문기관 협력활동 중에서 에버랜드의 농촌체험 마을육성 서비스를 시행한 것은 연계 시너지가 높았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기업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정기적인 서비스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업은 농촌지역에 재능을 기부하여 사회적 환원을 실현할 수 있었다. 현재도 개실마을은 중장기적으로 주민교육의 정기화, 전문기업의 연계협력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통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마을, 재방문 하고 싶은 마을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 3줄)

개실마을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 이유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침체를 오히려 지역활성화의 전환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세대원이 줄어들어 남은 빈방을 보수하여 한옥체험으로 제공했고, 고령화된 주민이 보유한 농촌생활 노하우를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해 냈다.** 특히

초기 행정지원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은 현재 주민스스로 운영 가능한 자립형 마을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 개실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진행과정 간략소개 3줄) - 완료

개실마을은 2001년 조직된 마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녀회(30명), 작목회(12농가), 노인회(50명), 향우회(200명)가 참여하여 농촌체험에 대한 기초역량을 학습하고, 이후 주민조직 스스로 한옥민박, 농촌문화체험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자립형 마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체류·체험관광객 유치와 농외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1. 중요한 활동(10줄 서술) - 완료

2001년 아름답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개실마을은 지속가능한 농촌체험마을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수용태세를 조성해 왔다. 전통한옥과 어울리는 마을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을 앞 하천가 조경식재 및 생태관찰지를 설치하였고, 2004년부터는 도로변, 쉼터에 매화나무 300주, 체험장 주변에 백일홍 50주, 야생초화류 4,500본을 식재하였고 마을입구에 자운영단지 1만평, 연꽃밭 150평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마을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방문객에게 전통한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안길 흙돌담과 샘터를 친환경 재료로 보수하였고, 주민스스로 양육의 신축을 지양하며 편리한 실내공간을 정비하였다. 한옥정비는 고택관광자원화 사업(2006)의 일환으로 기존 한옥 개·보수를 통해 민박으로 활용하였는데 총10가구에 가구당 1억을 지원하여 시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개실마을의 농촌체험거점을 위한 개실각을 건립하였다. 개실각에는 주민과 방문객의 농촌문화 교류를 위한 체험장, 농산물직거래장, 정보화실, 회의실이 조성되었고 주변지역에는 민속놀이마당, 추가체험장, 벤치농장, 잡기체험장, 산책로, 노인정 등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체험 수용태세는 연간 고용인원 1,800명을 창출하는 부녀회의 방문객 음식서비스, 연간 고용인원 270명의 노인회의 옷만들기 체험 및 예절교육의 성과로 이어져 오고 있다.

2. 결과와 성과(13줄) - 완료

개실마을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자립성을 높이는 주민역량강화 활동, 방문객 전통한옥 숙박서비스,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농촌체험의 부문별 성과를 도출해 냈다.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고객맞이 방법, 서비스교육 등 2002년부터 2년간 23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2007년에는 정기적인 주민 서비스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기업(삼성에버랜드)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농촌체험마을육성 서비스 전문과정에 참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고객관리카드 작성, 사후관리 및 평가(설문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행사 개최시 메일발송을 통해 마을 재방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통한옥 숙박서비스와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6곳(경북지방 경찰청, (주)유일폴리마, 삼성에버랜드 등)의 관공서·기업과 1사1촌을 맺어 기관 내 농산물판매코너 설치, 농촌일손돕기 등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구소재 4곳의 초등학교와 1교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체험, 예절교육, 가족캠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실마을의 체험활동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딸기 따기 체험 및 딸기잼 만들기, 엿·한과 만들기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점필재 17대손인 김병식 선생이 진행하는 예절교육은 종택에서 전통문화를 배우는 체험으로 5년간 1,400명의 참가자가 다녀갈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계절별로는 봄에 운영되는 딸기체험, 야생화관찰, 여름에 전통놀이, 모내기, 가축먹이주기 등이 진행된다. 가을에는 밤 따기, 꽃감 깎기, 연날리기가 운영되고 겨울에는 한과 만들기, 옷가락 만들기, 얼음썰매타기가 진행된다. 이러한 활동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이어졌다. 운영초기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3,919명(2년간)이 방문하여 51,594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에는 17,438명(1년간)이 다녀갔고 175,000천원으로 마을수입도 증가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8줄) - 완료

개실마을 지역활성화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주민간의 합의가 수월하지 못했다. 마을사업이 추진되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녀자들은 바깥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듯 350년 이상 종택을 유지해 온 개실마을은 유교적 관습이 유독 강했기 때문에 개방적인 마을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에 수시로 부딪혔다. 2006년 개실마을 농촌체험장 개원행사 때의 일이다. 마을 부녀회는 풍물단 공연을 5개월간 준비해 왔는데 식전행사를 이틀 앞두고 동네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인즉 양반동네에 초청한 손님들 앞에서 '부녀자들이 흥에 맞추어 엉덩이를 흔든다'는 사유에서였다. 결국 그분들을 설득하고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현대화된 오늘날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오늘날 양반동네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농촌체험마을로 개방하여 정착한 점은 마을의 긍정적 변화이다. 더불어 마을의 보수성은 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 마을회에서 전통가옥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여 80%의 한옥을 지킨 것은 개실마을 선조들의 세월을 초월한 지혜로 평가된다.

4.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 점(8줄)

보수적인 양반동네가 개방형 농촌마을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주민 스스로 내발적인 인식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사업초기 나타났던 주민들의 의견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마을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는 더욱 높아졌다. 또한 외부관광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농촌체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행정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체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어느 한 가지 프로그램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구성으로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도 개실마을의 성공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여타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극심한 격차와 다른 점이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한 사례도 긍정적 요인이다. 민간기업, 경찰청, 초등학교 등과 결연을 맺어 마을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체험마을을 홍보하고 소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5.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5줄)

고령 개실마을은 2001년 지역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변화가 진행중인 마을이다. 사업초기부터 2006년까지는 주민들의 의식교육과 농촌체험 수용기반을 마련하는 환경정비가 이루어진 도입기의 단계였고, 이후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기반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경북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농촌체험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

6. 관련 예산 (5줄)

2001년 아릅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17억이 투자되어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6억이 지원되어 농촌체험장, 생활전시관, 민속놀이마당,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리더 육성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고택관광자원화사업으로 10억(가구당 1억), 2007년에는 테마형체험시범 관광마을조성사업 2억을 지원받아 전통문화 관련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라. 연락처

조직명 : 개실마을

대표자 이름 : 김병만

연락처 : 054-956-4022, 010-3810-5936, 010-3826-7221

홈페이지 : <http://www.gaesil.net/>

이메일 : kbm5936@hanmail.net

6. 경북칠곡_인문학마을 (문화 축제)

제목: 스스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인문학마을

“생활하는 일상속의 작은 삶의 기술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낸 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소: 경북 칠곡군 전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물로 1길 32

인구: 13만명

면적:

관련 사업: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인문학도시 운영사업을 추진함

1. context (배경과 목표)

<왜 이런일을 하게 되었는가? -5줄>

사업의 기획자들은 기존의 마을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원금 만큼만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사업으로 마을주민간의 갈등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또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잘 운영되는 사업일지라도 사업으로 시혜를 받는 주민들은 일부에 그치는 이전의 사례를 극복하고 싶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스스로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는 마을을 만들기를 바랐다. 정책 자금은 꼭 필요할 때 일부분만 사용하는 마을이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칠곡군 마을만들기 인문학교실을 시작되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 -10줄>

창조적 실용 공동체, 삶의 지혜와 기술을 찾고 새롭게 구성하여 미래의 기술에 접목하여 마을 만들기에 접목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이 아닌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본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새롭게 배워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미 가진 일상의 기술을 다듬어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은 기획되었다. 생활의 기술과 삶의 공동체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 과정은 주민참여율을 높였다.

마을리더 교육을 통해 마을리더들은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한 준비기획을 마을 내 몇몇 리더들과 함께 했다. 이후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리더가 세운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10개 마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주민들과 밥을 나눠 먹기 위한 기획회의 이를 생각밥상이라 불렀다.

첫 번째 단계에 제안된 리더의 계획은 두 번째 생각밥상을 통해 변경되었다. 쉬운 의제를 가지고 즐겁게 토론하는 방법을 생각밥상에서 익히고 난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시설위주의 계획들은 주민들이 조금씩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바뀌었다.

2. 왜 이프로젝트가 우수한 사례인가?

칠곡군 인문학 교실은 일상의 삶의 기술에 집중하여 주민을 오래된 기술자로 주체가 되게

했다. 주민들간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하게 했다. 또한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여러전문가가 협업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녹여져 있었다.

주민을 오래된 삶의 기술자로 세우다.

‘생각밥상’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면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일상속의 작은 삶의 기술들을 생각밥상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했다. 생각밥상은 주민들의 텃밭 농산물을 발굴하고 집집 마당 장독 속 오래된 간장을 찾았다. 또한 손쉽게 요리를 쓱쓱 만드는 할머니들을 찾았고 이런 사소한 자원이 모여 함께 맛있는 밥먹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만났고 서로 이야기하고 리더가 만든 계획을 공유했다. 오래된 삶의 기술을 발견해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벽화를 그리자던 초기의 계획은 할머니들이 함께 떡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농산물 창고를 만들자던 계획은 할머니들의 요리기술을 활용해 인근 공장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식당사업으로 새롭게 논의되었다.

외부의 전문기술을 마을에 들여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일상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하나의 일을 위해 역할을 나누다.

마을 리더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전의 조직체계를 바꾸어 사업반장, 기록자들 선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일을 했다. 그간의 이장의 역할을 나누게 된 사업반장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주체자로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신 스스로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기록자는 칠곡 인문학 마을 신문인 ‘두루두루’를 만드는 기자로 역할을 하면서 10개마을의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자가 되었다.

역할을 분산하면서 마을리더인 이장은 동네주민들의 잠재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같이 도모하는 즐거움과 함께 추진하며 얻는 상호협력 효과, 의존적이었던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면서 협력자를 얻은 든든함을 얻었다고 했다.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을 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다.

전문회사들이 연합하다.

인문학사업은 인문사회연구소 신동오 대표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소개된 인문학 마을만들기 이외도 인문학아카데미, 인문학공모사업, 인문학 공정여행, 전국대학생 인문학활동, 인문학 예술과 놀다, 인문학 축제, 인문학 학술세미나, 주민맞춤형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 등의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예술 기획자인 URART, 경북 마을기업 중간조직인 커뮤니티와 경제, 축제기획조직인 바라, 문화기획자인 인디053, 공정여행사인 다님들, 인문사회연구소, 예술마당 등 경북지역 활동 기반인 기관과 전국을 활동하는 서울의 전문회사들이 서로의 전문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전문회사들은 서로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며 사업들을 연계했다. 이 과정에 이사업을 관리하는 칠곡교육복지문화회관의 문해교실도 연계되었다.

칠곡교육복지문화회관의 지선영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고 지원하는 행정의 일뿐 아니라 직접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하고 연합하는 회의에 참여한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들이 제시된 사업은 공모사업에 연계되고 공정여행과 문화사업에 연계되었다. 연극을 위해 문해교실을 다니고 준비된 연극은 공정여행으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야의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어야 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여러 전문회사가 함께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과 전문회사의 결합의 성과도 잘 보여준다.

3. 칠곡 인문학 마을 만들기 활동 소개

칠곡 인문학마을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박한 삶과 이야기가 인문학적 상상력이 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구현하여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분주하고 벽차게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중요한 활동

‘생각밥상’이라는 이름으로 10개 마을 주민 50~100명이 모여 무엇을 만들어 먹을지 고민하는데서 부터 출발했다. 생각을 공유하며 만들어낸 밥상은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밥상차려내기 바람을 타고 금남리에서는 ‘아버지요리교실’이 진행되었고, 남계리에서는 지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초롱계’가 부활했다. 전기가 없던 시절 마을에 초상이 나면 사람들이 한 손에 등잔에 불을 밝히고 모여 상갓집의 어둠과 슬픔을 밝혀주는 초롱을 나누던 두레였다.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다. 이야기가 담긴 추억의 떡을 만들기로 한 매원리, 젊은 엄마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육아를 해결하기 위해 부영아파트에서는 공동육아 공동체가 생겨났다. 어로리에서는 공장에 깃들 많은 이주민들을 위해 주막을 열어 이주민들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성인문해교실을 통해 이주민과 함께 한글을 배우게 됐다.

2. 결과와 성과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낸 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것과 연계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드웨어 중심의 주어진 사업비로 진행되는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이 함께 모여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같이 사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옛날 할머니들의 떡과 술 만드는 기술, 마을의 옛 이야기를 복원하는 인문학 마을, 마을은 자원을 찾으면서 어른들을 이해하며 공동체가 살아나고, 축제를 함께 여니 도시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주민들은 돈 보다 더 나은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만들어낸 인문학사업은 인문학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3. 과정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

사업에 지쳐있거나 사업에 회의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행정 사업은 해봐도 뻔한 일, 몇몇만 생색나는 일,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란 생각이 마을 내 팽배해져 있었다. 건성으로 듣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앉아 있는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URART의 김영현 대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해보니 별것 아니네, 나도 잘 할 수 있는 일이네”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일 먹는 밥상 차리기 준비였다.

<공동체 우수사례 측면에서 배울점 -10줄>

주민들이 참여하는 즐거움을 만들려면 먼저 그들이 하기 쉬운일로 시작해야 함을 이프로젝트는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함께 하게 하려면 역할을 나누어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한개의 프로젝트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옆마을과 성과를 교류하고 때로는 경쟁하게 하는 것이 참여를 촉진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 일상의 작은 활동의 자원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그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기술된 이야기가 진행된 시기 - 5줄>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출처와 예산액 -5줄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2012년~2014년까지 20억 8천 만원을 지원받았다.

조직 칠곡 교육복지문화회관

담당자 이름 지선영

연락처 054-979-5111

홈페이지

이메일 syji69@korea.kr